

2014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가 추천하는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80선



2014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가 추천하는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80선



국립중앙도서관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2014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가 추천하는)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 80선 /
국립중앙도서관 [편]. --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14
p. ; cm

ISBN 979-11-5687-033-3 04020 : 비매품
ISBN 978-89-7383-654-3 (세트) 04020

선정 도서[選定圖書]
국립중앙도서관[國立中央圖書館]

029.1-KDC5
028.1-DDC21

CIP2014019780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가 추천하는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을 펴내면서

“독서도 다른 취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애정을 기울여 몰두할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오래간다.”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의 말입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책 읽는 시간을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좋은 책을 골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나마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독서에 몰입할 수 있는 기간이 여름 휴가철이 아닌가, 합니다. 직장인들의 휴가와 학생들의 방학이 겹치는 휴가철에는 출판 시장이 성수기를 이룹니다. 그래서 휴가철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가을보다 어찌면 책을 읽기 더 좋은 시기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우리 도서관 사서들이 추천하는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을 소개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국민의 독서력 향상과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월 사서추천도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늘 책을 가까이하는 사서들이 도서관에 새로 들어온 책 가운데 이용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도서를 엄선한 것입니다.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 까지 발표된 사서추천도서 중에서 휴가철에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일반 교양도서를 중심으로 80종을 다시 골라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에 수록했습니다. 또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간략한 서평과 저자 소개, 책 속에서 뽑은 좋은 문장과 추천도서와 함께 읽으면 좋은 책’과 같이 유용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모처럼 휴가를 떠나는 여러분의 여행길에 동반자가 될 만한 책을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이번 여름휴가는 책 읽기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목차

발간사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을 펴내면서 _ 3

문학

01. 건축가, 빵집에서 온 편지를 받다 나카무라 요시후미, 진 도모노리 _ 9
02. 겨울 일기 폴 오스터 _ 10
03. 내일 기욤 뮈소 _ 11
04. 당신의 출근길은 행복한가요? 김희정 _ 12
05. 도서 대출 중 이경신 _ 13
06. 도시와 나 성석제 외 6인 _ 14
07. 뒤늦게 발동걸린 인생들의 이야기 김덕영 _ 15
08. 배를 엮다 미우라 시온 _ 16
09. 소금 박범신 _ 17
10. 아버지와 함께한 마지막 날들 필립 톨레다노 _ 18
11. 어릴 적 그 책 곽아람 _ 19
12. 우리의 직업은 인생 응원단 가무샤라응원단 _ 20
13. 작가란 무엇인가 파리 리뷰 _ 22
14. 조르바를 춤추게 하는 글쓰기 이윤기 _ 24
15. 천국보다 낯선 이장욱 _ 25
16. 풀빵이 어때서? 김학찬 _ 26

역사 철학

- 17. 김유신 말의 목을 베다 황윤 _ 27
- 18. 디퓨징 조셉 슈랜드, 리 디바인 _ 28
- 19.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재키 마슨 _ 29
- 20. 모든 것은 빛난다 휴버트 드레이퍼스, 손 켈리 _ 30
- 21. 설탕, 세계를 바꾸다 마크 애론슨, 마리나 부드호스 _ 31
- 22. 스캔들 세계사 이주는 _ 32
- 23. 심야 라디오 오가와 히토시 _ 34
- 24. 역사로 남은 조선의 살인과 재판 이번영 _ 35
- 25. 왕과 아들 강문식, 한명기, 신병주 _ 36
- 26.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우리 명승기행 김학범 _ 37
- 27. 정도전과 그의 시대 이덕일 _ 38
- 28. 조선의 명탐정들 정명섭, 최혁곤 _ 39
- 29. 행복의 비밀 조지 베일런트 _ 40

예술 문화

- 30. 1913년 세기의 여름 플로리안 일리스 _ 41
- 31.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 에스더 M. 스텐버그 _ 42
- 32. 나는 클림트를 보면 베토벤이 들린다 권순원 _ 44
- 33. 동양화 읽는 법 조용진 _ 45
- 34. 세상의 끝에서 세상을 말하다 이충렬 외 8인 _ 46
- 35. 식탁 위의 한국사 주영하 _ 48
- 36. 엄마의 미술관 프랑수아즈 바르브 갈 _ 49
- 37. 오래된 디자인 박현택 _ 50
- 38. 학교에서 배웠지만 잘 몰랐던 미술 이명옥 _ 51

사회 경제

- 39. 구글을 가장 잘 쓰는 직장인 되기 우병현 _ 52
- 40. 끌리는 사람은 분명 따로 있다 임무경 _ 54
- 41. 내일을 위한 경제학 참사회경제교육연구소 _ 55
- 42. 당신이 알던 모든 경계가 사라진다 조용호 _ 56
- 43. 도시기획자들 천호균 외 7인 _ 57
- 44. 부품사회 피터 카펠리 _ 58
- 45.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알렉산더 그린 _ 59
- 46. (에릭 슈미트) 새로운 디지털 시대 에릭 슈미트, 제러드 코언 _ 60
- 47. 세상물정의 사회학 노명우 _ 61
- 48. 승자의 안목 김봉국 _ 62
- 49. 에네르기 팡 박동곤 _ 63
- 50. 융합하라! 붐 로드, 레이 벨레즈 _ 64
- 51. 진심진력 박중평 _ 65

자연 과학

- 52. 과학의 민중사 클리퍼드 코너 _ 66
- 53. 깃털 소어 핸슨 _ 67
- 54. 꼬리 치는 당신 권혁웅 _ 68
- 55. 나무가 청춘이다 고주환 _ 70
- 56. 달팽이 더듬이 위에서 티격태격, 와우각상쟁 권오길 _ 71
- 57. 물총새는 왜 모래밭에 그림을 그릴까 우용태 _ 72
- 58. 사이언스 소물리에 강석기 _ 73
- 59. 욕망의 곤충학 길버트 월드바우어 _ 74
- 60. 자연에는 이야기가 있다 조홍섭 _ 76
- 61. 잡스가 워즈워드의 시를 읽는 이유는 조숙경 _ 78

기술 과학

- 62. | 꿀꺽, 한 입의 과학 메리 로치 _ 79
- 63. | 로봇 다빈치, 꿈을 설계하다 데니스 홍 _ 80
- 64. | (소리 없는 살인자, 고혈압·고혈당·고지혈증 잡는) 식사순서혁명
가지야마 시즈오, 이마이 사에코 _ 81
- 65. | 쓰레기, 문명의 그림자 카트린 드 실기 _ 82
- 66. | 씨앗 혁명 시카이 노부오 _ 83
- 67. | 아빠를 키우는 아이 박찬희 _ 84
- 68. | 엄마도 힘들어 문경보 _ 86
- 69. | 요리를 욕망하다 마이클 폴란 _ 87
- 70. | 포크를 생각하다 비 윌슨 _ 88
- 71. | 하이라인 스토리 조슈아 데이비드, 로버트 해먼드 _ 89

자기 계발

- 72. | 길 끝에서 길 찾기 이효정 _ 90
- 73. | 미친 발상법 김광희 _ 91
- 74. | 설득을 이기는 설명의 힘 리 레피버 _ 92
- 75. | 원씽 게리 켈러, 제이 파파산 _ 93
- 76. | (김병완의) 초의식 독서법 김병완 _ 94
- 77. | 최고의 공부 켄 베인 _ 95

그 외

- 78. | (빅스톤갭의) 작은 책방 웬디 웰치 _ 96
- 79. | 명사들의 졸업사 버락 오바마 외 13인 _ 97
- 80. | 방언정담 한성우 _ 98

- 부록 |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목록 _ 99
- 색인 | 서명 찾아보기 _ 102
- | 저자 찾아보기 _ 104

2014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가 추천하는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일러두기

-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추천도서'와 《내일신문》의 '사서가 추천하는 오늘의 책'에 실린 서평 도서를 수록하였습니다.
- 2013년 10월, 2014년 3월과 6월에 디브리리 블로그(<http://blog.naver.com/dlibrary1004>)의 '사서들이 권하는 책'에서 진행한 댓글 이벤트 우수 감상평을 골라 닉네임(아이디)와 함께 실었습니다.
- 문학 | 역사 · 철학 | 예술 · 문화 | 사회 · 경제 | 자연 · 과학 | 기술 · 과학 | 자기계발 등 주제 분야별로 나눈 후, 서명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습니다. 도서의 표지 아래에 저자명 | 발행처 | 발행연을 소개하고 추천자의 추천 글 | 저자 소개 |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을 3권씩 수록하였습니다.

* 2008-2014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www.nl.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14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은 수록된 이미지를 제외하고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은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 허락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http://www.kogil.or.kr/>

건축가, 빵집에서 온 편지를 받다

01

<<<<<<<

‘건축가’와 ‘빵집’이라는 단어의 조합이 다소 생소하다. 그래서 더 흥미가 일기도 한다. 이 책은 세계적인 건축가와 작은 시골의 빵집 주인이 편지로 나눈 건축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명한 건축가 나카무라 요시후미는 어느 날 홋카이도의 빵집 주인 진 도모노리에게 가족끼리 운영하는 소박한 빵집인 ‘블랑제리 진’을 새롭게 짓고 싶다는 편지를 받게 된다. 진실한 편지에 감동한 나카무라 요시후미는 설계 의뢰를 흔쾌히 수락한다. 그런 두 사람 사이에 오간 2년 여 간의 편지를 읽고 있노라면, 건축의 근원적인 의미와 진정한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집 안과 밖의 모습은 물론, 거기서 생활하는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곳에는 성실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인간다운 삶이 있다고 느꼈죠. 욕심을 부려 무리하지 않고 기죽지도 않고, 자신들이 믿는 일과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해나가며 만족하는 생활이 있었고, 그 풍요로움과 존귀함을 강하게 느꼈어요.” (42쪽)

• 추천자: 박다래(국립중앙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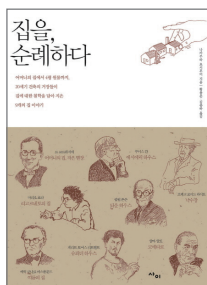
나카무라 요시후미(中村好文)

건축가. 1972년 일본의 명문사립 미술대학인 무사시노 미술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설계사무소 ‘레밍하우스’를 설립하고, 1987년 《미타니 씨의 집》으로 요시오카 상을 수상했다.

진 도모노리(神 幸紀)

건축주. 1974년에 태어났다. 홋카이도 맛카리무라에서 작은 빵집 ‘블랑제리 진’을 운영하며 아내 마리와 네 살배기 아들 고타로랑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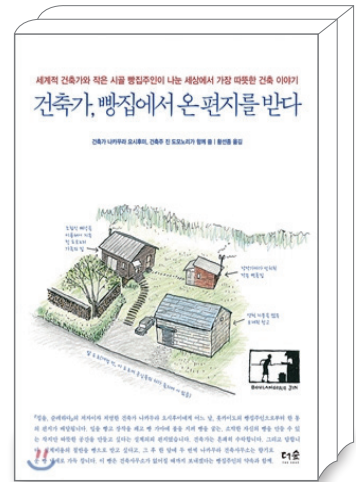
집을, 순례하다
나카무라 요시후미 | 2011



사람을 살리는 집
노은주, 임형남 | 2013



나는 마당 있는 작은 집에 산다
이현옥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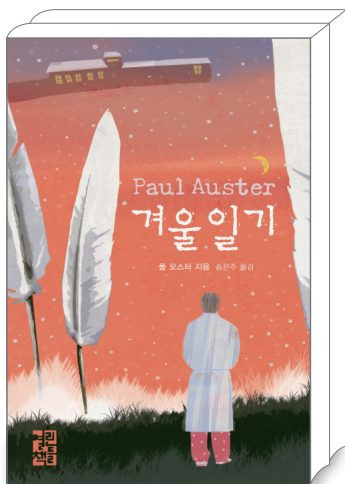
나카무라 요시후미, 진 도모노리 지음 | 황선중 옮김 | 더숲 | 2013

댓글

제가 좋아하는 건축과 빵이 소재여서 더욱 이끌렸나 봅니다. 유명한 건축가와 홋카이도 작은 시골의 빵집 주인이 편지로 나눈 따뜻한 건축 이야기인데요, 빵집을 의뢰하고, 설계하고, 마무리하기까지 사진과 일러스트로 그 과정을 엿볼 수 있어 재미있었습니다. 읽는 내내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고, 실제 그들이 나눈 손편지를 보고 있으면 고소한 빵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았어요. 막 구운 따끈하고 고소한 빵 같은 책입니다.

푸우푸우(pooh5****)

겨울 일기



폴 오스터 지음 | 송은주 옮김 | 열린책들 | 2014

이 책은 문학적 기교와 심오한 지성으로 현대 미국 작가 가운데 ‘떠오르는 미국의 별’이라 불리는 폴 오스터가 자신의 삶을 심도 있게 통찰한 소설이다.

작가의 지난 육십 여 년의 삶에 누적된 감각적 경험, 죽음에 관한 단상을 담담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육체의 감각에 영향을 미친 쾌감과 고통에 대한 사건들을 나열하며, 기나긴 성적 탐험의 역사부터 아픈 가족 사까지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다.

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 인생의 겨울은 누구나 거쳐야 할 과정이다. “당신은 인생의 겨울로 들어섰다.”라는 소설의 마지막 문장처럼 예순 넷으로 인생의 겨울을 맞은 작가가 지나온 삶을 회고하는 모습을 통해, 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도 돌아볼 수 있는 책이다.

“신얼굴 살에 나는 늙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일흔네 살이 되니 그때보다 훨씬 젊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군요.” (36쪽)

• 추천자: 윤영조(국립중앙도서관 사서)

폴 오스터(Paul Auster)

1947년 뉴저지 출생. 독특한 소재의 이야기에 팽팽한 긴장이 느껴지는 현장감과 은은한 감동을 가미시키는 천부적 재능의 작가다. 그의 작품들은 현재 20여 개국에서 번역 출간되어 호평을 받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달의 궁전』, 『뉴욕 3부작』, 『선셋 파크』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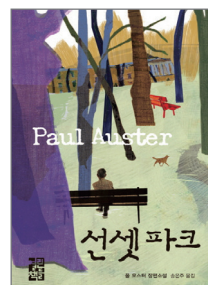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디어 라이프
앨리스 먼로 | 2013



봄에 나는 없었다
애거서 크리스티 | 2014



선셋 파크
폴 오스터 | 2013

내일

전 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 기욤 뮈소가 신작을 발표했다. 『내일』은 작가 특유의 감성을 담은 스릴러물로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타임슬립을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하버드대 철학 교수인 매튜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다. 방황의 나날을 보내던 그는 우연히 버룩시장에서 중고 노트북을 구입하고, 이를 계기로 노트북의 주인이었던 유명한 와인 감별사 엠마와 메일을 주고받는다. 하지만 놀랍게도 1년이라는 시간간격을 초월해 채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작가의 빠른 전개력과 흡입력 있는 문체는 눈을 뗄 수 없는 재미와 스릴을 선사한다. 한 편의 영화 같은 소설을 읽고 싶은 독자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인생에는 환상이 필요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진실이라고 여겨지는 거짓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224쪽)

• 추천자: 윤영조(국립중앙도서관 사서)

기욤 뮈소(Guillaume Musso)

1974년 프랑스 앙티브에서 태어났다. 니스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몽펠리에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한 후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집필 활동을 시작했다. 첫 소설 『스키다마르크』에 이어 2004년 두 번째 소설 『그 후에』를 출간하며 프랑스 문단에 일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구해줘』,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찾아 돌아오다』, 『당신 없는 나는?』, 『종이 여자』, 『천사의 부름』, 『7년 후』까지 연이어 프랑스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며 밀리언셀러 작가로 자리 잡았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환영의 방정식
히가시노 게이고 | 2014



7년 후
기욤 뮈소 | 2012



종이 여자
기욤 뮈소 | 2010



기욤 뮈소 지음 | 양영란 옮김 |
밝은세상 | 2013

덧글

기욤 뮈소 소설들은 다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작품이 하나같이 흥미 있었기에 이번에도 기대를 잔뜩 하고 읽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명목 하에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보게 되었네요. 타임슬립을 주제로 하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더 흥미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우데호(star****)

당신의 출근길은 행복한가요?



김희정 지음 | 소담출판사 | 2013

스티브 잡스가 남긴 말 중에 “아침이 기다려지는 일을 찾으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 책에는 매일 아침 아름다운 출근을 하는 여성 13명의 이야기가 있다. 이탈리아 식당 오너, 우리 떡 연구가, 일러스트레이터, 소설가, 여행 작가, 패션 스타일리스트 등이 그들이다. 그녀들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유명인은 아니지만 일로써 자신만의 철학을 구현해냈다는 점, 또 자신에게 가장 맞는 일을 찾고 그 일에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라 꿈만 꾸는 당신, 이직 혹은 뒤늦은 도전 앞에서 망설이는 당신, 매일 아침 사표를 품고 출근하는 당신에게 권하는 이야기이다.

“원하는 일에 대한 절실함과 몰입만이 답이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 몰입할 대상을 찾는 일일 것이다.” (67쪽)

• 추천자: 이수경(국립중앙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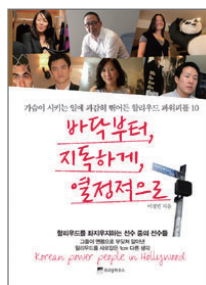
김희정

서울예술대학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하고 영화 기획자와 자유 기고가로 활동했다. 열정이 끓어오르던 스무 살 시절 김희정은 ‘내 일’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품고 살았고, 이십 대 후반이 지나면서도 그 고민은 끊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고민을 품고 살아가는 청춘들을 위해 저자는 이 책을 썼다. 동숭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동화와 그림책 만들기라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카페놀이』, 『느리게 성공하기』, 『내 아이가 행복해지는 가족여행 39』, 『여행하며 자란 아이가 큰 사람이 된다』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이미 년, 위대한 생존자
권용철 | 2013



바닥부터, 지독하게,
열정적으로
이경민 | 2012



세상을 바꾸는 천개의 직업
박원순 | 2011

도서 대출 중

철학자 이경신이 평촌시립도서관을 드나들며 엮어낸 도서 대출기. ‘서가를 비우고 세상을 채우는 동네 도서관 나들이’라는 부제처럼, 저자는 책에 대한 소유욕을 버리고 근처 도서관을 자신의 서재로 이용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문명과 자연의 조화’, ‘바람직한 일상을 꾸리는 길’, ‘늙고 병들고 죽어갈지라도’의 세 주제를 통해 도서관 책 읽기를 보여주는데, 소개된 책에 대한 정보와 미처 알지 못했던 좋은 책을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또한 자연과 함께 하는 삶, 일상의 가치, 아름답게 나이 들어 죽음을 맞는 법 등에 대한 저자의 통찰도 엿볼 수 있다. 이 책의 저자처럼 나만의 도서 대출기를 엮을 도서관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돈을 벌든 못 벌든,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 일이 나를 만들어간다.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즐거워하든, 괴로워하든, 희망에 부풀든, 절망에 빠지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일은 내 자아를 변화시킨다.” (165쪽)

• 추천자: 조수민(前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이경신 지음 | 이매진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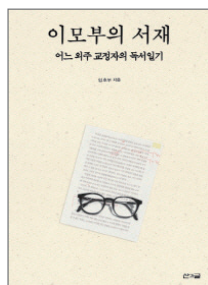
이경신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학사와 서양철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프랑스 폴발레리 대학교에서 D. E. A. 학위(근현대철학 전공)를 받았다. 청소년을 위한 철학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며 가르치다가, 지금은 프랑스를 오가며 좋은 삶의 관점에서 바라본 좋은 죽음을 연구하고 있다. 또 여성주의 인터넷 저널 《일다》에서 ‘죽음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늙음과 죽음에 관한 사색을 나누고 있다. 옮긴 책으로 『니체와 철학』(2001) 등이 있고, 지은 책으로는 『철학하는 일상』(2010)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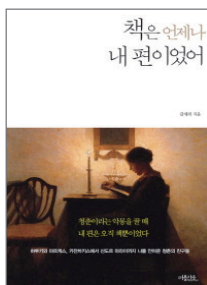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야밤산책
리듬 | 2013



이모부의 서재
임호부 | 2013



책은 언제나 내 편이었어
김애리 | 2013

덧글

도서대출증을 오랜만에 보니 반갑네요. 도서대출증을 다시 쓰게 된다면 책을 자주 자주 빌려서 빨리빨리 바꾸고 싶어요.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읽은 책을 만약 다 자신의 서재에 넣는다면 너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을 소유하는 것도 좋지만, 도서관을 내 서재로 생각하고 도서관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책 속 한 문장도 인상 깊고, 공감 이 가네요.

힘을내자(worl****)

도시와 나



성석제 외 6인 지음 | 바람 | 2013

상상하는 재미로 읽는 여행 책이 등장했다. 성석제, 윤고은, 서진 등 7명의 작가가 외국의 낯선 도시를 배경으로 한 단편 소설집을 출판했다. 각각의 이야기들은 프랑스의 아비뇽, 미국의 뉴욕, 일본의 도쿄, 스페인의 세비아, 아프리카 튀니스 등을 배경으로 그곳에서 일어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7인의 작가는 인터뷰를 통해 여행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 책은 흔히 알고 있는 여행 에세이나 가이드북과는 다르다. 소설 방식을 도입한 것이 새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을 통해 외국의 이국적 풍경을 예상하고, 여행지의 정보를 얻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한다.

“지나온 삶에서, 우연히 다가온 따뜻하고 빛나는 시간들은 언제나 너무 짧았고 그 뒤에 스미는 한기는 한층 견디기 어려웠다. 그랬다 해도, 지금 이순간의 따뜻함을 하찮게 여기고 싶지 않다.” (119쪽)

• 추천자: 고정주(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성석제

1960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소설집 『그곳에는 어처구니들이 산다』를 간행하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소설집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 4.5초』, 『재미나는 인생』, 『번쩍하는 황홀한 순간』,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적이다』 등이, 장편소설로 『아름다운 날들』, 『도망자 이치도』, 『인간의 힘』, 『위풍당당』 등이 있다. 산문집으로 『즐겁게 춤을 추다가』, 『소풍』, 『유쾌한 발견』, 『농담하는 카메라』, 『칼과 황홀』 등을 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댓글

일곱 편으로 나뉜진 이야기라 지루함 없이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각각 다른 도시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주제는 결국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상처 받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며 풀어 나가는 따뜻한 이야기. 아가자기하면서도 따스한 느낌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아르데미스(arong****)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이병률 | 2012



여행할 권리
김연수 | 2008



여행의 기술
알랭 드 보통 | 2011

뒤늦게 발동걸린 인생들의 이야기

07

<<<<<<<

여기 남들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 다시 출발선에 서서 두 번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 이 책은 4, 50대는 기본이고 심지어 7, 80대가 지난 뒤에도 그들이 원하는 목표에 도전하여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78세에 처음 붓을 잡고 화가가 된 그랜마 모세스, 아흔 살의 오케스트라 지휘자 아사히나 다카시, 80살에 그리스어 공부에 도전한 카토 등…….

이 글의 저자 역시 지긋한 중년의 나이를 넘기면서 ‘새로운 꿈을 꾸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며 이 책을 엮었다고 고백한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는 이 시대에 뒤늦게 발동 걸린 인생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나이든다’는 것에 대해, 나아가 ‘일과 직장’, ‘꿈 있는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를 권한다.

“우리를 틀에 가두는 것은 신체가 아니라, 신체가 한계를 지닌다고 믿는 우리들의 사고방식이다. (중략) 사회적인 시계에 맞춰져 있는 당신 인생의 시계를 벗어던져라. 그 틀에 맞춘 인생을 뛰어 넘어라.” (100쪽)

• 추천자: 박다래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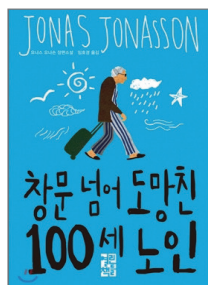
김덕영

1965년 서울 출생, 서강대학교 철학과와 동대학원에서 서양철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다큐멘터리 프로듀서와 여행 작가, 저널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유레일 루트 디자인』, 『세상은 모두 다큐멘터리였다』, 『그리스의 시간을 걷다』가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부모와 다르다
강창희 | 2013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요나스 요나손 | 2013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칼 필레머 |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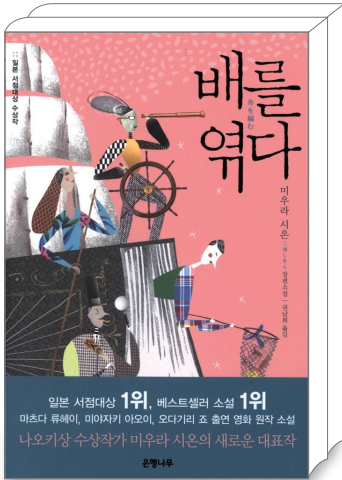
김덕영 지음 | 다큐스토리 | 2013

덧글

삼십 대 후반에 접어드니 젊은 날의 내 인생은 어떠했나 뒤돌아보게 되더군요. 60대에 들어서면 그때도 지금의 나를 뒤돌아보겠지요. 하루하루 후회 없이 살아야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이들 키우느라 제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지금이 서글프네요. 자격증도 몇 개 뒀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아요. 또 있을 기대에 찬 미래를 위해 저에게 더 투자해야겠습니다. 저도 뒤늦게 발동걸리겠지요?

쁘띠이니(ban****)

배를 엮다



미우라 시온 지음 | 권남희 옮김 |
은행나무 | 2013

2012년 일본 서점 대상 1위를 차지한 미우라 시온의 장편소설로, 한 출판사의 사전 편집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려낸 작품이다. 사전의 출판 과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편집자들의 열정을 다양한 에피소드와 감성적인 문체로 담아냈다. 15년 만에 만들어지는 종이 사전의 제작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점점 사라져 가는 장인 정신과 아날로그적 가치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함부로 사용되고 버려져 혼돈스러운 ‘말’의 바다에서 표류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사전’이라는 배의 소중함. 아울러 어떤 목표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만약 사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드넓고 망막한 바다를 앞에 두고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을 거야.” (36쪽)

• 추천자: 조수민(前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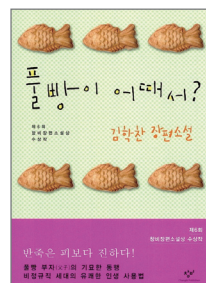
미우라 시온(三浦しをん)

1976년 도쿄에서 출생하였고 와세다대학교 제1문학부 연극영상학과를 졸업했다. 취직을 위해 시험을 본 출판사 하야카와쇼보의 편집자로부터 권유 받아 글을 쓰기 시작했다. 약 20개 회사 면접에서 전부 떨어진 자신의 구직 활동을 바탕으로 3개월 만에 쓴 소설 『격투하는 사람에게 동그라미를』로 데뷔했다. 2006년에 『마호로 역 다다 심부름집』으로 나오키상을, 2012년 『배를 엮다』로 서점대상을 수상했다. 그 외 작품으로 『검은 빛』, 『고구레빌라 연애소동』,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가무사리 숲의 느긋한 나날』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이상문학상 작품집
김애란 외 | 2013



플빵이 어때서?
김학찬 | 2013



가무사리 숲의 느긋한 나날
미우라 시온 | 2012

소금

저자가 등단 40주년에 펴낸 40번째 장편소설. 자본의 폭력성을 다룬 3부작 중 『나의 손은 말굽으로 변하고』와 『비즈니스』에 이은 마지막 작품이다. 거대한 자본이 지배하는 시대의 아버지들을 ‘소금’에 빗대어 얘기한다.

뒤늦게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깨닫고 후회와 용서로 결론짓는, 부정 父情을 다룬 여타의 전형적인 책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소금』 속 아버지는 가족을 버리고 가축을 감행한 후 자아를 찾아 나선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점차 해체되어 간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는 자본의 세계에서 한평생 짓눌린 아버지들의 구부정한 뒷모습을 떠올리게 만드는 책이다.

“젊은이들이 화려한 문화의 중심에서 만 원씩 하는 커피를 마실 때, 늙은 아버지들은 천단을 등진 변두리 어두컴컴한 작업장 뒤편에서 인스턴트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들고 있는 게 우리네 풍경이었다.” (81쪽)

• 추천자: 조수민(前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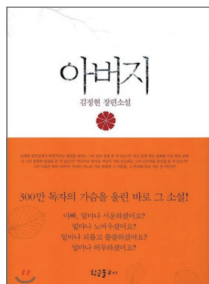


박범신 지음 | 한겨레출판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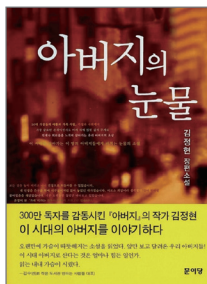
박범신

충남 논산 출생으로 원광대학교 국문학과 및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7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여름의 잔해〉가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토끼와 잠수함』, 『흰 소가 끄는 수레』, 장편소설 『죽음보다 깊은 잠』, 『풀잎처럼 눕다』, 『불의 나라』, 『더러운 책상』, 『나마스떼』, 『출라체』, 『은교』, 『나의 손은 말굽으로 변하고』, 『비즈니스』 등 다수가 있다. 대한민국문학상, 김동리문학상, 만해문학상, 한무숙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상명대학교 국어교육과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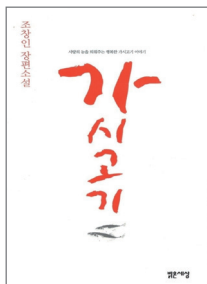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아버지
김정현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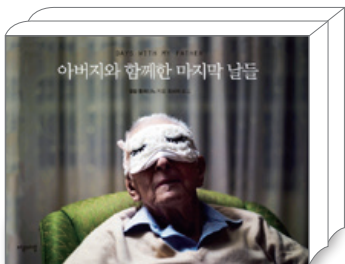


아버지의 눈물
김정현 | 2010



가시고기
조창인 | 2005

아버지와 함께한 마지막 날들



필립 톨레다노 지음 | 최세희 옮김 |
저공비행 | 2013

이 책은 단기 기억 능력을 상실해 기억을 자주 잃어버리는 아흔일곱의 치매성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보낸 지난 삼 년간의 일상을 압축해 기록해 놓은 책이다. 미국의 젊은 사진작가 ‘필립 톨레다노’의 일기 형식의 고백인데, 책의 반을 차지하는 아버지의 사진에서는 인생의 슬픔과 기쁨, 고통과 환희 등의 다양한 표정들로 담겨져 있다. 먼저 고인이 된 어머니에 대한 애뜻함과 사랑, 아버지의 마지막 일상을 함께하며 죽음을 바라보는 아들의 시선에서 깊은 애정이 담담하면서도 뭉클하게 포착되는 작품이다. 아버지에 대한 작가의 진정한 마음이 느껴지며 노년의 존중 받는 생과 함께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지난 삼 년의 시간이 내겐 행운이었다. 말하지 못한 채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 같은 건 하나도 없다. 그 시간 동안 서로 바닥까지 다 보여주면서도 한 점 후회나 동요 없이 우리는 사랑했다. 당신의 자식이 이룬 것에 대해 아버지가 자부심을 느끼셨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아버지가 얼마나 재미있는 분인지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 (88쪽)

• 추천자: 이수경(국립중앙도서관 사서)

필립 톨레다노(Phillip Toleda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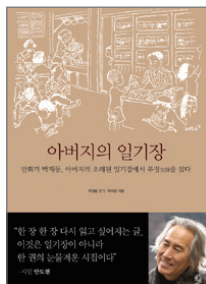
뉴욕에서 활동 중인 사진작가. 1968년 런던 태생으로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후, 뉴욕에서 십년 간 광고 아트디렉터로 일했다. 2001년 오랜 열정의 근원인 사진으로 돌아온 뒤, 예술 사진과 상업 사진을 넘나들며 포토그래퍼로 명성을 얻었다. 저서로는 사진집 『파산(Bankrupt)』, 『아버지와 함께한 마지막 날들(Days With My Father)』, 『아름다움의 새로운 유형(A New Kind Of Beauty)』 등이 있다.

댓글

사랑하는 아버지 모습을 담담하게 담아낸 책이었습니다. 길지 않은 책이지만 가볍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죽음은 맞이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무겁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네요.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출랑필랑그녀(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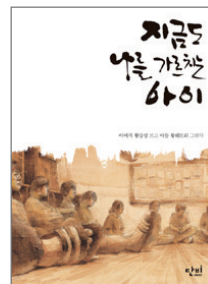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아버지의 일기장
박일호 | 2013



우리 얼마나 함께
마중기 | 2013



지금도 나를 가르치는 아이
황금성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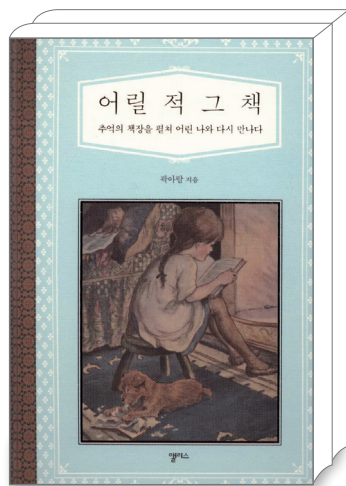
어릴 적 그 책

어릴 적 그 책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30대 중반이 된 저자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책들을 되찾아가며 기록한 내용을 에세이에 담았다.

저자는 유년 시절을 함께한 추억의 책 모으기를 시작한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새로운 취미다. 그녀는 그렇게 만나게 된 책 『폴리에나의 기쁨 놀이』를 읽으며 긍정의 힘을 배우고, 『추위를 싫어하는 펭귄』을 읽으며 남들과 다르다는 것에 위안을 얻었다고 고백한다. 한 작가는 자신의 글쓰기 근간이 유년 시절 독서력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현재를 알기 위해 과거의 책을 추적하는 저자의 모습을 보며, 온전한 나를 찾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 다시 읽기는 내게 유년의 기억을 꼬집어내는 작업. 지금까지의 삶을 점검하는 행위다. 유년은 쉽게 죽지 않는다. 인간은 인생의 어떤 고비에서 다시 '한 살배기'가 된다." (177쪽)

• 추천자: 박다래(국립중앙도서관 사서)



곽아람 지음 | 아트북스 | 2013

곽아람

1979년 부산에서 태어나 경남 진주에서 자랐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과 미술사 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조선일보》 문화부 미술 담당 기자로 일하며, 작가들을 인터뷰하고, 전시회와 미술시장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그림이 그녀에게』, 『모든 기다림의 순간, 나는 책을 읽는다』가 있다.

덧글

전 아직도 가끔 우울할 때면 어렸을 때 좋아했던 동화책을 읽곤 해요. 물론 그 책들은 이미 없어져서 새로 산 걸로요. 어렸을 때 좋아하던 동화를 읽으면 지금은 잡을 수 없는 반짝반짝거리는 뭔가를 희미하게나마 다시 보는 듯한 설레임이 가득해지거든요. 몇몇 책은 도저히 제목도 기억이 안나고 일부 내용들만 살짝 기억나서 살면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암튼 "유년은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말 공감됩니다.

스너프킨(sole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어린 왕자와 길을 걷다
오소희 | 2013



리리딩
퍼트리샤 마이어 스펙스 | 2013



책인시공
정수복 | 2013



가무사라응원단 지음 | 이정환 옮김 |
위즈덤하우스 | 2013

우리의 직업은 인생 응원단

진심을 울리는 응원의 힘

우리는 응원과 친숙하다. 학창시절 체육대회부터 월드컵 축구 경기까지. 가끔은 시험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스스로를 격려한다. 그런데 이런 보통 방식과 달리 응원이 직업인 사람들이 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일본의 '가무사라응원단'이다. 세계에서 하나뿐인 이 응원단이 응원하는 대상은 흥미롭게도 '인생'이다.

I 뜨거운 응원이 낳는 기적!

'가무사라(我武者羅)'란 '앞뒤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전한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열혈 응원단이다. 이들은 고객이 의뢰하는 곳이라면 결혼식, 학교 졸업식, 스포츠 대회, 기업의 단합대회 등 어디든 달려간다. 응원을 의뢰하는 사람도 다양하다.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 아버지가, 홀어머니를 위해 어린 딸들이, 졸업식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이 신청하기도 한다.

응원단은 '기합과 진심을 담은 응원으로 전 세계를 뜨겁게 한다.'는 목표로 응원에 임한다. 응원복도 독특하다. 올백 머리에 검은색 교복을 입는다. 이들은 여느 사람처럼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중, 꿈과 보람을 찾아 2007년에 응원단을 결성했다. 그 사연도 다채롭다.

응원단장 무토는 고등학생 시절 교내 응원단에 지원했다가 2주 만에 도망치고 37년을 이어오던 응원단은 더 이상 신입 입단자가 없어 문을 닫는다. 그 일은 무토에게 평생의 후회로 남게 되고 그는 응원이야말로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 응원단은 그동안 일본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연간 100회 이상 응원을 했다. 이들은 상업적, 기계적인 응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생을 진심으로 울리는 응원을 하고 있다.

I 자신의 진심과 맞서다

인생응원단은 매번 새로운 사연의 의뢰자를 만난다. 그 중 오해로 인해 떨어진 부자父子의 이야기가 있다. 아버지는 아들의 결혼식에서 응원을 요청한다. 아버지는 아들 부부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직접 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만 마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다. 응원단은 아버지에게 응원에 참가하여 아들에게 직접 마음을 전하기를 요청한다.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서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응원이란 형식이나 멋, 퍼포먼스가 아니라 자신의 진심과 맞서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느낄 수 있다. 최고의 응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며 나의 인생의 장애와 맞설 수 있음을. 응원의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이었다. 이 책은 자신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응원단은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닫게 한다. 또한 넘어진 자들이 다시금 인생을 해쳐 나가도록 ‘파이팅!’을 외치게 해주는 책이다.

“모든 응원은 ‘응원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의뢰인의 뜨거운 열정에서 시작된다. 열정은 열정에 반응하고 주위에 전파된다. 그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뜨겁게 달구어지고 그 열정은 기적 같은 순간을 낳는다.” (24쪽)

• 추천자: 조수민(前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가무사라응원단(我武者羅應援團)

‘기합과 진심을 담은 응원으로 전 세계를 뜨겁게 한다’는 것을 목표로 사람들의 인생을 응원하는 세계 유일의 프로 응원단이다. 2007년에 결성된 이래 졸업식, 결혼식, 기업, 학교 등에서 응원과 응원 공연을 펼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으며 프랑스, 뉴질랜드, 독일에서의 해외 응원 및 유명 음악 프로그램인 〈NHK 홍백가합전〉을 비롯해 각종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응원단이 되기 전 지극히 평범한 사회인이었던 이들은, 바쁜 일상에 쫓기는 나날 속에서 허무함을 느꼈다고 한다. 해야 할 일은 많았지만, 하고 싶은 일은 없는 현실 속에서 보람을 느끼며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고. 고등학교 때 응원단 생활을 포기했던 것을 후회하던 중 ‘지금까지 보람을 느끼고 싶다고 불평만 늘어놓았을 뿐,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되었다. 많은 고민 끝에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믿어보기로 하고 스물아홉 살이 되던 해 ‘가무사라응원단’을 결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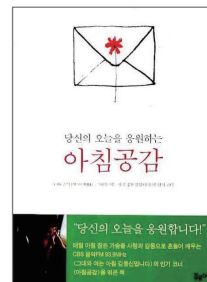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공지영 |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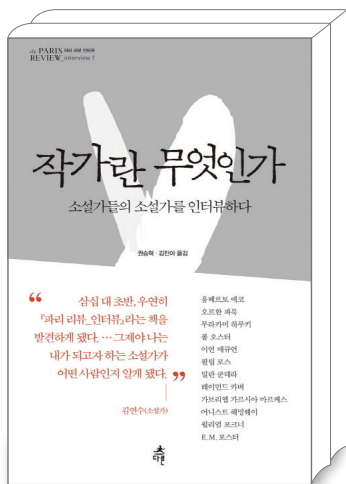


오늘, 수고했어요
이수동 | 2013



(당신의 오늘을 응원하는)
아침공감
〈그대아침〉 제작진 역임 | 2008

작가란 무엇인가



파리 리뷰 지음 | 권승혁, 김진아 옮김 | 다른 | 2014

세기의 작가들을 한 곳에서 만나다

뉴욕에서 출간 되는 《파리 리뷰》는 1953년 창간된 이후 60년간 노벨문학상, 풀리처상, 부커상 등을 수상한, 세계적 대가의 반열에 오른 작가들의 인터뷰를 실어왔다.

작가 김연수는 신인 시절 두어 권의 책을 펴내고 자신의 재능이 모두 타버리고 난 뒤의 그을음을 보며 힘들어하던 때에 우연히 《파리 리뷰》를 보게 됐고, 열광했던 작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되고자 했던 소설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다고 한다. 오르한 파묵 또한 글쓰기에 대한 신념에 의문이 들 때마다 《파리 리뷰》의 인터뷰를 읽었고, 다른 작가들의 진정한 이야기가 자신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말했다.

이 책은 문학 초심자뿐 아니라 전 세계 유수의 작가들에게도 진정한 멘토가 된 《파리 리뷰》의 인터뷰 중, 국내 문예창작학과 학생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 한 작가 12인의 이야기를 묶었다.

I 인터뷰를 통해 만나는 작가들의 삶

작가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글쓰기 방식과 신념을 가지고 있다. 윌리엄 포크너는 좋은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 99퍼센트의 재능, 99퍼센트의 훈련, 99퍼센트의 작업이 필요하며, 이미 쓴 소설에 결코 만족해선 안 된다고 했다. “언제나 꿈을 꾸어야 하고,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높은 목표를 세워야 한다. 다른 작가들보다 더 낮기 위해 괴로워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 자신보다 더 나으려고 애써야 한다.” 그는 모든 작가가 자신이 꿈꾸는 완벽함에 필적할 순 없지만, 그 불가능에 얼마나 멋지게 실패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한다.

필립 로스는 새 작품의 첫 부분을 쓰기 위해 작품의 중심이 될 ‘무엇’을 여러 달 동안 모색한다. 그는 생생한 한 단락을 쓰기 위해 종종 100쪽 이상을 쓰기도 하고, 처음 6개월 동안 쓴 것들 중 새로운 소설의 첫 쪽을 구상하기도 한다.

헤밍웨이는 글을 쓰는 것이 힘들 때 본인의 저서 중 자신을 응원하기 위해 쓴 책을 읽었다. 그는 “글쓰기가 항상 힘들고 종종 불가능했었다.”고 고백한다. 세계적 작가에게조차 글을 쓴다는 것은 고통스런 일이었던 셈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단지 천부적 재능이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폴 오스터 역시 “상상력이 작동하게 하려면 외로움이라는 고통이 필요하다.”라고 설파했다. 알고 보면 한 작품은 자기 절제와 극기 속에서 창작된 산물이다.

움베르토 에코는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라고 했다. 무언인가 소통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기 위해. 이를 위해 작가들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작업을 하며,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셀 수 없이 고쳐 쓴다.

I 작가의 멘토가 된 작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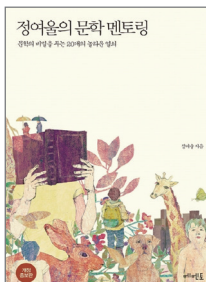
‘작가란 무엇인가’는 유명 작가의 글쓰기 방식과 작품에 대한 배경, 등장인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삶에 대한 자기 성찰과 직업관 등을 보여준다. 또한,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일상생활과 생각들을 담아내어 한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해 더 폭 넓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어 세기의 작가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책이다.

• 추천자: 고정주(국립중앙도서관 사서)

파리 리뷰(The Paris Review)

신간이나 작가 개인의 홍보를 넘어선 소설가들의 소설 기법과 글쓰기 방식, 삶에 관한 진솔한 인터뷰. 《파리 리뷰》의 작가 인터뷰는 기존 그 어떤 방식과도 달랐다. 《파리 리뷰》는 ‘작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문학 잡지’(타입)라는 격찬을 받은 뉴욕에서 출판되는 잡지이다. 1953년 창간된 이후 60년간 노벨문학상, 풀리처상, 부커상을 수상한 이미 더는 유명해질 수 없을 만큼 명성을 얻은 세계적 작가들과의 인터뷰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정여울의 문학 멘토링
정여울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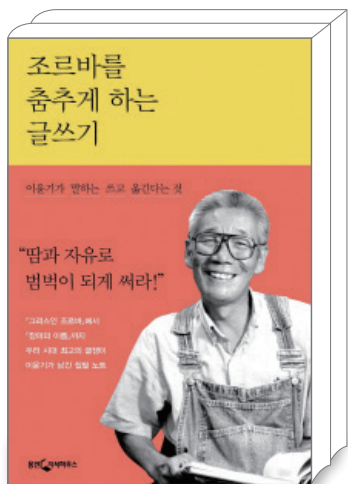


그렇게 한 편의 소설이 되었다
실리어 블루 존슨 | 2012



커튼
밀란 쿤데라 | 2012

조르바를 춤추게 하는 글쓰기



이윤기 지음 | 웅진씽크빅 | 2013

우리 시대 대표적 문장이 이윤기. 그의 딸이자 번역가 이다희가 아버지의 산문 중 번역과 글쓰기에 관한 글만을 모아서 펴낸 책이다. 조르바를 춤추게 하는 글쓰기란 과연 무엇일까? 조르바는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는 자유인을 상징한다. 그가 번역한 『그리스인 조르바』의 주인공이다. 이윤기는 ‘우리말과의 씨름’을 ‘사전과의 싸움’으로 요약하고 있다. 따라서 번역은 사전에 있는 언어로 옮기는 단순한 물리적 변화가 아니다. 말과의 씨름을 거친 화학적 변화다. 자유로이 언어를 부리며 영혼을 담아 행복한 번역, 글쓰기를 하던 그의 고민, 철학, 경험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살아있는 글쓰기에 관심이 있거나 이윤기의 문장을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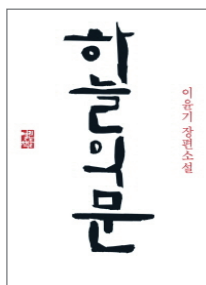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쓰기만 하면 초단은 된다. 이렇게 쉬운 것을 왜 여느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가? 유식해 보이고 싶어서 품 나는 어휘를 고르고,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제 생각을 비틀다 제 글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생각을 놓쳐버리기 때문이다.” (81~82쪽)

• 추천자: 조수민(前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이윤기

1947년 경상북도 군위에서 태어나 2010년 8월 27일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1977년 단편소설 〈하얀 헬리콥터〉로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입선하며 문단에 나왔고, 『장미의 이름』, 『푸코의 진자』, 『그리스인 조르바』, 『변신 이야기』 등을 우리말로 옮기며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번역가로 자리매김했다. 1994년 장편소설 『하늘의 문』을 출간하며 문단으로 돌아온 그는 활발한 창작 활동을 했으며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시리즈는 신화 열풍을 일으켰다. 동인문학상, 대산문학상, 한국번역가상을 수상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하늘의 문
이윤기 | 2012



위대한 침묵
이윤기 | 2011



봄날은 간다
이윤기 외 10인 | 2011

천국보다 낮선

하룻밤의 기묘하고 낮선 여행이 시작된다. 이 책은 작가 이장욱이 소설 집 『고백의 제왕』 이후 3년 만에 펴낸 두 번째 장편소설이다. 그는 소설가이기 전에 시인으로도 유명한데 그래서인지 소설 속에는 작가 특유의 감각적인 언어가 그대로 녹아있다.

김, 정, 최 세 사람은 대학동기이다. 이들은 또 다른 대학동기인 A의 부음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가는 차 안에서 하룻밤을 보낸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A와 함께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떠올리게 된다.

이 책의 제목은 1984년 김 자무쉬의 영화 〈천국보다 낮선〉에서 빌려왔다. 그래서인지 책은 영화와 다르면서도 닮아있다. 물론 작품 속 이야기는 다르지만 책과 영화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비슷하다. 작가는 책의 말미에서 “다음에는 조금 더 외롭고 뜨거운 곳으로 들어가 보겠다.”고 밝혔다. 기묘하고 낮선 여행을 거쳐, ‘외롭고 뜨거운 곳’에 놓여 있을 그의 문학과 조우해볼 것을 권해본다.



이장욱 지음 | 민음사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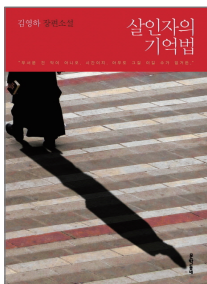
“시간은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무한하게 수렴되고 반복되며 부서지는 파동일 뿐,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를 따라 흐르는 아늑한 강물이 아니다.” (65쪽)

• 추천자: 윤영조(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이장욱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994년 《현대문학》을 통해 시로 등단했고, 2005년 장편소설 『칼로의 유쾌한 악마들』로 문학수첩작가상을 받으며 소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소설집 『고백의 제왕』과 시집 『내 잠 속의 모래산』, 『정오의 희망곡』, 『생년월일』 등이 있다. 단편소설 『곡란』으로 2011년 제1회 웹진문지문학상을 수상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살인자의 기억법
김영하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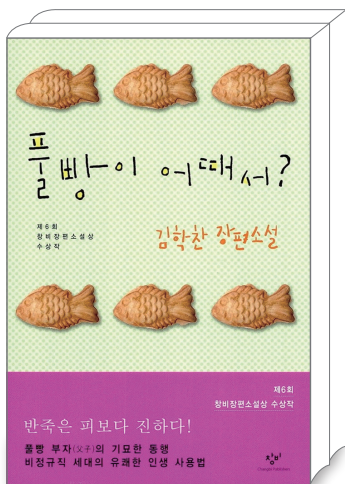


위험한 독서
김경욱 | 2008



사월의 미, 칠월의 숲
김연수 | 2013

풀빵이 어때서?



김학찬 지음 | 창비 | 2013

창비장편소설상 6회 수상작인 김학찬의 장편소설. '풀빵'이라는 소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을 그려낸 작품이다.

뜰에 박힌 획일적 삶과 성공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붕어빵'을, 아들은 '타코야끼'를 만들어 판다. 아버지는 평생 붕어빵만을 만들며 아들 역시 자신의 일을 물려받길 바라지만, 아들은 타코야끼라는 새로운 풀빵을 선택하면서 부자간의 갈등은 시작된다.

붕어빵과 타코야끼로 대변되는 세대 간의 갈등과 비정규직 세대로 대변되는 젊은이들의 고민, 한 알 한 알 각기 다른 맛을 내는 타코야끼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아들의 모습에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와 주관있는 삶의 자세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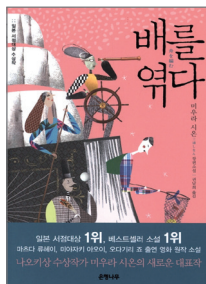
"모든 타코야끼가 같을 수 없습니다. 모든 타코야끼의 맛이 균일하다는 건 착각입니다. 한알 한알이 서로 달라서 맛있는 거지요. 타코야끼의 맛을 강제로 통일하려고 들면 하나의 맛이 죽어버리지요" (89쪽)

• 추천자: 조수민(前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김학찬

1983년 경북 고령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했고 동대학원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장편소설 『풀빵이 어때서?』로 제6회 창비장편소설상을 수상했다. 장편소설 『상금하진 않지만』이 있으며 최명희청년문학상, 전태일문학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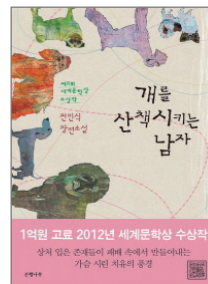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배를 엮다
미우라 시온 | 2013



나의 토익 만점 수기
심재천 | 2012



개를 산책시키는 남자
전민식 |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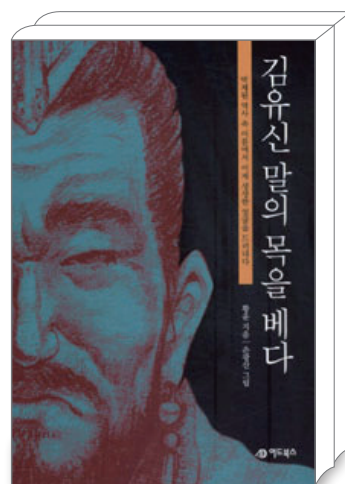
김유신 말의 목을 베다

신라의 장수 김유신에 대한 평가는 ‘삼국을 통일한 영웅’과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을 멸망시킨 장본인’이라는 상반된 견해로 나뉜다. 이를 역사 인식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남겨두더라도 그에 대한 공통점은 한 가지 존재한다. 바로 그에 대한 전기傳記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경외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중립적으로 김유신을 서술하면서, 신라만의 독특한 신분제였던 골품제의 기원, 신라와 주변국들 간 외교관계의 변화도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준다. 김유신이라는 인물과 그가 활동했던 시대를 자세하고 쉽게 풀어 이야기해줌으로써 그와 그 시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쌓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고마운 책이다.

“신라 고유 신앙에 따라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제사장이 신궁에 머물렀는데, 그녀를 당시에는 천관이라 불렀다고 한다. 실제 경주에서 천관이라 적힌 사당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화랑시절 김유신은 나라 제사장과 사랑에 빠진 것이다.” (54쪽)

• 추천자: 최혁(前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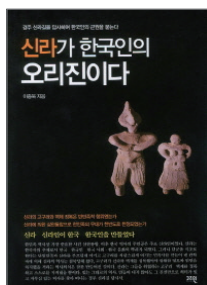


황윤 지음 | 손광산 그림 | 어드북스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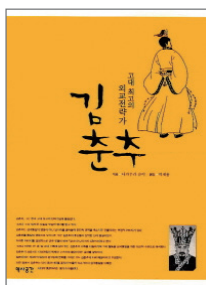
황윤

기존 출판계에서 도전하지 않는 새로운 주제를 발탁하여 독자들에게 신선함과 읽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을 글쓰기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자료를 모으는 방식을 통하여 생동감 넘치는 시대상과 역사 이야기를 구성하고자 노력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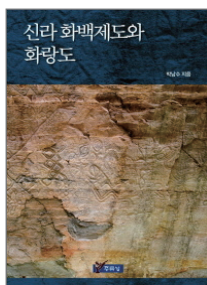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신라가 한국인의
오리진이다
이종욱 |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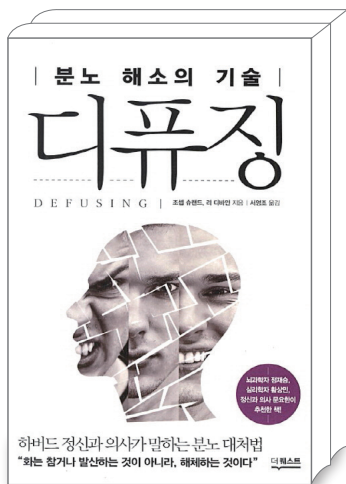


(고대 최고의 외교 전략가)
김춘추
나카무라 슈야 | 2013



신라 화백제도와 화랑도
박남수 | 2013

디퓨징



조셉 슈랜드, 리 디바인 지음 | 서영조 옮김
| 더퀘스트 | 2013

분노 해소에도 기술이 있을까. 이 책은 분노를 해쳐 나갈 효과적인 방법으로 참거나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하는 ‘디퓨징(Defusing)’을 제시한다. ‘우호적인 태도 보여주기’, ‘공감하기’, ‘명확하게 소통하기’와 같은 디퓨징 기법의 밑바탕에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들어 있다. 화를 내지 않고 살기는 어렵다. 분노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다. 분노가 나를 따라다니는 골칫거리라면 이를 해체하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화를 내고 나서 기분이 풀리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고 무거운 사람이라면 이 책을 통해 분노를 다스려 보는 것은 어떨까?

“분노를 지혜롭게 이겨내는 법을 배우면 우리 내면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다.” (28쪽)

• 추천자: 나제용(국립중앙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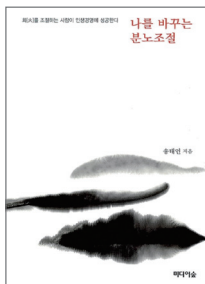
조셉 슈랜드(Joseph Aaron Shrand)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전임 강사이며 정신과 전문의이다. 맥린 병원(McLean Hospital)의 ‘아동 및 청소년 외래환자 프로그램’과 하이포인트 트리트먼트센터의 성인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의 책임자를 역임했다. 공저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Manage Your Stress)』이 있다.

리 디바인(Leigh M. Devine)

의학 전문 저널리스트로, 콜롬비아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CNN과 NHK 등을 거쳐, 의학 전문 채널인 <메디컬 뉴스 네트워크(Medical News Network)>에서 프로듀서로 일했다. 공저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Manage Your Stress)』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나를 바꾸는 분노조절
송태인 | 2013



화, 참을 수 없다면 똑똑하게
전경구 | 2012



분노는 나의 힘
아니타 팀페 | 2008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19

<<<<<<

늘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가? 사람들의 지나친 요구에도 거절을 못 하는가? 착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할 수 없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도 이 책에서 말하는 ‘좋은 사람의 함정’에 빠져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길 권한다.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는 자기주장에 어려움을 겪는 ‘지나치게 좋은’ 사람들의 변화를 돕는 지침서이다. 저자의 조언을 따라 변화의 여정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당당하고 우아하게 ‘No’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진정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책이다.

“인생의 모든 면에서 침착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사람이려면 누구나 조금씩은 ‘좋은 사람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고, 취약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68쪽)

• 추천자: 박설희(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재키 마슨(Jacqui Marson)

공인 상담 심리학자이다. 런던의 다양한 기관에서 상담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코벤트 가든 지역에서 개인 상담소를 운영 중이다. 전 세계를 돌며 개인이나 기업체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기술, 자신감 강화 등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한다. 잡지 《사이칼러지(Psychologies)》에서 ‘패스트 테라피(Fast Therapy)’란 칼럼을 연재했고, 현재 BBC, ITV 등 다양한 방송의 심리학 관련 프로그램에서 인기 패널로 출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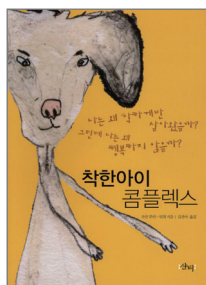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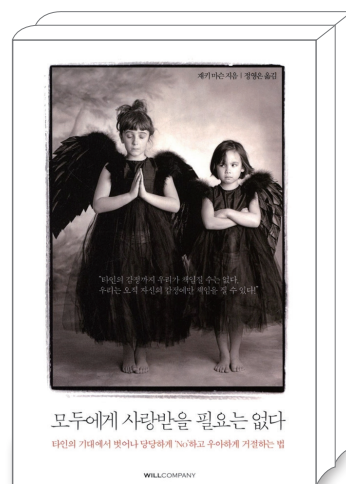
나는 왜 거절을 못하는가
마리자 만레사 | 2014



좋은사람 콤플렉스
듀크 로빈슨 | 2009



착한아이 콤플렉스
조안 루빈-뒤취 | 2005



재키 마슨 지음 | 정영은 옮김 |
Willcom(윌컴퍼니) | 2014

덧글

학교와 사회에서 착한 어린이, 착한 사람이기를 강요 받고 자란 세대에게 위안이 되는 책이다. “상대방의 감정은 나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말은 모순되는 것 같으면서도 공감가는 표현이었다.

유니안코(omada***)



휴버트 드레이퍼스, 손 켈리 지음 |
김동규 옮김 | 사월의책 | 2013

모든 것은 빛난다

미국 철학계의 두 거장이 쓴 이 책은 현대인의 삶의 불안, 무기력증, 허무에 대해 정면으로 물음을 제기한다.

저자들은 플라톤부터 니체까지 서양철학사의 흐름과 철학 이론을 전개 하면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고대의 성스럽고 빛나는 경험 세계로부터 불안하고 무기력한 세상으로 떨어졌는지 보여준다. 더불어 성스러움의 회복에 대한 해법을 초월적인 신에게 몰아버린 중세나 자율적 개인에게 맡긴 근현대를 뒤로한 채 다신多神주의에서 찾는다. 그리하여 현대를 사는 우리가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로 산다면 각자가 성스러운 존재로서 충분히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모든 것들이 빛나는 건 아니라네. 다만 빛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지." (379쪽)

• 추천자: 박윤희(국립중앙도서관 사서)

휴버트 드레이퍼스(Hubert Dreyfus)

캘리포니아 대학교 철학 교수. 미국 현대철학자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다. 현상학과 실존주의 철학 연구로 유명하며 특히, 하이에거 철학에 대한 탁월한 해석으로 '드레이데거'라는 영예로운 별칭을 얻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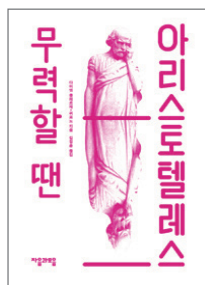
손 켈리(Sean Dorrance Kelly)

하버드 대학교 철학 교수이자 학과장. '마음, 두뇌, 행동 연구를 위한 하버드 학제간 연구회' 의장이기도 하다. 스탠퍼드와 프린스턴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고, 파리 고등사범학교(에콜노르말 쉬페리외르) 방문교수를 거쳤다. '마음' 문제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로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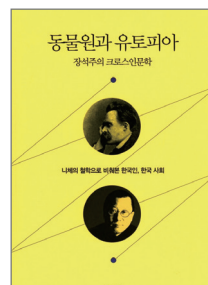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철학을 만나는 시간
샤를 페갱 | 2013



무력할 땐 아리스토텔레스
다미앵 클레르제-귀르노 | 2013



동물원과 유토피아
장석주 | 2013

설탕, 세계를 바꾸다

설탕이 세계 역사에 한 축을 그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책이다. 고대에 ‘꿀벌은 없지만 꿀을 생산하는 갈대’가 발견된 사실부터 중세와 근대를 거쳐 제국주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설탕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되었는지 알려준다. 그 과정에서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신대륙으로 끌려와 농장주들과 감독관들에게 학대를 받으며 사탕수수를 심고 수확하고 또 그것들을 공장에서 설탕으로 만들기까지의 위험한 과정을 사실적인 삽화, 사진들과 함께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책의 말미에 수록된 주석의 출처와 웹 가이드는 책을 읽고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은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며 책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다.

“젊은이든 늙은이든 모든 사람들이 일했지. 사탕수수대를 두세 자루라도 옮길 수 있으면 일하는 거야. 일요일, 월요일 뭐 다 똑같았지. 주일 없는 이교도의 땅 같았다고나 할까.” (109쪽)

• 추천자: 최혁(前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마크 애론슨(Marc Aronson)

미국의 문화사가이자 청소년 도서 전문 출판사 ‘크리켓 북스’의 편집장이다. 『도발: 아방가르드의 문화사, 몽마르트에서 사이버 컬처까지』는 미국도서관협회와 출판인협회가 추천하는 예술 분야 최고의 책에 선정되기도 했다.

마리나 부드호스(Marina Budhos)

윌리엄 패터슨 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친다. 『내게 아무것도 묻지 마』로 제임스 쿡 톨 상을 수상했다. 공저자인 마크 애론슨과 부부이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커피, 설탕, 차의 세계사
이윤섭 | 2013



설탕의 세계사
가와기타 미노루 | 2003



설탕과 권력
시드니 민츠 | 1998



마크 애론슨, 마리나 부드호스 지음 |
설배환 옮김 | 우리교육 | 2013

덧글

단순히 설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대항해의 역사. 그리고 인류의 아픈 노예의 역사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놓은 책이다. 이처럼 키워드를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흥미진진한 역사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타이거유즈 (tigery****)



이주은 지음 | 파피에 | 2013

스캔들 세계사

사람 사는 이야기로 역사를 엿보다

역사란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을 말한다. 역사는 보통 시간순으로 사건들을 기록한 게 대부분이라, 우리는 역사를 어려워하거나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스캔들 세계사』는 사건 중심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과거 사람들의 사적이고 소소한 이야기를 통해 역사를 쉽고 흥미롭게 느끼도록 한다. 저자가 포털사이트 블로그 ‘눈송눈송 역사 탐방’을 통해 연재한 이야기 중 스물두 개의 에피소드를 엮었다.

서자로 태어난 정복왕 윌리엄 1세는 청혼을 거절한 귀족 아가씨 마틸다를 폭행했다. 격노한 그녀의 아버지가 결투를 신청하기 직전, 마틸다는 윌리엄이 아니면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고집한다. 그들은 10년이 흐른 뒤, 드디어 결혼을 허락받게 된다. 윌리엄의 어떤 면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궁금하다.

I 그들의 사랑 이야기

포르투갈 왕국 페드루 1세는 자신의 사랑을 반대하는 아버지에 의해 연인이 죽임을 당하는 슬픔을 겪었다. 그러나 그는 사랑하는 연인의 시신을 왕비로 즉위시키고, 그 후 평생 결혼도 하지 않았다. 죽음조차 떼어 놓을 수 없는 사랑이 아닐 수 없다.

책은 역사 속 인물의 본 모습에 의문을 던진다. 바토리 에르제베트는 ‘피의 백작부인’, ‘처녀의 피로 목욕한 마녀’ 등 무시무시한 인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녀를 마녀로 재판한 재판관은 채무자였다. 또한 당시 여성을 무시하는 시대에 그는 죽은 남편 대신 영지를 다스리는 막대한 권력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인 마녀였을까?

영문학 사상 최고의 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실제로 초등 교육만 받고 책은 단 한 권도 소유하지 못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그 많은 놀라운 작품들을 썼는지 의문이 인다.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본 모습도 물음표다. 실제 그녀는 절약도 굉장히 많이 했다. 비싼 크리스마스 선물을 바라는 아이들에게, 밖에서 굶주리고 있을 백성들을 생각하라고 교육했다. 우리가 알고 있듯, 사치로 국고를 낭비한 사람일까? 1793년 10월, 자신의 목을 자르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단두대로 올라가면서 왕비는 실수로 사형집행인의 발을 밟았다. 그때 그 사람에게 이승에서 마지막 말을 했다. “실례했습니다, 무슈. 일부러 밟은 것은 아니었어요.”

I 결국, 그들의 사는 이야기

“역사를 이야기 형식으로 가르친다면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다.” 저자는 정글북 작가 키플링의 말에 크게 공감한다며 책 쓴 취지를 소개했다.

역사는 딱딱하고 복잡하지 않으며, 인물들도 특별하지 않다. 우리처럼 살며, 사랑하며, 권력에 집착한 이들이다. 지금 여러 사건에 휘말린 유명 인사의 이야기도 언젠가는 ‘스캔들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 삶은 곧 역사란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 추천자: 문현주(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이주는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부에 재학 중이다. 어릴 적부터 이야기와 책을 좋아했고 번역을 거치지 않은 원서로 이야기책을 읽고 싶어 영어를 공부했다. 포털 사이트에 ‘눈송눈송 역사 탐방’이라는 블로그를 통해 역사 이야기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특유의 유머러스하고 위트 있는 구어체로 풀어나간 ‘동화보다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가 차츰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이야기로 역사를 읽다보니 역사가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고 흥미가 생겼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가 되었다. 더 나은 ‘역사 이야기꾼’으로 거듭나기 위해 심층적인 역사 공부와 영문학 공부를 병행하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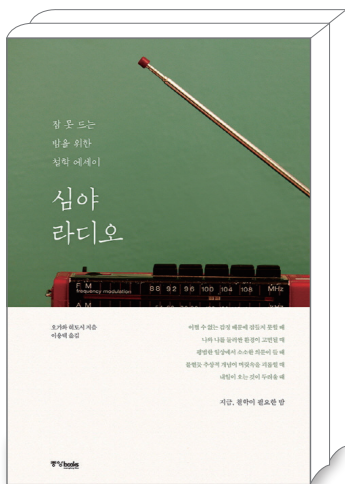
(바이킹에서 이케아까지) 50개의 키워드로 읽는 북유럽 이야기
김민주 | 2014



마이너리티 세계사
초루오카 사토시 | 2014



(날씨가 바꾼) 익사이팅 세계사
반기성 | 2013



오가와 히토시 지음 | 이윅택 옮김 | 중앙북스 | 2013

댓글

잠이 안 오는 밤, 잠의 세계로 이끌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집어든 책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철학적 이야기가 담겨 있어 작은 행복을 일깨워 준다. 고민이 있어서 잠을 못 이룰 때 읽으면 좋을 책이다.

최강귀요미(tjqmfl ***)

심야 라디오

일본의 유명 철학자로 '철학 카페'를 운영하는 등 철학의 대중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오가와 히토시가 쓴 철학 에세이집이다. 저자는 늘 수면 부족에 시달린 예전 경험을 되살려 이 책을 썼다. 그는 일상생활의 고민에 대한 해결의 출발점으로써 '철학하기'를 제안한다.

『심야 라디오』는 제목처럼 한밤의 라디오 상담 코너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40개의 고민 주제마다 원인을 분석하고 연관된 철학 이론을 소개한 뒤, '철학적 해석'을 통해 상황을 다르게 사유해 보기를 권유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니체, 아렌트, 헤겔 등 다양한 철학자들의 이론과 저서, 생애가 소개된다. 설명이 쉽고 간결하여 그 동안 철학을 어렵게 느낀 사람들도 가볍게 읽을 수 있다. 깊어가는 밤, 잠 못 드는 누군가에게 라디오 상담 코너처럼 친근한 멘토가 되어 줄만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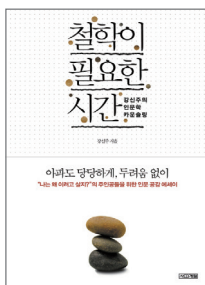
“고통을 현명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기 위한 비결입니다. 오늘 있었던 안 좋은 일과 괴로운 일들을 ‘사는 게 다 그렇지 뭐!’라며 떨쳐버리고, 사소하고 즐거운 일에 눈을 돌려보세요.” (18쪽)

• 추천자: 박설희(국립중앙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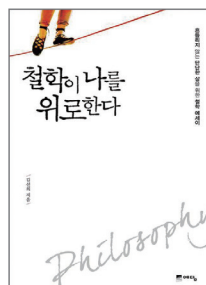
오가와 히토시(小川仁志)

1970년 일본 교토에서 태어났다.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면서 사법 시험에 도전하고 시청에 근무하며 사회인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하여 철학자가 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전문 분야는 서양 정치철학이고, 상가에서 '철학 카페'를 주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저서로는 『철학 용어 사전』, 『인생이 묻고 철학이 답하다』, 『철학의 교실』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철학이 필요한 시간
강신주 | 2011



철학이 나를 위로한다
김설희 | 2012



인생이 묻고 철학이 답하다
오가와 히토시 | 2012

역사로 남은 조선의 살인과 재판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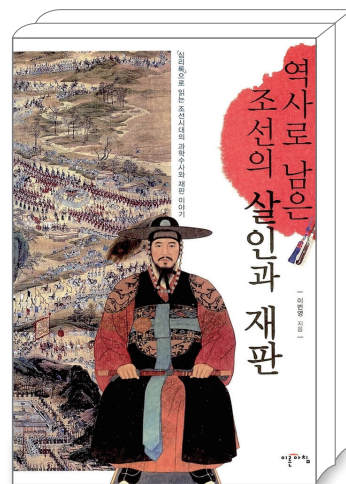
<<<<<<

첨단 기법이 없던 조선 시대에 어떻게 범인을 찾았을까. 그 답을 사수하기 위해 역사 소설가 이변영이 정조대왕의 과학수사와 재판 이야기를 책 한 권으로 소개한다.

조선 시대 공명의 법 정신으로 나라의 기강을 바르게 세운 정조대왕. 이 책은 그가 통치하던 시대에 일어난 18가지 살인 사건을 통해 정조의 판단력과 지혜, 백성을 생각하는 임금의 정신에 대하여 들여다보게 한다. 권력과 금력에 따라 각종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는 현대 사회. “범인은 반드시 밝혀내되 그 후에는 반드시 반성하게 한다.”라는 정조대왕의 판관상이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날이 아닌가 싶다.

“정조는 그의 재위 기간 동안 옥사의 치죄에 있어서 오판과 억울함이 없도록 매우 치밀하고 엄격하게 처리했다. 지방수령이나 관찰사 등이 특히 사죄 死罪에 해당하는 옥사를 잘못 조사하거나 부실하게 처리할 경우엔 가차 없이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도 죽이고 빨리 끝내버리는 쉬운 길 대신,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며 될 수 있으면 살려내고자 하는 지루하고 어려운 길을 늘 선택하곤 했다.” (196쪽)

• 추천 글: 최혁(前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이변영 지음 | 이른아침 | 2013

이변영

전북 부안 출생. 서울대학교 문리대를 졸업하고 경기고등학교 등 서울시 교직에 종사했다. 저서로 소설 『고향』, 『왜란, 소설 징비록』과 에세이 『거기에 섬이 있다』, 『신혼여행』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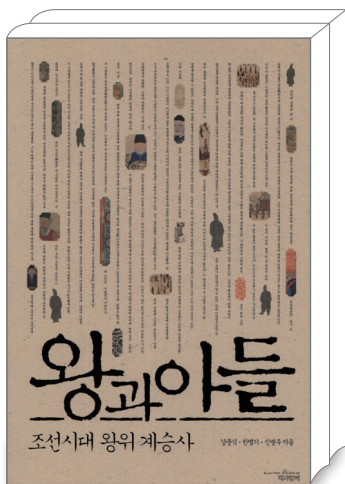
네 죄를 고하여라
심재우 | 2011



조선을 뒤흔든 21가지
재판 사건
이수광 | 2011



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살인 사건
이수광 | 2006



강문식, 한명기, 신병주 지음 | 책과함께 | 2013

왕과 아들

이 책은 세 명의 저자가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다양한 사료를 바탕으로 구성해낸 조선 시대 왕위 계승사이다. 아들이 성군이 되길 바라며 엄격하게 몰아치는 왕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과도한 기대와 책임감에 벗어나거나 스트레스를 받던 왕세자가 결국 폐위되거나 죽음을 맞는 것으로 끝난다.

왕의 자리는 장차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이라 해도 현재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면 가차 없이 죽여야 하는 비정한 자리였다. 그럼에도 동생에게 왕위를 넘긴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에 두고두고 양념을 살핀 태종이나, 손자에게 왕위를 넘겨 아들의 한을 위로한 영조 등 왕이었으나 동시에 아버지였던 다섯 왕들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만약 양녕에게 병이 있어 위급하면 반드시 나에게 알려야 한다.” (107쪽)

• 추천자: 윤수정(국립중앙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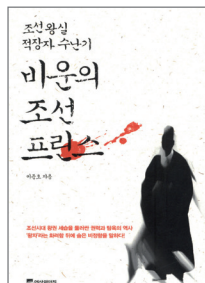
강문식, 한명기, 신병주

- 강문식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로, 저서에는 『권근의 경학사상 연구』, 『종묘와 사직』(공저)이 있다.
- 한명기 - 명지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저서에는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광해군』,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등이 있다.
- 신병주 -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저서에는 『조선평전』, 『조선을 움직인 사건들』, 『왕실 도서관 규장각에서 조선의 보물찾기』, 『고전 소설 속 역사여행』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조선의 세자로 살아가기
심재우 등 | 2013



비운의 조선 프린스
이준호 | 2013



왕이 못 된 세자들
함규진 | 2009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우리 명승기행

한경대 조경학과 김학범 교수가 전국에 있는 명승을 10년 동안 답사해 펴낸 책이다. 명승은 아름다운 경승지를 일컫는 말로 국보·보물·천연기념물과 함께 문화재로 보호받고 있으며, 다른 문화재와 달리 자연의 아름다움이 더해져 현대인들에게 휴식과 위안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이 책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명승 104곳 중 역사·문화적 의미가 깊은 명승 49곳을 5개의 장으로 나누어 생생한 시각자료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또한 고려의 충절지사 야은 길재의 올곧은 선비 정신이 묻어나는 채미정, 퇴계와 두향의 애절한 전설이 담긴 구담봉 등 명승에 얹힌 이야기를 담아 역사적인 가치에 흥미를 더한 자연유산 답사를 권하고 있다.

“가천마을의 다랑이논은 무려 100층도 더 된다. 설악산과 응봉산의 산줄기가 흘러내린 계곡을 따라 산중턱에서 바닷가까지 산비탈에 조성되어 있다. 등고선 방향으로 층층이 형성된 다랑이논의 석축은 매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태양의 각도에 따라 그림자가 달라지는 모습은 신비롭기 그지 없다.” (300쪽)

• 추천자: 박윤희(국립중앙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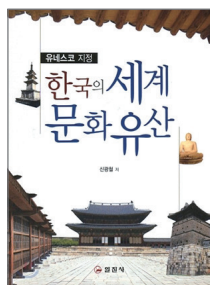


김학범 지음 | 김영사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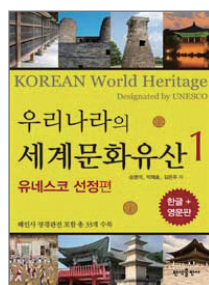
김학범

서울시립대학교 원예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조경학 석사 학위를,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농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위원장으로 있으며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표 저서로는 『마을숲』, 『문화재대관(명승)』, 『서양조경사』, 『동양 조경 문화사』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신광철 | 2011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선정편. 1
송명석 외 2인 | 2013



(지수와 함께 떠나는)
문화 유산을 찾아서
김광호 | 2013



정도전과 그의 시대



이덕일 지음 | 옥당 | 2014

댓글

애민과 다른 위민. '백성을 위한다'는 의미인가 봅니다. 백성을 하늘로 섬기는 마음가짐을 가졌다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정도전은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으려 했던 역사 속 위인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상큼달콤(worl****)

정도전의 위민사상은 유배 시절 바닥까지 떨어진 절망감 속에서 일구어졌다. 절망스러운 상황을 위로해 준 부곡민이나 농부들을 회상하는 책을 통해 그들과 나눈 삶을 읽을 수 있다. 그의 개국 플랜의 핵심은 혁명적인 토지제도와 대동사회의 실현이었다. 3년간의 노력으로 성취한 과전법은 새 왕조의 정당성 및 물질 토대가 되었다.

『정도전과 그의 시대』는 우리 사회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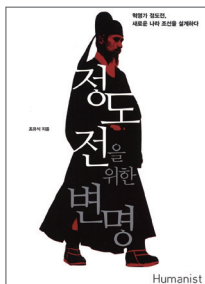
“정도전은 ‘벼슬아치가 백성에게 받는 것이 큰 만큼 자기를 기르는 백성에 대한 보답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벼슬아치가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때, 너도나도 백성을 뜯어먹을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던 때에 벼슬아치를 기르는 존재가 백성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104쪽)

• 추천자: 최수연(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이덕일

『당쟁으로 보는 조선역사』(1997)를 필두로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당대의 문제를 현재의 문제로 전환시키고, 한 개인의 삶을 통해 한 시대를 바라보는 서술 방식으로 인간과 시대가 함께 살아 숨쉬는 역사서 서술을 지향해 왔다. 저서로는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 『조선 왕 독살 사건』, 『조선 왕을 말하다』, 『윤휴와 침묵의 제국』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정도전을 위한 변명
조유식 | 2014



혁명, 1-2
김탁환 | 2014



퍼펙트 조선왕조, 1-2
이준구, 강호성 | 2014

조선의 명탐정들

추리소설 못지않은 역사책이 등장했다. 『조선의 명탐정들』은 조선 시대에 미궁에 빠지거나 범인이 뒤바뀔 뻔했던 사건들의 진범을 밝혀낸 16명의 인물을 다루고 있다. 소개된 인물 중에는 세종과 정조, 연산군 등이 있다.

당시 사건 수사의 시작은 피해자의 가까운 주변 인물부터 조사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는 탐문 방식이었는데 이는 첨단 기법이 도입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사의 기본으로 여겨지고 있다. 각 사건의 도입 부분에는 픽션의 형식으로 작가들의 상상력이 발휘되어 흥미롭다. 이 책은 복잡한 플롯을 가진 추리소설이 아니라 재미있는 역사책이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실학자인 정약용에게는 명탐정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202쪽)

• 추천자: 최혁(前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정명섭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06년 을지문덕을 주인공으로 하는 역사 추리소설 『적패』 1, 2를 발표했다. 2011년에 중군기자 출신인 태상호 기자와 함께 밀리터리 스릴러 『케이든 선』을 공동으로 집필했으며, 포털 사이트 다음에 SF 장편소설 『그들이 세상을 지배할 때』를 연재했다. 이외 『조선 백성 실록』, 『조선의 명탐정들』 등이 있다.

최혁곤

낮에는 신문 만들고 밤에는 추리소설을 쓴다. 장편 『B컷』, 『B파일』을 출간했으며 『한국 추리 스릴러 단편선』에 작품을 실었다. 연작 『밤의 노동자』를 발표하고 있다. 역사 속 미제 사건에 특히 관심이 많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전경목 | 2013



(조선 명탐정) 정약용
강명수 | 2011



조선 직업 실록
정명섭 | 2014



정명섭, 최혁곤 지음 | 황금가지 | 2013



조지 베일런트 지음 | 최원석 옮김 | 북이십일 21세기북스 | 2013

대글

행복이라는 주제는 어디서나 빠질 수 없는 최고의 소재이다. 자녀를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법, 스스로 행복을 찾는 법을 지도하는 것이 어른의 가장 큰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린로즈(green****)

행복의 비밀

하버드대 졸업생 268명을 대상으로 대학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지를 추적한 인생 관찰 보고서이다. 75년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인간의 성장과 행복을 연구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하버드 그랜트 연구'의 결과물을 담았다.

행복의 비밀을 에세이처럼 쉽게 설명해 주는 말랑말랑한 책은 아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경험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등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는 독자의 호기심을 끈다. 행복의 본질과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독자와 그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혜와 영감을 줄만한 책이다.

“지혜로움이란 방어 기제의 성숙과 중년의 정신 건강, 가까운 교우 관계, 그리고 노년기 삶에 대한 적응도와 관련이 있었다.” (256쪽)

· 추천자: 박윤희(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조지 베일런트(George E. Vaillant)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진행된 성인발달연구를 맡아온 미국의 정신과 전문의, 현재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보스턴 브리검 여성병원 정신의학과분과 연구소장이다. 42년간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연구소'의 총 책임자를 맡은 그는 심리적 방어기제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 관심을 기울였고, 그 결과 '성공적인 노화'와 '인간의 행복'에 관한 더욱 폭넓은 통찰로 이어졌다. 지은 책으로 『성공적인 삶의 심리학』, 『행복의 조건』, 『행복의 완성』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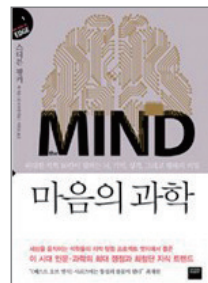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행복의 비밀
리처드 스코시 | 2013



서천석의 마음 읽는 시간
서천석 | 2013



마음의 과학
스티브 핑커 외 | 2012

1913년 세기의 여름

30

<<<<<<

유럽의 역동적인 1913년을 볼 수 있는 책이다. 독일의 문화예술 전문가 출신 플로리안 일리스가 1913년 유럽에서 일어난 일을 1월부터 12월 까지 월별로 재구성했다. 그 해 유럽은 문화사적으로 19세기와 20세기가 갈리는 시점,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한 해 전이다. 저자는 프란츠 카프카, 라이너 마리아 릴케, 제임스 조이스, 마르셀 프로스트, 파블로 피카소와 같은 그 당시의 문화예술계 거장들의 전기, 자서전, 편지, 일기, 사진, 그림을 통해 문화적 성과물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도 보여준다. 100년 전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생동감 넘치는 소설책 같기도 하고, 여러 감독이 함께 연출한 옴니버스 영화 같은 느낌을 주는 독특한 문화사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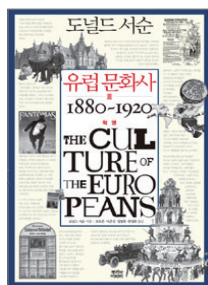
"1월, 히틀러와 스탈린이 쾰른 궁전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우연히 마주친 달이요, 토마스 만이 커밍아웃할 뻔하고, 프란츠 카프카가 사랑 때문에 미칠 뻔한 달이다." (7쪽)

• 추천자: 박윤희(국립중앙도서관 사서)

플로리안 일리스(Florian Illies)

1971년 독일 슈리츠 출생. 본 대학교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미술사, 근대사 전공. 독일의 대표 신문 《프랑크푸르터 알레마이네 차이퉁》의 문예부 편집자 역임. 예술 잡지 《모노폴》을 창간, 발행했으며, 시사주간지 《디차이트》의 문예부장을 지냈다. 현재 베를린의 경매회사 빌라 그리제바흐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19세기 예술을 담당하고 있다. 저서로는 1980년대에 청년기를 보낸 세대의 자화상을 그린 『골프 세대(Generation Golf)』(2000)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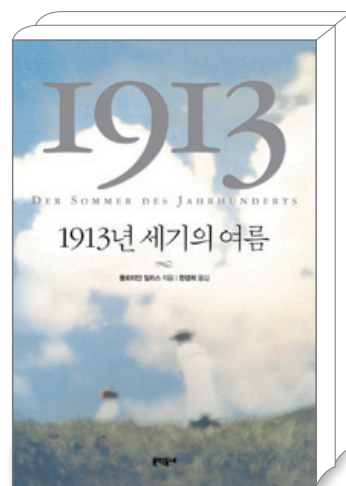
유럽 문화사. 3
도널드 서순 | 2012



(진중권의) 서양미술사:
모더니즘편
진중권 | 2011



세계 명화 속 현대 미술 읽기
존 톰슨 | 2009



플로리안 일리스 지음 | 한경희 옮김 |
문학동네 | 2013

덧글

1913년 한 해의 이야기를 월별로 기술한 책이다. 책을 읽는 내내 1913년으로 돌아간 것처럼 즐겁게 읽을 수 있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책이 아니라 소장하면서 틈날 때마다 두고두고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블루퍼플(flower****)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

공간과 건축에 숨어 있는 치유의 힘

‘나는 어떤 공간에서 가장 행복한가?’ 스스로 질문해보자. 우리는 모두 작은 규모로든 큰 규모로든 주변 장소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특히 삶의 공간마저 평수나 시세를 따지며 투자 대상으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여건을 생각해 보면 말이다.

이 책은 ‘신경건축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통해 ‘행복과 공간’의 함수관계에 대한 매력적인 논증을 제시한다. 저자는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정신보건원에서 연구하면서 애리조나 주립대 통합의학센터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이다. 2003년 여러 신경과학자, 심리학자, 건축가와 함께 미국 ‘신경건축학회’를 창립했다. 그녀는 이 책에서 치유 기능을 발휘하는 다양한 공간의 사례와 함께 사람이 주변 환경에서 느끼는 감각과 치유 능력의 상관관계를 탐색하는 신경과학연구의 세계로 안내한다.

이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은 신경과학과 건축학이 어떻게 조우하게 되었는지 과학사를 아우르며 되돌아보는 대목, 저자가 생각하는 치유의 본질과 그것을 얻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논한 대목이다.

다시 ‘나는 어떤 공간에서 가장 행복한가?’라는 물음으로 돌아가 보자. 그럼 치유의 본질은 무엇일까, 라는 물음이 있을 수 있다. 신경과학과 건축 공간의 상호작용의 의미를 천착해온 저자의 생각을 알아본 후 눈을 감고 천천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듯하다.

저자는 “질병과 건강이 명사라면 치유는 동사다. 치유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움직임이다. 질병으로부터 건강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여행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치유와 장소가 얹히는 것은 바로 뇌와 마음에서다.”라고 말한다. 저자는 치유의 본질적인 의미를 관통하며 공간을 다루는 새로운 태도를 일깨워준다.

I 건축을 통해 세상을 치유하다

이 책은 독자가 궁금해 하는 공간과 건축이 정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를 들어 조목조목 이야기한다. 한 예로 1950년대 미국의 번역학자 조



에스터 M. 스테른버그 지음 | 서영조 옮김 | 더퀘스트 | 2013

너스 솔크의 연구 일화를 들 수 있다. 조너스 솔크는 지하 연구실에서 소아마비 백신을 연구하다 난관에 봉착했다. 좌절한 그는 이탈리아 아시시로 안식년을 떠났고, 프란치스코의 고향인 아시시의 따뜻한 햇빛과 아름다운 풍광에 영감을 받고 돌아와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그는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건축가 루이스 칸에게 의뢰에 솔크연구소를 지었다. 솔크연구소는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를 5명이나 배출했고, 과학자들과 건축가들의 메카가 됐다.

이 사례는 자연이라는 공간이 우리의 감정, 더 나아가 건강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과학적 근거로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런 연구 결과는 현재 병원이나 테마파크, 쇼핑몰의 설계와 도시 공간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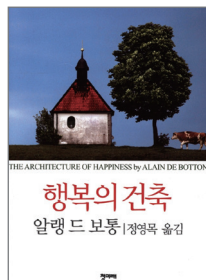
저자는 “시간을 내서 나뭇잎 위에서 반짝이는 햇빛을 보고 자연의 소리와 정적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권하며 잠깐 시간을 내 자신만의 치유 공간을 찾으라고 권한다. 치유의 공간은 우리 내면의 감정과 기억에서 찾을 수 있으며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을 지닌 곳은 바로 우리 머리와 마음 속에 있기 때문이다.

• 추천자: 박윤희(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에스더 M. 스텐버그(Esther M. Sternberg)

매슈 A. 윌슨(Matthew A. Wilson)과 함께 《셀(Cell)》지에 발표한 논문 ‘신경과학과 건축, 공통의 토대를 찾아서(Neuroscience and Architecture: Seeking Common Ground)’로 ‘신경건축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태동을 알렸다. 스트레스 반응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 뇌와 면역체계 사이의 상호작용 등에 관해 광범위하게 연구해온 정신건강 전문가. 워싱턴 주립 대학교 교수를 거쳐 1986년부터 미국 국립보건원에 재직했으며, 지금은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정신보건원에서 연구하는 동시에 애리조나 주립 대학교의 통합의학센터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지은 책으로 『내면의 균형(Balance Within)』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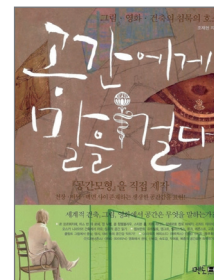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행복의 건축
알랭 드 보통 | 2011



(나를 찾아가는) 감성치유
강윤희 | 2011



공간에게 말을 걸다
조재현 | 2009

나는 클림트를 보면 베토벤이 들린다



권순환 지음 | 쌤앤파커스 | 2014

클림트의 대표작 <키스>를 보면, 남녀는 낭떠러지 위에 불안하게 서 있고 입이 아닌 볼에 키스하고 있다. 생전에 이뤄질 수 없었던 클림트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저자는 이 그림에서 베토벤의 <월광>을 떠올린다. 베토벤은 <월광> 작곡 당시 귀족 가문의 소녀와 사랑에 빠졌지만, 신분 차이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미켈란젤로와 모차르트, 모네와 라흐마니노프, 몽크와 비탈리 등 25쌍의 예술가가 연결되고, 작품 뒤 예술가들의 파란만장한 삶이 펼쳐진다. 2008년에 시작된 '권순환의 이지 클래식-미술관에 간 피아니스트' 공연 중 핵심적인 내용을 묶어 동명의 음반과 같이 발표한 책으로 화가들의 대표적인 그림과 일화에 어울리는 클래식 명곡을 소개한 책이다.

"궁핍하고 가난했던 비극적인 삶, 천재 화가였지만 사랑마저 뜻대로 이루지 못하고 요절한 모딜리아니의 이야기와 어울릴 만한 음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딜리아니의 비극적인 운명과 어울릴 만한 애절하고 슬픈 음악을 소개합니다." (340쪽)

• 추천자: 박설희(국립중앙도서관 사서)

권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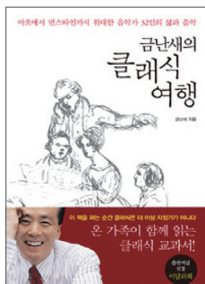
피아니스트이자, 네오무지카 대표, 서울종합예술학교 겸임교수, 서울대학교 음대에서 피아노 전공으로 학사와 석사를 마쳤다. 클래식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2008년 직접 프로듀싱한 음반으로 시작된 그의 활동은 이듬해 '권순환의 이지 클래식-미술관에 간 피아니스트' 공연으로 발전하였다. 음악 외에도 예술 다방면의 융합적인 감상에 관심이 많은 그는 다양한 장르 간의 크로스오버를 시도하며 현대 클래식 공연의 새로운 롤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대글

음악과 미술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독자의 눈높이를 맞춘 설명이 정말 좋네요. 많은 음악가, 미술가의 삶과 노래를 짧게 함축적으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으로 끝내지 않고 책 속에서 소개한 작품과 음악을 좀더 찾아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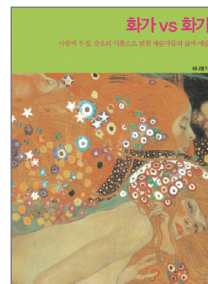
signey(si****)



금난세의 클래식 여행
금난세 | 2012



열려라, 클래식
이현석 | 2011



화가 vs 화가
허나영 | 2010

동양화 읽는 법

33

<<<<<<<

그림을 감상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흔히 ‘그림을 본다’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동양화 읽는 법』은 더 나아가 그림을 보는 것 너머의 ‘읽는 것’으로 상정한다. 그림 역시 화가의 의도가 담긴 하나의 언어라는 것이다.

한 예로 당태종이 선덕여왕에게 나비가 없는 모란꽃 그림을 보낸 것은 조롱하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중국에는 모란꽃과 나비를 곁들여 그리지 않는 법식이 있었다 한다. 모란꽃은 ‘부귀富貴’를 상징하는데, ‘질수蠶壽(나이 80세)’를 뜻하는 나비를 굳이 그려 넣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 이처럼 저자는 동양 그림의 의미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읽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쏘가리(鰍魚鰐魚)는 반드시 한 마리만 그리는 것이 원칙이다. 두 마리를 그리면 대궐大闕이 돌이라는 뜻이며, 이는 곧 임금이 돌이라는 뜻이므로 분명한 모반죄가 된다.” (75쪽)

• 추천자: 최혁(前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조용진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의 권고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를 흠모하여 중학시절 미술에 입문한 이래 홍익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국립서울교육대학교 미술과 교수를 지냈다. 미술대학 졸업 직후부터 의과대학에서 7년간 인체 해부학을 공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얼굴과 몸의 형태학적인 연구를 계속하는 한편 여러 분야에 걸쳐 발명 및 과학기술과의 융합적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조용진 지음 | 집문당 | 2013

댓글

그림으로 선인들의 철학과 지혜를 읽어내는 법에 대해 소개하는 책이다. 동양화의 가치 평가를 통해 우리 예술이 세계 속에 어필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모색해보는 계기를 제공한다.

크리스티나(ddpa****)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옛그림을 보는 법
허균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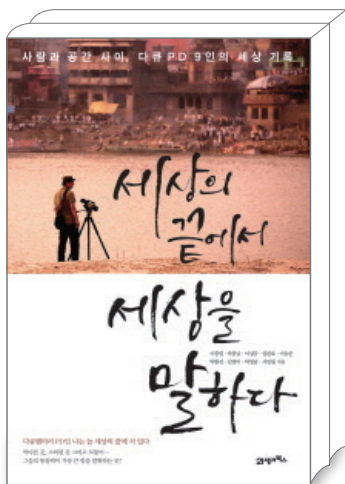


선비의 향기, 그림으로 만나다
백인산 | 2012



중국화: 선의 예술, 붓의 미학
린릭시 | 2012

세상의 끝에서 세상을 말하다



이충렬 외 8인 지음 |
북이십일 21세기북스 | 2013

익숙하지 않은 세상으로의 초대

2009년, 시골 할아버지와 소의 가슴 뭉클한 정을 그린 영화 <워낭소리>가 화제가 되었다. 다큐멘터리 형식의 이 영화는 픽션에 익숙해있던 관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이 책은 <워낭소리>의 감독 이충렬 PD를 비롯, <오래된 인력거>, <달팽이의 별>, <일촉즉발, 이라크를 가다> 등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은 다큐 영화의 감독 9명의 가슴 뛰는 도전기를 담고 있다.

I 두근거리는 세상을 만나다

책 속의 감독들은 각기 다른 개성을 앞세워 이야기가 될 만한 곳, 세상 끝 가장 깊숙한 내부까지 카메라를 들고 파고들었다. 하지만 여기엔 처절한 슬픔과 아픔이 일상화된 현실을 담아야하는 감독들의 애환이 있다. 또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도사리는 현장에서의 비극을 여과 없이 촬영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

이를테면 ‘기쁨의 도시’라 불리는 인도 최대의 도시 캘커타 안에는 4백만 명이 넘는 절대 극빈자가 오늘도 가난을 견디며 살아간다. 그곳에는 당당한 주인공인 맨발의 인력거꾼 살림이 있다. 극빈자이지만 아버지이자 한집안의 가장의 무게를 견디며 살고 있다. 이성규 감독은 그런 주인공을 10년간 카메라에 담았다. 이 감독은 책 속에서 말한다. ‘영화를 찍는답시고, 친구인 살림의 슬픔을 팔아먹는 건 아닐까?’ 그래도 카메라를 놓지 않는 건 비극의 현장에서도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을 만나는 설렘과 그 현실을 세상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무감 때문이다.

I 9가지 세상 이야기

책 속에 등장하는 9가지 세상 이야기들은 낯설고 다소 충격적이다. 대형 선박의 마지막 종착지 인도네시아의 맨손 노동자들의 비루한 삶, 세계 곳곳 분쟁 지역에서 자행되는 비인간적인 흔적, 베일 속의 평양의 풍경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이라는 사실이 독자에게 생각할 기회를 준다. 더불어 감독들이 털어놓는 촬영 뒷이야기는 영상과 별개로, 또 다른 감동과 재미를 준다.

I 나는 왜, 다큐멘터리 PD가 되었을까?

그들은 스스로 묻는다. “왜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는 직업을 선택하였는가.” 책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이들의 내밀한 가슴 고백을 보여준다. 그들이 카메라를 짊어지는 것은 비단 거창하거나 원대한 꿈을 위해서가 아니다. 세상 속에 가려져 있는 주인공들과 소통하고, 그 삶의 끈을 세상과 이어주고픈 마음이 더 크다. 책은 그들이 영상에 담지 못한 이야기 속으로 독자를 초대한다. 삶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그들의 용기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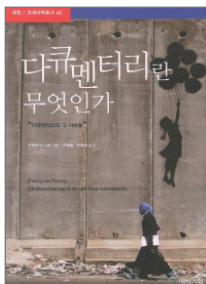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있으면 70억 개의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다큐멘터리만 갖고도 할 이야기가 무수히 많다. 지금 쓰고 있는 또 하나의 연애편지, 벌써부터 설렌다.” (363쪽)

• 추천자: 장기선(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이충렬 외 8인 지음

- 이충렬 - 다큐멘터리 영화 <위낭소리> 연출 외 다수
햇독스 다큐멘터리영화제 신인예술가상 등
- 박봉남 - 다큐멘터리 영화 <Iron Crows> 연출 외 다수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중편 부문 대상 등
- 이성규 - 다큐멘터리 영화 <오래된 인력거> 연출 외 다수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장편 부문 노미네이트 등
- 임완호 - MBC 스페셜 <물의 여행> 연출 외 다수
<물의 여행> 30여 개국 방영 및 한중일PD포럼 최우수상 등
- 이승준 - 다큐멘터리 영화 <달팽이의 별> 연출 외 다수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장편 부문 대상 등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다큐멘터리란 무엇인가
프랑수아 니네 | 2012



허구가 아닌 현실
아시아 다큐멘터리 네트워크 | 2012



아프리카의 눈물
장형원, 한학수 | 2012

식탁 위의 한국사



주영하 지음 | 휴머니스트 | 2013

한류 문화가 세계를 향해 점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 음식 또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음식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 책에는 여러 재미난 사실들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갈비구이로 이름난 수원갈비도 처음에는 간단한 술안주 가운데 하나였으나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풍요가 시작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력에 따라 쇠갈비와 돼지갈비를 먹을 수 있는 소비의 경계가 만들어졌음을 전한다. 이처럼 음식의 다양한 사례를 비롯해 우리가 100년 동안 무엇을 먹어왔는지, 근대인부터 현대인의 메뉴를 통해 20세기 한국의 음식 문화사를 다룬다. “생물학적인 음식에는 물질이 담겨 있지만, 문화적인 음식에는 생각이 담겨져 있다.”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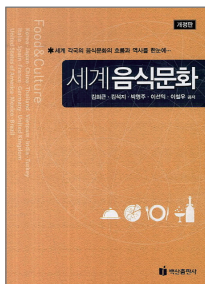
“어떤 음식에는 정치적 관계와 경제적 맥락이 깊이 개입되어 있으며, 우연히 발명된 음식에도 음식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조건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음식의 역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26쪽)

• 추천자: 정봉숙(국립중앙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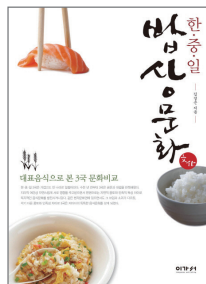
주영하

음식을 문화와 인류학, 역사학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연구하는 음식인문학자이다. 서강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에서 『김치의 문화인류학적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8년 6월 중국 중앙민족대학 대학원 민족학과에서 『중국 쓰촨성 량산 이족의 전통 칠기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속학 전공교수로 재직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음식 문화와 역사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음식전쟁 문화전쟁』, 『중국 중국인 중국음식』, 『그림 속의 음식, 음식 속의 역사』, 『차폰 잔폰 짬뽕』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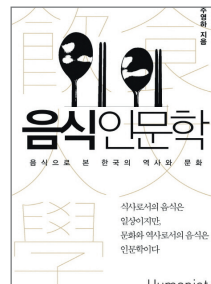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세계 음식 문화
김익근 등 | 2013



(한·중·일) 밥상 문화
김경은 | 2012



음식 인문학
주영하 | 2011

엄마의 미술관

36

<<<<<<<

우리는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에 대한 배경지식을 알아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림을 볼 때 오히려 어른들이 느끼지 못했던 것을 짚어내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의 저자 바르브 갈은 엄마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그림을 ‘읽어주는’ 법을 일러준다. 공식 같은 딱딱한 예술 지식은 던져버린 채, 아이가 그림 자체만을 보고 느끼며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는 방식이다.

이 책에서는 30점의 명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성을 따라 읽노라면 마치 30편의 동화를 읽는 듯한 느낌이 든다. 제목은 『엄마의 미술관』이지만, 아이를 위해 엄마와 아빠가 꼭 함께 읽어야 할 책이다.

“모나리자의 머리술이 별로 없어 보여요.(5-7세 아이의 질문) - 실제로는 머리술이 많았지만, 당시에는 환한 인상을 주기 위해 이마 위쪽의 머리카락을 뽑는 것이 유행이었답니다. 만약 모나리자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지금 사람들의 머리 모양이 도리어 끔찍하다고 말했을지도 모르겠네요.(엄마의 설명)” (74쪽)

• 추천자: 최혁(前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프랑수아즈 바르브 갈 지음 | 이상해 옮김
| 미디어샘 | 2013

프랑수아즈 바르브 갈(Francoise Barbe-Gall)

파리의 소르본 대학교 및 에콜 뒤 루브르에서 예술사를 공부했고, 모교에서 현재는 강의를 하고 있다. 미술을 주제로 많은 칼럼을 써온 저자는, 회화감상 협회인 코르타(CORETA, Comment regarder un tableau)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많은 강연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그림을 보는 법』, 『현대미술의 이해』, 『인상주의 작품 보는 법』 등이 있다.

댓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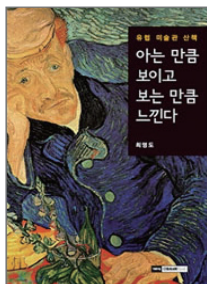
디브리리를 통해서 알게된 '엄마의 미술관'을 읽고 많이 배웠고 미술관에서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에서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주는 엄마가 아닌, 아이와 같이 느끼고 즐기는 엄마로 미술관 관람을 하게 되서 좋았습니다.

iamlsd(ia****)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윤운중의 유럽미술관 순례.
1-2
윤운중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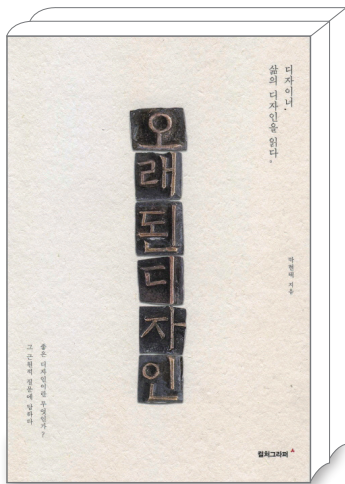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
최영도 | 2011



런던 미술관 산책
전원경 | 2010

오래된 디자인



박현택 지음 | 안그라픽스 | 2013

댓글

옛 선조들의 삶 속에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책이다. 책을 읽은 후부터 주변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다.

루피(bon****)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근무하는 저자 박현택이 ‘오래된 디자인’의 가치를 조명하는 책을 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저자가 말하는 오래된 디자인의 원칙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오래된 디자인의 매력은 사물을 본성에 맞게 대접하고 정성껏 돌본 세월의 흔적 속에서 사물의 품격이 느껴질 때 빛나는 것이란 사실을 깨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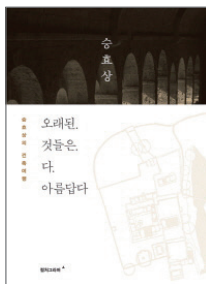
“형태에 있어서 변화란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계속 완성시켜 나가려는 소망에서 출발한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의자가 아니라, 가장 좋은 의자이다.” (296쪽)

• 추천자: 최수연(국립중앙도서관 사서)

박현택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디자인이 시각적 수식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 회의를 느끼고 ‘왜 디자인하는가’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삶의 태도’로서의 디자인을 생각하고 이런 관점에서 이 글을 썼다. 『한국전통문양집』 등의 도서를 기획, 발간하였고, 『디자인 상상』, 『조형』, 『디자인은 죽었다』 등을 공동 집필하였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
승효상 | 2012



한국학, 그림을 그리다
고연희 외 | 2013



명작순례
유홍준 | 2013

학교에서 배웠지만 잘 몰랐던 미술

3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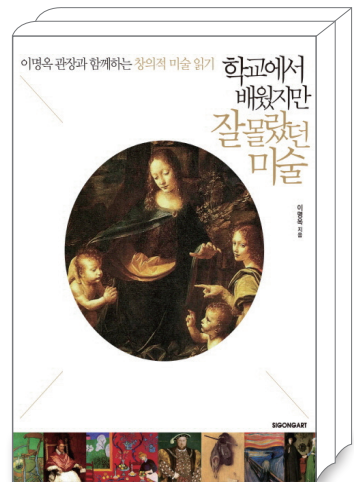
새다른 미술 감상법이 책으로 나왔다. 사비나미술관장 이명옥이 “미술이란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정신의 놀이”라며, 키워드를 통해 창의적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이명옥표 감상법’은 하나의 키워드를 선택한 뒤 관련된 작품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키워드는 작품 속이나 밖에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되고, 소개하는 작품은 교과서 속 명화에서부터 건축물, 애니메이션까지 장르와 시대를 총망라하고 있다.

깊은 미술사적 지식이 없어도 괜찮다. 이 책은 미술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 키워드를 찾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즐겁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누구나 어린 시절에는 풍부한 상상력을 갖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고갈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훈련을 쌓도록 해요. 당연한 것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마그리트처럼 말이지요.” (181쪽)

• 추천자: 박설희(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이명옥 지음 | 시공사 | 2013

이명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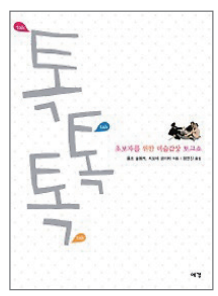
한국 문화·예술계의 뛰어난 기획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현재 사비나미술관장, 국민대학교 미술학부 교수, 한국사립미술관협회장, 과학문화융합포럼 공동대표를 겸하고 있다. 미술과 다른 분야를 융합하는 콘텐츠를 끊임없이 생산해 내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명화 속 신기한 수학 이야기』, 『명화 경제 토크』, 『천재성을 깨워주는 명화이야기』, 『그림 읽는 CEO』 등이 있다.

댓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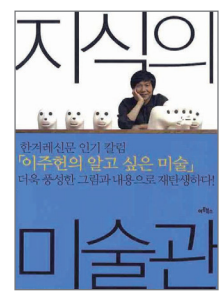
다양한 명화를 소개하면서 그림 보는 관점과 작가의 의도를 설명해 주는 책이다. 그림을 그릴 당시의 작가 심리 상태나 시대적 배경, 그림에 나타난 의도 등을 표현하고 있어 그림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즐겁게 읽을 수 있다.

구수한 청국장(kissb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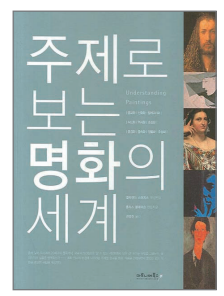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톡톡톡
롤프 솔렌커, 지모네 로이터 |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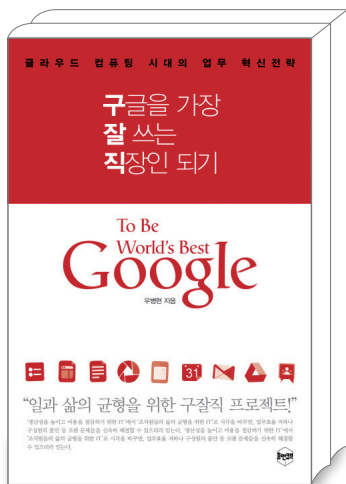


지식의 미술관
이주현 | 2009



주제로 보는 영화의 세계
앨릭산더 스테리시스 | 2007

구글을 가장 잘 쓰는 직장인 되기



우병현 지음 | 휴먼큐브 | 2013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마법

‘기업의 이미지 재고를 위한 만족도 조사 및 이를 적용한 홍보 전략을 수행하라.’

직장인 A 대리는 어느 날 직장 상사로부터 다급한 미션을 받았다. 한 문장의 업무 지시 안에 고객 만족도 조사와 홍보 전략 마련, 실제 적용과 같은 과제가 포함되었다. 한순간에 A 대리는 ‘계모’(직장 상사)의 가혹한 지시를 받고 고민하는 ‘신데렐라’가 되고 만다.

A 대리는 평소 업무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설문 조사를 도와줄 업체를 선정하여 작업에 착수하지만 업무 소통이 쉽지가 않다. 상사의 지시는 종종 바뀌었고 그 때마다 설문 조사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부서원들과 전략을 구상하려 하니, 의견 취합이 문제였다. 수십 개의 수정본 파일은 넘쳐나고 하나의 최종본 파일을 만드는 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됐다. 드디어 홍보물을 제작할 단계. 야심찬 계획안을 가지고 시스템 지원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다음 주로 미루겠다는 내용이었다.

I 호박마차를 끄는 공유의 마법

계모가 준 수많은 일감을 처리하는 방법을 멀리 떨어진 요정에게 직접 알려주려 했다면 신데렐라는 무도회장에 가지 못했을지 모른다. 만족도 조사 업체와의 문서 처리 방식을 웹오피스로 정했다면 어땠을까? 결과물을 서로 주고받을 필요가 없이 웹에 자동으로 저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수정하려면 언제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기에 작업환경의 제한도 없다.

신데렐라를 무도회장에 데려다 준 것은 말로 변신한 여러 마리의 생쥐들이었다. 문서를 만드는 순간부터 보고·협업 라인과 공유를 한다면 더 이상 수많은 수정본 더미에서 헤멜 필요가 없다.

I 업무 시간 내에 일을 처리하는 방법

눈물겨운 과정을 모두 거치고도 A 대리가 홍보 작업에 바로 착수하지 못한 것은 시간 문제였다. 신데렐라의 마법은 요정들이 허락한 시간

내에만 가능했던 것이다. 만약 A 대리가 홍보를 위한 이미지나 동영상, 웹페이지 등을 직접 만들었다면 어땠을까? 신데렐라는 12시에 황급히 무도회장을 떠나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른다.

‘구글’은 어디까지나 ‘디지털 기술’을 상징하는 메타포다. 책은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로 아낀 내 시간을 나와 가족을 위해 사용하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 저자는 현재 조선비즈 회사의 총괄이사(COO) 겸 연결지성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다.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전수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디지털 기술에 집중한 저자는 실제 사례 및 체험 노하우를 전하고자 책을 집필했다.

디지털의 마술은 바쁘고 힘들게 사는 직장인에게 솔깃한 제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노력 없이도 이루어지는 동화 속 세상이 아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디지털 활용 안내 지침서로서 이 책을 부지런히 활용하고 실천해보기를 권한다.

• 추천자: 오혜정(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우병현

1964년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을 졸업했다. 1991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산업부 IT팀장, U미디어랩센터장, 경영기획실 마케팅전략팀장을 역임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동영상 UCC 벤처기업 대표를 맡아 벤처 현장을 경험했으며, 현재 조선미디어 그룹의 경제전문 매체인 조선비즈 총괄이사(COO) 겸 연결지성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다. 저자의 주요 저서 및 역서로는 『디지털은 자본이다』, 『디지털미디어와 저널리즘』, 『미샤, 3300원의 신화』, 『인사이드 지식사전』(공저), 『구글 성공신화의 비밀』, 『시티즌 마케터』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호모스마트쿠스로 진화하라
김지현 |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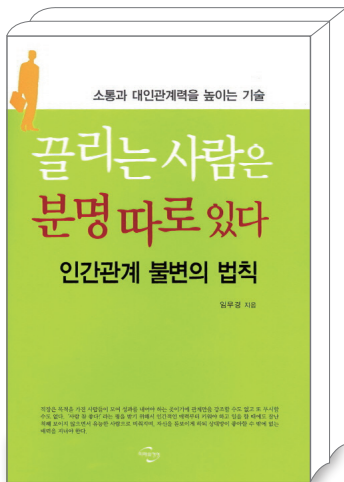


(Bravo!) 디지털 라이프
조은주 | 2013



구글 완전 활용법
강재욱 외 4인 | 2013

끌리는 사람은 분명 따로 있다



임무경 지음 | 미래와경영 | 2013

나를 홍보하는 법부터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포장하는 법, 팬 확보를 위해 현명한 관계를 유지하는 법 등 조직 내에서 자신을 알리고 존재 가치를 높이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게 하는 인간 관계의 기술을 소개한 책이다.

조직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잘 대처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일 것인가가 업무 능력보다 더 필요하다. 보다 나은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친구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꽃과 같은 친구이다. (중략) 둘째, 저울과 같은 친구이다. (중략) 셋째, 산과 같은 친구이다. (중략) 넷째, 땅과 같은 친구이다. (중략)” (48-49쪽)

• 추천자: 조생단(국립중앙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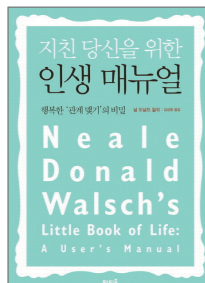
임무경

교육학 전공, 기업교육컨설팅 (주)킹웨이 인재개발그룹의 창립 멤버, 현재 The well 커뮤니케이션즈 원장, 사회강의 11년째 경력자, 강의 내용으로는 유형별 맞춤 커뮤니케이션, 감성 커뮤니케이션, 조직 내 관계를 위한 갈등 관리, 셀프 리더십, Be 호감을 위한 인성 이미지 메이킹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CEO를 감동시키는
인간관계의 비밀
임무경 | 2011



지친 당신을 위한
인생 매뉴얼
닐 도널드 월쉬 | 2013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양창순 | 2012



내일을 위한 경제학

우리는 매순간 이런저런 선택과 마주하게 된다. 바로 경제학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다. 저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망망대해’라면 경제학은 ‘배’와 같다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선택의 순간에 도움을 주는 소박한 삶의 지혜가 담겨있다.”라고 경제학을 풀어낸다. 또한 ‘경제는 우리 삶에서 무엇인가?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모두가 아끼고 저축하면 경제는 나아질까? 우리가 누리는 할인 혜택은 정말 할인일까?’ 등 우리가 현실에서 매일 마주치는 문제들의 원인을 되짚어 보고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준다. 이 책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내일을 위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경제학은 어제보다 오늘을, 오늘보다 내일을 위한 선택을 하라고 조언한다.” (5쪽)

• 추천자: 정봉숙(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참사회경제교육연구소

참사회경제교육연구소(옛 경제교육연구회)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물론 비전공자와 일반인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경제학을 더 쉽고 친근하게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젊은 경제학자들의 모임이다. 『생활인을 위한 경제학 이야기』, 『사람의 역사, 경제의 역사』, 『학교에서 어떻게 경제학을 가르칠까』, 『역사와 쟁점으로 읽는 현대 자본주의』, 『동아시아 경제, 20세기에서 21세기로』 등을 함께 쓰고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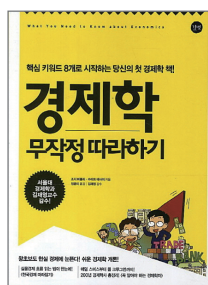


참사회경제교육연구소 지음 | 조준현 엮음
| 다시봄 | 2013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2
박정호 | 2013



경제학 무작정 따라하기
조지 버클리, 수미트 데사이 |
2013



영화, 경제를 말하다
최병서 | 2013

당신이 알던 모든 경계가 사라진다



조용호 지음 | 미래의창 | 2013

사회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시대 변화도 빠르게 전개되면서, 비즈니스 영역에서 경계가 사라지고 융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빅블러 혁명'이라고 한다. 저자는 경계가 사라지는 상황을 포착해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지금 하는 일이 경계 밖에 존재하는 예상치 못한 경쟁자로 인해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빅블러 혁명'은 오랜 시간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이 책은 사회 변화의 흐름을 기회로 그것을 어떻게 선점하여 활용할지, 그리고 개인이나 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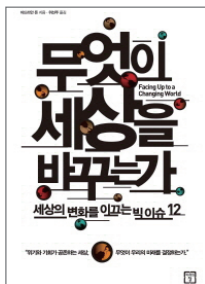
"환경이 변하면 습관도 역시 달라진다. 또 습관에 따라 관념이 자리 잡고 결과적으로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패턴이 이어진다." (6쪽)

• 추천자: 고정주(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조용호

동국대 산업공학과와 핀란드의 알토 경영대학(Aalto School of Business) MBA를 졸업했으며, 정부 관련 ICT 산업정책 자문위원,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오라클 코리아, 삼일 PWC 등을 거치며 10년 이상 e비즈니스 및 모바일 신규 사업·기술 전략 컨설팅을 담당했다. 2010년부터 플랫폼 전략, 비즈니스모델 관련 경영컨설팅 전문 업체인 (주)비전아레나를 설립해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다. 또한 국내 유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강의를 했고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교육, 워크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무엇이 세상을 바꾸는가
아드리안 돈 | 2013



10년 후 일의 미래
《트렌즈》지 특별취재팀 | 2013



글로벌 트렌드 2030
미국국가정보위원회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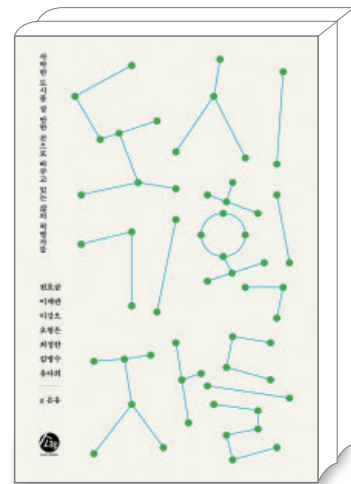
도시기획자들

7인의 도시기획자들이 건조한 도시에 삶의 다양성을 부여하고 생명력을 불어넣은 경험담을 담은 책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 일궈낸 여러 현장을 그려낸다. 더불어 경험에서 우러나온 미래의 도시기획자들을 위한 조언도 담겨 있다.

한 도시기획자는 “나는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답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도시에 자연과 문화를 접목시키면서 일어난 사람들과의 교류, 그들과 소통하면서 변화하게 되는 삶 등,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가 주는 의미를 재해석하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기획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문제의식이죠.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해결하고 싶은가에 관한 물음을 가져야 합니다.” (43쪽)

• 추천자: 정봉숙(국립중앙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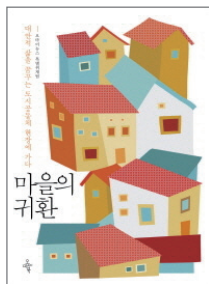


천호균 외 7인 지음 | 케이앤픽북스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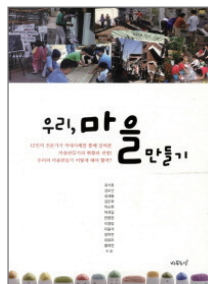
천호균 외 7인

- 천호균 - 성균관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 지금은 씬지농부에서 대장농부로 일하고 있다.
- 이채관 - 홍익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고, 2005년부터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 이강오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서울그린트러스트의 사무처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 오형은 -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조경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주)지역활성화센터 대표 등을 겸하고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마을의 귀환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 | 2013



우리, 마을 만들기
김기호 등 |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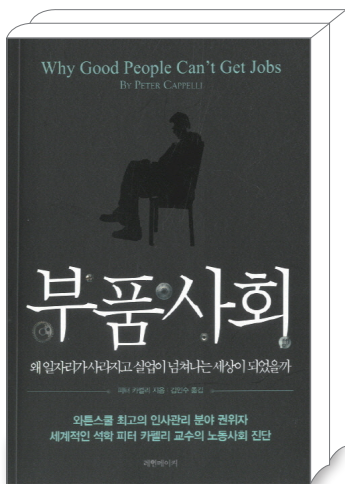


도시 예술 산책
박삼철 | 2012

덧글

겉표지가 인상깊은 책이었어요. 마치 별자리를 보는 듯한 기분이랄까요. 도시라는 공간은 삭막하기도 하고 가끔은 답답함을 안겨주는 곳입니다. 이런 도시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공간,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일이죠. 도시에 생기를 불어 넣는 다양한 아이디어에 감탄하며 읽었습니다.

그린로즈(green***)



피터 카펠리 지음 | 김인수 옮김 |
동아일보사 | 2013

대글

취업, 아마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은퇴가 빨라지면서 생
기게 된 실버 구직자들,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구직자들. 결국 기업의 고
용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책인
데요, 이 문제는 꼭 기업뿐만 아니라 우
리 모두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왜 일
자리는 찾고 힘들고 실업이 넘쳐나게
된 것일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책
이었습니다.

구수한 청국장(kissbab****)

부품사회

인사관리 분야의 저명한 교수인 저자가 미국의 노동사회를 진단한 책이다. 구직난 속에 구인난이 심각해지는 모순적인 사회문제와 자동 채용 시스템이 주도하는 채용 과정의 문제점을 조명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편견을 논리적으로 파헤친다. 문제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과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 간의 차이, 즉 '기술격차'가 아니라 고용주가 직원의 직무교육을 꺼리는 '훈련격차'에 있다고 한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의 타개책으로 학교와 회사를 하나로 묶는 협업 시스템을 제시하며, 이러한 협동 과정이 고용주와 지원자 모두에게 효과 만점의 결과를 안겨준다고 말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고용 시장의 본질적인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기는 계기를 갖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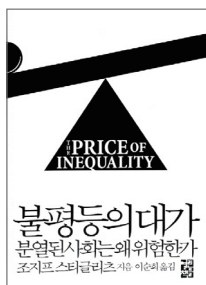
“한편에서는 고용주들이 제대로 요건을 갖춘 인력을 찾을 수가 없다고 불평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의욕 넘치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열정을 바쳐 일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20쪽)

• 추천자: 윤영조(국립중앙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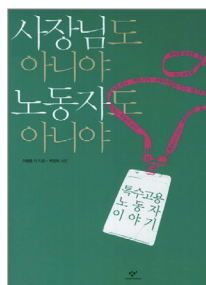
피터 카펠리(Peter Cappelli)

와튼 스쿨 교수이자 와튼 인적자원센터 소장이다. 코넬 대학교에서 노사 관계를 전공했으며,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노동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7년부터는 싱가포르 인력부에서 일하고 있으며, 케임브리지와 매사추세츠의 전국경제조사국 연구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Talent on Demand)』, 『인도의 방식(The India Way)』, 『직장에서의 새로운 계약 관계(The New Deal at Work)』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불평등의 대가
조지프 스티글리츠 | 2013



사장님도 아니야
노동자도 아니야
이병훈 등 | 2013



과로 사회
김명선 | 2013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부와 명예, 건강, 가족, 친구, 일, 사랑……. 사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경제 관련 전문 작가인 저자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본다. 즉, 부모, 동료, 배우자, 친구와 같은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의미 있고 인간적인 관계를 제외하면 인생에서 오래 지속되는 만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이 시대 최고의 사상가들의 자문에 기초해 '무엇이 진정으로 부유한 삶을 만드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삶의 지혜를 깨닫고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가 누구인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해준다." (270쪽)

• 추천자: 고정주(국립중앙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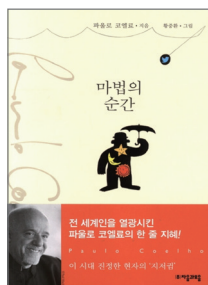


알렉산더 그린 지음 | 박세라 옮김 | 북하우스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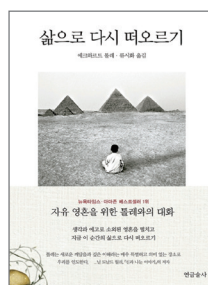
알렉산더 그린(Alexander Green)

세계 최대 투자 클럽인 옥스퍼드 클럽의 투자 고문이다. U투자사의 수석 투자 전략가이며 '정신적인 부' 칼럼을 고정적으로 연재하며 대중의 지지를 얻었다. 저서로 『낚시 챔피언의 포트폴리오(The Gone Fishin' Portfolio)』와 『숨겨진 섬의 비밀(The Secret of Shelter Island)』이 있다. <오프라 윈프리 쇼>를 비롯, NPR, 폭스 뉴스, 그리고 《오라일리 팩터》 등에 출연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 《비즈니스 위크》, 《포브스》를 비롯한 미국의 대표적 지면에 소개되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마법의 순간
파울로 코엘료 | 2013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에크하르트 톨레 | 2013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헤민 | 2012

(에릭 슈미트) 새로운 디지털 시대



에릭 슈미트, 제러드 코언 지음 |
이진원 옮김 | 시공사 | 2013

‘무인 자동차로 출근하기’, ‘홀로그램으로 회의에 참석하기’ 등 디지털 기술이 보여주는 미래의 모습을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해 봤을 것이다.

이 책은 우리 사회가 맞게 될 미래의 모습을 현실적이고도 흥미진진하게 그려내고 있다. 또한 ‘디지털 시대’란 이제 기술 분야에 국한된 말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그 자체를 지칭하는 말이며, 더불어 디지털 기술로 인해 하나로 연결된 개인과 계층, 그리고 사회에서 어떻게 힘이 재분배되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닥칠 위험과 도전은 무엇이며,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다각도로 짚어준다. 이 책을 통해 우리 모두는 미래의 의미와 함께, 미래를 앞서가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상하는 미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움직이면서 가장 흥분된 시간과 약속, 도전으로 가득 찬 멋진 신세계다.” (416쪽)

• 추천자: 정봉숙(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에릭 슈미트(Eric Schmidt)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대표적 기업 구글(Google)의 회장이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고,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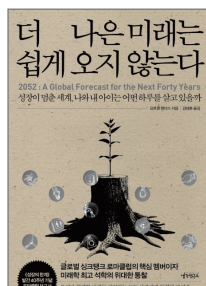
제러드 코언(Jared Cohen)

구글의 싱크탱크인 ‘Google Ideas’의 소장이자, 미국의 외교 정책 및 국제정치 연구기구인 외교협회의 부 선임연구원이다. 지은 책으로 『지하드의 아이들』, 『100일 동안의 침묵: 미국과 르완다 집단 학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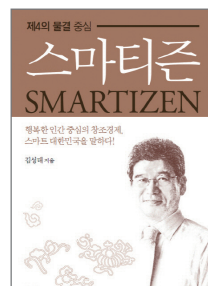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폴 크루그먼)
새로운 미래를 말한다
폴 크루그먼 | 2012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
요르겐 랜더스 | 2013



스마티즌
김성태 | 2013



세상물정의 사회학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들어간 한 사회학자의 고민이 책으로 출판됐다. 사회학자 노명우가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에 이어 두 번째로 자서전의 성격을 띤 사회학 이야기를 시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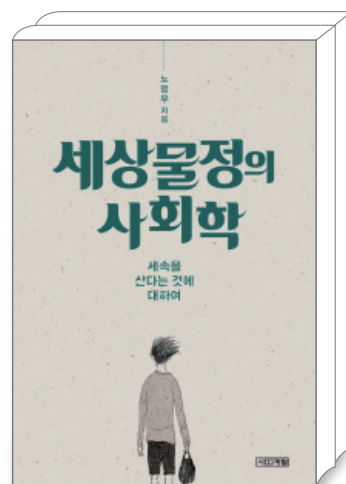
이 책은 저자가 연구실을 벗어나 버스, 지하철, 카페 등 밖으로 나가서 접하게 된 25가지의 화젯거리를 담고 있다. 저자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물정’이 지배하는 사회에 담긴 비밀과 가면을 벗겨 내며, 아름답고 추한 세속의 풍경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결국 저자는 세상물정을 헤아리면서 ‘더 좋은 삶’을 도모하자고 전한다. 현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풀어낸 이야기들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보자.

“상식과 상식이 서로 견제할 때는 몰상식이 생겨나지 않는다. 하나의 상식만이 존재하는 사회가 비상식적인 사건을 낳을 뿐이다.” (26쪽)

• 추천자: 조수민(前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노명우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가는 폐쇄적인 학문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서 연구 동기를 찾는 사회학을 지향한다. 지은 책으로 『계몽의 변증법을 넘어서』, 『계몽의 변증법』,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노동의 이유를 묻다』,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을 꿈꾸다』,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 등이 있다.



노명우 지음 | 사계절출판사 | 2013

대댓글

소주제들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일상에 대한 속시원한 사회 발언과 적절한 관련 도서의 언급이 인상적이다. 대중 눈높이의 사회학 찾기라는 흥미로움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는 충분히 보인다.

애유모피(eu****)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편의점 사회학
전상인 | 2014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
노명우 | 2013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오찬호 | 2013

승자의 안목



김봉국 지음 | 센추리원 | 2013

우리는 리더에 따라 작게는 조직의 성격이, 크게는 국가의 운명이 전혀 다르게 바뀌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승자의 안목』에서는 고전과 역사는 물론 비즈니스 현장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리더의 다섯 가지 안목을 제시하고 있다. 비난과 반대에도 할 일은 하는 ‘결행’, 멈춰야 할 때, 나아가야 할 때, 돌아봐야 할 때를 아는 ‘순리’, 그 사람이 먼저 나를 찾게 하는 승자의 용인술 ‘인덕’, 흐름을 읽고 판을 주도하는 ‘혁신’, 한 사람의 똑똑함보다 열 사람의 어리석음을 조합하는 ‘공유’가 그것이다.

승자가 된 리더는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것.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지녀야 할 리더십 덕목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가져보자.

“사회생활을 하면 누구든지 이미 무언가의 리더다. 무슨 장삿을 달고 있다면 당연히 그럴 것이고, 설사 아직 장을 말지 않고 있어도 일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된다.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업무에 종사하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이다.” (25쪽)

• 추천자: 조생단(국립중앙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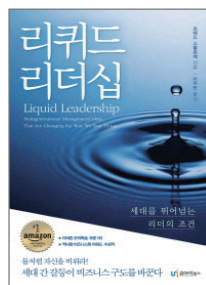
김봉국

경남 하동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첫 직장으로 삼성에서 근무하다 경제 기사를 쓰고 싶어 매일경제신문사 기자로 전업 후 언론인으로 활동. 이후 《이데일리》 창간에 뛰어들어 창업 멤버이자 대표이사로 13년간 언론인과 경영인으로 맹활약. 현재 ‘행복한기업연구소’를 설립, 운영하며 리더십에 관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워킹룰
김진동 | 2013



리퀴드 리더십
브래드 스톨러제 | 2013



답을 내는 조직
김성호 | 2012

에너지 팡

자동차의 계기판이 고장 난 사실도 모른 채 무작정 달리는 운전자가 있다. 여기서 자동차는 우리가 누리는 과학기술 문명을 상징하고, 운전자는 인류의 모습을 반영한다. 늘어나는 인구, 심각한 에너지 자원 고갈. 과연 우리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

저자는 사회현상과 에너지 문제를 화학이라는 색다른 관점에서 풀어 나간다. 열역학, 분자운동론 등 어렵게 느껴지는 화학 이론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절묘하게 접목시켰다. 또한 화학의 이론적 모델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안내해 준다. 자동차의 연료통이 바닥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해답은 이 책을 펼치게 될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

“앞으로 인류는 얼마 남지 않은 제한된 양의 자연자원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놓고 깊이 고민하게 될 것이다. (중략) 따라서 에너지의 속성에 관련된 기본적인 과학 지식은 모든 대중에게 일반적인 상식 수준으로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 (133쪽)

• 추천자: 유지현(국립중앙도서관 사서)



박동곤 글 · 그림 | 생각의힘 | 2013

박동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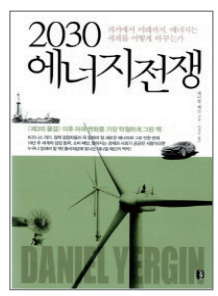
고려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단백질의 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코넬 대학교 화학과에서 레이저 물질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캔사스 주립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귀국하여 1994년부터 지금까지 숙명여자대학교 화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동양화가인 어머니로부터 미술적 소질을 물려받아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약 10년간 월간 《화화세계》에 화화만평을 게재하기도 했다.

덧글

책을 읽으며 신나게 타고 가던 차에 기쁨이 떨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과학 지식도 배울 수 있고 지속가능한 삶을 살도록 유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아동과 초등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nanskylove(nansk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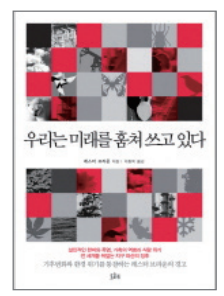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2030 에너지전쟁
대니얼 예긴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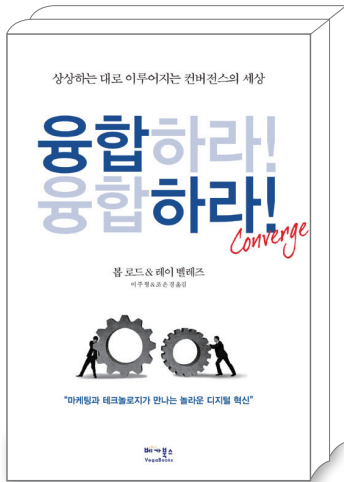


에너지 자원의 위기와 미래
조윤수 | 2013



우리는 미래를 훑쳐 쓰고 있다
레스터 브라운 | 2011

융합하라!



봄 로드, 레이 벨레즈 지음 |
이주형, 조은경 엮음 | 베가북스 | 2014

댓글

요즘 '융합'이 학교 현장에서 화두로 떠오르는 추세이다. 다른 분야에서는 어떻게 '융합'을 적용하는지 궁금하던 차에 첫 장을 열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융합의 소재는 학교 현장과 다르지만 '융합'의 의미를 실제적으로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iryanjaya(iryan****)

비즈니스 분야에서 바라보는 '융합'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융합이란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거나 그렇게 만드는 일이다. 창의성, 테크놀로지 그리고 미디어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마케팅과 테크놀로지의 융합 혹은 컨버전스를 통해 기업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담고 있다.

마케팅과 테크놀로지의 결합을 주제별로 나누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보여주며 융합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함께 제시한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고객 편에 서야 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글을 맺고 있다. '언제나 기억하라, 고객을 따라가면 절대 실패할 일이 없다는 것을.'

"소비자의 여정에 주목하며 그 여정을 참부터 끝까지 이해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꾸준히 유지하는 조직이 승자가 될 것이다." (331쪽)

• 추천자: 최수진(국립중앙도서관 사서)

봄 로드(Bob Lord)

레이저피시의 최고경영자(CEO)이다. 봄은 엔지니어로 일을 시작했으며, 현재 비즈니스를 키우는 브랜드 경험을 창조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레이저피시를 이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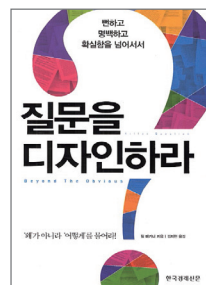
레이 벨레즈(Ray Velez)

온라인 광고 및 마케팅에 관한 기업 레이저피시의 최고기술책임자(CTO)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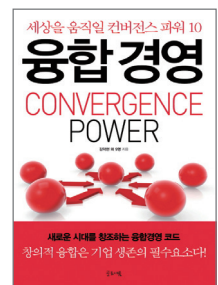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정글의 법칙
빅터 W. 황, 그렉 호로윅 |
2013



질문을 디자인하라
필 매키니 | 2013



융합 경영
김덕현 외 9명 | 2011



진심진력

“신에게는 전신이 아직도 12척이 있습니다.” 명량해전 직전 최악의 상황에 이순신 장군이 임금에게 올린 글이다. 그는 32세에 무과 말단직에 합격하고 47세에 전라 좌수사에 임명될 때까지 성공보다는 시련과 좌절의 시간이 많았다. 그런데 이 같은 긍정적인 정신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저자는 난중일기에서 그 답을 찾는다. 나아갈 진進, 참 진眞, 최선을 다할 진盡, 이처럼 한결 같은 이순신의 정신 자세는 무한경쟁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덕목들이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옳은 것을 믿고 행하는 용기로 자신과 세상의 운명을 바꿨던 이순신. 이 책은 진력을 다해 충실한 삶을 산 이순신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정신 자세를 보여준다.

“이순신은 싸우기 전에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찾았고, 실제 전투가 시작되면 언제나 앞장서서 최고의 용기를 발휘했다. 결국 용기와 지혜는 저울과 같아야 한다. 어느 한쪽이 기울면 지혜가 부족한 반응이 되거나, 생각에 그치고 마는 공상가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200쪽)

• 추천자: 장기선(국립중앙도서관 사서)



박종평 지음 | 더퀘스트 | 2014

박종평

이순신 연구가, 역사 칼럼니스트이다.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고려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아리랑TV 기획실,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다. 저서로 이순신의 속마음을 탐험한 『이순신, 꿈속을 걸어 나오다』, 그의 삶을 추적하면서 배운 지혜를 엮은 『그는 어떻게 이순신이 되었나』, 불패의 명장 이순신의 삶의 원칙을 찾은 『이순신 이기는 원칙』, 이순신에게 결정적 영향을 끼친 스승 15인을 살펴본 『흔들리는 마흔, 이순신을 만나다』가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승자의 안목
김봉국 | 2013



리더를 읽다
나채훈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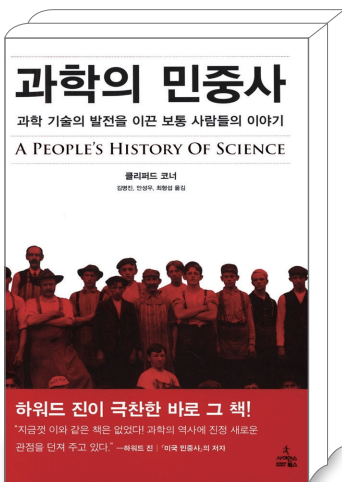


세종처럼
박현모 | 2012

덧글

세가지 '진'에 대한 해석을 담은 이순신 장군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다. 실수를 거듭할지언정 진실된 마음을 다해(眞) 멈추지 않고 나아가(進) 최선을 다한다(盡) 그 노력이 빛을 발해 떨쳐 일어날(振) 수 있는 성공의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한다.

푸른시작(dewbe****)



클리퍼드 코너 지음 | 김명진, 안성우,
최형섭 옮김 | 사이언스북스 | 2014

과학의 민중사

이 책은 위인전과 교과서에서는 알려 주지 않은 비밀스럽고 흥미로운 과학사 뒷이야기를 통해 다른 시각으로 과학을 바라보게 한다.

과학이 교육 받은 일부 지식인들에 의해 발전해 왔다는 기존의 과학 영웅 설화에 반기를 들고, 과학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린 수많은 이름 없는 창조자들 및 조력자들의 업적과 이야기를 정당하게 복원해내려 한다.

몇몇 유명한 과학자들과 그들의 업적 위주로 서술되어 온 일반적인 과학사와 달리 개인이 아닌, 직업별 집단들의 과학적 성취에 주목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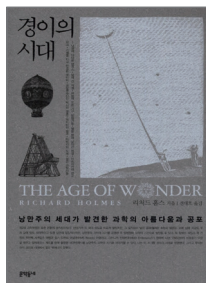
“어느 시대건 간에 일선에서 싸우는 병사들이 가장 훌륭한 일꾼들이다. 이들의 인생은 기록되지 않지만, 일대기가 기록되는 몇몇 행운아들 못지않게 문명이 진보하는 데 크나큰 공적을 남겼다.” (477쪽)

• 추천자: 김혜린(국립중앙도서관 사서)

클리퍼드 코너(Clifford Conner)

조지아 공과대학교를 졸업하고 1960년대에 군수업체인 록히드 항공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영국 연수를 계기로 현대 과학의 군사적 속성에 눈을 뜨게 되어 직장을 그만두고 이후 20년 가까이 반전 운동, 노조 운동을 했다. 40대 중반에 접어들어 늦깎이로 대학원에 입학해 과학사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뉴욕 시립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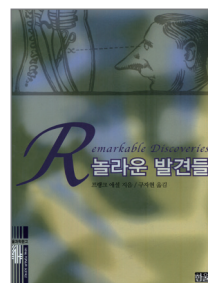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경이의 시대
리처드 홈스 | 2013



자연과학의 역사
최재희, 민경진 | 2013



놀라운 발견들
프랭크 애셜 | 2013

깃털

조류의 가장 뚜렷한 특징인 깃털은 완벽한 비행 날개이자 가장 가볍고 효율적인 단열재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19세기에 발견된 시조새 화석의 깃털은 시조새가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하는 중간 단계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되며 생물학계 진화 논쟁에 불을 붙였고, 오늘날까지도 논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과학적 차원을 넘어 미술, 문화, 종교, 일상생활에까지 닿아 있는 깃털의 경이로움과 자연 속에서, 그리고 인간 사회가 채택한 수많은 용도 면에서 그것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흥미롭게 담아낸 책이다.

“깃털의 세세한 사항들이 오래전부터 생물학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다. 깃털은 거대한 주제를 이루기 때문이다.” (7쪽)

• 추천자: 고정주(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소어 핸슨 지음 | 하윤숙 옮김 |
에이도스 | 2013

소어 핸슨(Thor Han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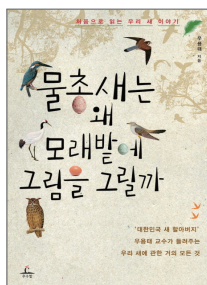
보존생물학자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연구와 생물보존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저자는 중앙아메리카의 나무와 명금류, 탄자니아의 동지 악탈, 아프리카대머리수리의 먹이 섭취 습성 등을 연구했다. 첫 책 『울창한 숲(The Impenetrable Forest)』은 2008년 《USA Book News》 자연 분야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매년 자연사 부문의 뛰어난 책에 주는 존 버로스 메달을 수상했으며, 《라이브러리저널》 과학기술 분야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주목을 받았다.

덧글

깃털의 놀라운 보온 기능, 보호 기능 뿐 아니라 깃털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뛰어난 보온재인 깃털로 뒤덮인 새들이 아프리카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생존하는 비결에 대해서도, 깃털을 통해 신비로운 자연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색다른 책이라 좋았습니다.

달빛여신(cran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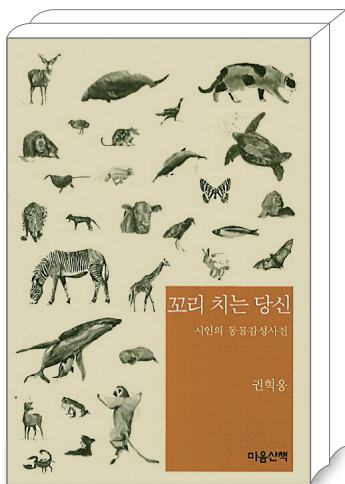
물총새는 왜 모래밭에
그림을 그릴까
우용태 | 2013



새와 함께 꿈을 꾸다
박진석 | 2013



(이상한 조류학자의)
어쿠스틱 여행기
글렌 칠튼 | 2013



권혁웅 지음 | 김수옥, 김다정 그림 |
마음산책 | 2013

꼬리 치는 당신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생물을 만나다

생물과 사람 사이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일은 시인보다 생물학자나 과학연구자에게 더 어울릴법하다. 하지만 시인 권혁웅은 500여 종 생물에 대해 그만의 감성을 곁들여 600쪽에 달하는 생물 사전을 펴냈다. 여느 과학자들의 실험 결과보다 시선을 끌고 심장을 뛰게 하는 글들이 가득하다.

“뱀은 소리를 듣지 못한다.
고막은커녕 귓구멍도 없다.
대신에 땅의 진동을 아래턱과 내이로 듣는다.
소리가 아니라 진동으로 듣는다 이거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손잡은 그이가 떨고 있을 때,
그이는 내게 말을 건네는 거야.”

이 시를 읽으며 뱀과 교감했다면 당신은 이미 책장을 넘길 준비가 된 것이다.

I 사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이 책의 또 다른 시 ‘꼬리 치는 당신도 아팠다고’도 재미있다. 이 시는 어떤 동물에 대한 이야기일까?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자르고 도망가서 사는 동물, 도마뱀에 대한 이야기다. 도마뱀은 위험을 인지한 후 자신의 꼬리를 자르고 남아있는 꼬리가 꿈틀대는 동안 달아난다. 그 후 도마뱀은 자신의 잘린 꼬리가 자라는 동안에는 생식뿐만 아니라 성장조차 하지 않는다. 시인은 이 도마뱀 이야기를 우리의 아픈 사랑과 연결 짓는다. ‘꼬리 치다’는 뜻이 종종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인간의 구애 활동 역시 지극히 동물적인 행위다.

“그이가 당신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다고 아파하지 마시길.
당신이 그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동안 당신은 살아남은 거야.
꼬리 치는 당신도 아팠다고.”

이처럼 이 사전에서만큼은 지루한 설명 혹은 읽자마자 잊어버리는 동물에 대한 해석을 찾아볼 수 없다.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도 닮은 동물들을

새롭게 만날 수 있으니 말이다. 시인의 생각이 각주처럼 달려 있어 그의 추임새를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 책에서는 왁스몽키개구리, 탁충새우, 일곱팔불가사리, 폭탄먼지벌레 등 이름부터 희한한 낯선 동물들을 만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서류는 몸이 마르기 때문에 물이나 그늘에서만 생활한다. 하지만 왁스몽키개구리는 다른 양서류들과 다르게 햇빛 아래 나서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귀밑의 분비샘에서 나오는 왁스가 온몸에 발라지면서 몸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이 동물의 설명을 들으면 온 몸에 선크림을 바르고 햇빛 아래에 누워있는 사람의 모습이 떠오른다.

I 새로운 시선으로 생물보기

시인은 우리의 삶도 날마다 그렇듯 축제이길 바란다고 말한다. 하루하루가 자연에 도전하고,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개발에 전전긍긍하며 긴장된 삶을 보내는 현대 사회. 이 시인의 말처럼 책을 보며 자연의 정취를 느끼고 생물 이야기 속의 해학을 맘껏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 추천자: 김혜린(국립중앙도서관 사서)

권혁웅

시인으로 충주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맛벌이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 일찌감치 방목형 인간이 되었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위해 닥치는 대로 책을 읽다가 남독형 인간이 되었다. 곤대를 싫어하지만 직업이 선생이며, 미래와 시를 옹호했지만 자신은 과거와 시를 쓴다. 시집으로 『황금나무 아래서』, 『마징가 계보학』, 『그 얼굴에 입술을 대다』, 『소문들』, 『애인은 토막 난 순대처럼 운다』, 비평 집으로 『미래파』, 『입술에 묻은 이름』, 시 이론서로 『시론』, 시 해설집으로 『당신을 읽는 시간』이 있다. 2012년 미당문학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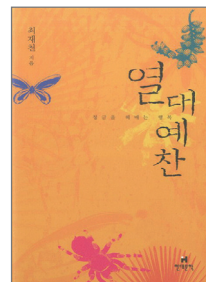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친절한 생물학
후쿠오카신이치 | 2013



나의 생명 수업
김성호 | 2011



열대예찬
최재천 | 2011

나무가 청춘이다



고주환 지음 | 글항아리 | 2013

대글

초목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더욱 관심있게 볼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잊고 있었던 풀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에 민담을 곁들여서 재미있게 풀어나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정겨우면서도 아기자기한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책이라서 더욱 좋았습니다.

행복둥이(tjddhrt****)

저자가 청춘을 함께한 특별한 나무들의 의미를 기록한 책이다. 오십 넘은 아버지가 초등학교 아들을 위해 깎아주던 연필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따뜻함은 향나무에, 한 여학생의 책상 서랍에 있던 은행잎 책갈피를 몰래 가져와 밤마다 꺼내보던 사춘기 소년의 가슴앓이 추억은 노란 은행나무에 담겨 있다.

『나무가 민중이다』에 이어 식목도감에서는 볼 수 없는 작가만의 나무 이야기가 적혀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집 앞에 누군가가 심어 놓은 나무에서 도로변의 플라타너스까지, 내 주변에 있지만 미처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나무들에 나만의 이야기를 담아볼 것을 권해본다.

“많은 나무들이 당대 권문세도가의 상징으로 광영의 세월을 함께하는 동안 민중의 삶 언저리 어디에서나 조연으로 묵묵히 녹아 있던 잡목 붉나무. 만성이 된 해소가침병을 앓으면서도 병원에는 가지 않겠던 어머니께 효험이 있을까 하여 궁여지책으로 뒷산에서 꺾어다 달여보던, 내게는 가슴 아픈 기억이 있는 나무다.” (71쪽)

• 추천자: 김혜린(국립중앙도서관 사서)

고주환

목수인 부친의 영향으로 나무에 대한 남다른 경험과 관심 속에 성장했다. ‘민초 작가이자 토속식물의 어원연구가’를 자처하며 풀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민중의 생활 속 눈높이로 풀어낸 첫 번째 묶음인 『나무가 민중이다』(2011)가 호평을 받았다. 숲 해설가로도 활동하면서 향후 치악산자락의 자연림과 역사 유적 등을 연계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구상하며 주말마다 고향의 산야를 누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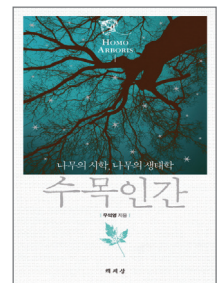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우리 나무의 세계. 1-2
박상진 | 2011



사랑하면 보이는 나무
허예선, 허두영 | 2012



수목인간
우석영 | 2013

달팽이 더듬이 위에서 티격태격, 와우각상쟁

책 표지의 그림이 재미있다. 두 사람이 달팽이 더듬이 위에 어정쩡하게 서서 험상궂은 표정으로 서로의 먹살을 잡고 있는데, 금방이라도 상대방을 한 대씩 칠 기세다. 옛 선현들은 달팽이를 보고 더듬이가 서로 찌려보고 다투는 것으로 생각해, 별 것도 아닌 것을 두고 제 집안끼리 다투는 뜻인 '와우각상쟁'의 표현을 만들었다. 저자는 우리 속담과 고사성어, 관용구의 유래를 밝히며 그 속에 담긴 생물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시선으로 생물을 조명한다. 옛 현인들이 남긴 아름다운 우리말이 점점 잊혀져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정서가 담긴 소중한 옛말의 참 뜻을 일깨워주는 귀한 책이다. 우리말에 담긴 뜻과 생물의 신비함뿐만 아니라 선현들의 지혜와 재치까지 가슴 깊이 느껴보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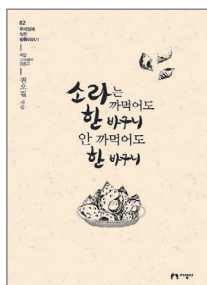
"학질은 흔히 말라리라고 부르는 병으로 웬만해서는 잘 낫지 않아 애를 먹이는 까다로운 병이다. 그래서 거북하거나 곤경에 처해 진땀을 뻘 때나 어렵고 힘든 일을 간신히 피하거나 면했을 때 '학질 떼다.'라 하고, 같은 뜻으로 '학을 떼다.'라고도 한다. 이렇게 잘 낫지 않는 병을 이겨 냈거나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치근거리는 스토커 연인과 드디어 헤어졌을 때도 '야, 나 이번에 학질 떼다.'고 한다." (89쪽)

• 추천자: 김혜린(국립중앙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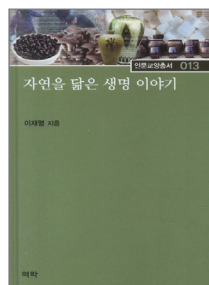
권오길

오묘한 생물세계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며 일반인들에게 대중과학의 전파자로 신문과 방송에서 활약하고 있다. 강원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강원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강원일보》에 10년 넘게 '생물이야기' 칼럼을 연재하며 1994년 『꿈꾸는 달팽이』를 시작으로 『생물의 죽살이』, 『개논과 틀니』, 『생명교향곡』 등 40여 권의 책을 집필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소라는 까먹어도 한 바구니
안 까먹어도 한 바구니
권오길 | 2013



자연을 담은 생명 이야기
이재열 | 2012



(우리 땅) 생물 콘서트
한영식 |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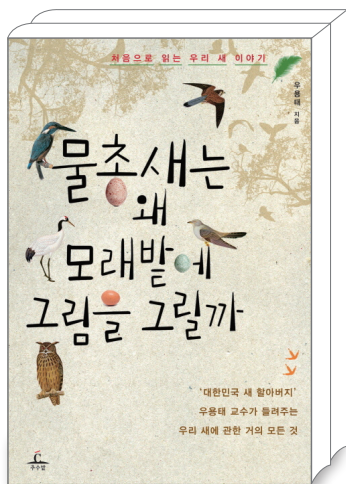
권오길 지음 | 지성사 | 2013

댓글

인터넷 신조어와 한글 파괴 현상이 범람하는 요즘 아름다운 우리말과 더불어 생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재밌는 책입니다. 본문에서 인용된 학질에서 유래한 '학을 떼다'라는 표현 그동안 잘 모르면서 써왔지요. 이처럼 우리 생활에 밀접하면서 아리송했던 지식을 쉽게 표현해서 시종일관 재미를 선사합니다. 옛 현인의 풍자 속에 재치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버나드(zuk****)

물총새는 왜 모래밭에 그림을 그릴까



우음태 지음 | 추수밭 | 2013

한 지역에서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새를 ‘텃새’라 하고, 번식지와 월동지에 따라 이동하는 새를 ‘철새’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철새에는 기러기와 제비가 있는데, 뺨꾸기와 피꼬리, 뜰부기는 철새일까 텃새일까? 이 책은 ‘대한민국 새 할아버지’라 불리는 저자가 풀어놓는 새 이야기로,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18종의 새들에 관한 전설, 속담, 생태 등을 담고 있다. 설날 노래에 등장하는 반가운 까치, 건망증으로 속담에 언급되는 까마귀,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울음소리가 아름다운 피꼬리 등 흔하지만 정작 잘 몰랐던 새들에 대한 친근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매가 먹이를 추격해 잡으려면 속도가 뛰어나야 하는데, 공중에서 급강하할 때의 최고 속력은 시속 400킬로미터가 넘는다고 하며 이는 생물이 낼 수 있는 속력의 한계라고 한다.”

(157쪽)

• 추천자: 이정화(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우음태

1933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물총새가 모래밭에 그림을 그려서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는 이웃집 어른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 팔십 평생을 바보 같은 호기심으로 새를 찾아다니며 우리 새 연구에 헌신했다. 그동안 조류의 분포 및 생태에 관한 연구 논문을 다수 저술했으며, 새를 좋아하고 새에 관해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해 『부산의 새』, 『새 이름의 유래와 잘못된 이름 바로잡기』, 『최신 한국 조류명집』 등을 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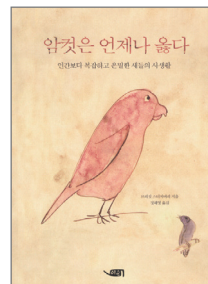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제주 탐조 일기
김은미, 강창완 | 2012



새는 고향이다
박진관 | 2011



암컷은 언제나 옳다
브리짓 스테치버리 | 2011

사이언스 소믈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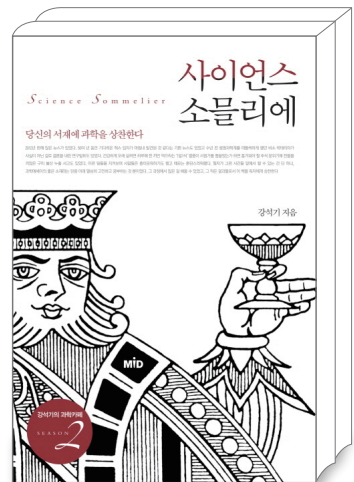
58
<<<<<<<

지난 해 출간된 에세이집 『과학 한잔 하실래요?』의 속편으로 선보이는 책. 와인을 관리하고 추천해 주는 소믈리에처럼 저자는 우리가 평소 궁금해 했던 사실이나 소소하게 스쳐 지나간 일들 중 과학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소재를 선별해 쉽게 설명해 준다.

다음 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소재의 글들을 읽다 보면 최신 과학 이슈와 풍부한 과학 상식을 쌓을 수 있다. 아울러 2012년 세상을 떠난 과학자들의 삶과 업적을 부록으로 소개하면서 그들이 남긴 과학적 성과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우리 내부의 삶과 외부의 행동은 스스로 접근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생물학적 혼합물에 의해 조종된다. - 데이비드 이글먼, 『인코그니토』” (49쪽)

• 추천자: 고정주(국립중앙도서관 사서)



강석기 지음 | MID(엠아이디) | 2013

강석기

서울대학교에서 화학을, 동 대학원에서 분자생물학을 공부했다. LG생활건강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동아사이언스》과학 전문 기자로 일했다. 지금은 과학 전문 작가로 전업하여 《더사이언스》, 《사이언스타임즈》 등에 과학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SERICEO에서 〈일상의 과학〉이라는 동영상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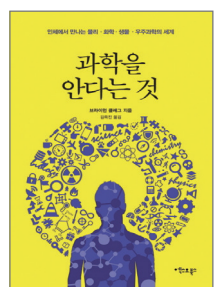
2012년 출간한 저서 『과학 한잔 하실래요?』는 출간 즉시 교육과학기술부 우수 과학 도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권장 도서로 선정됐다.

덧글

과학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바로 '어렵다, 딱딱하다'이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과학이 새로우면서도 참 쉬운 학문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많은 사람이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 필요한 생활과학 지식을 알기 쉽게 소개하였다. 특별한 과학적 지식이 없어도 평이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비행소녀(qustj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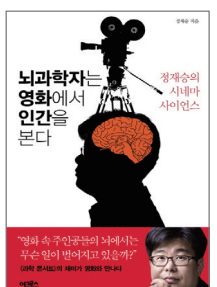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과학을 안다는 것
브라이언 클레그 | 2013



왜 시간은 앞으로만 갈까?
조엘 레비 | 2013



뇌과학자는 영화에서 인간을 본다
정재승 | 2012



길버트 월드바우어 지음 | 김소정 옮김 |
한울림 | 2013

욕망의 곤충학

인간 삶에 영향을 준 곤충들

1569년, 포르투갈의 산투스 신부는 작은 새가 교회 창문으로 날아들어 제단에 놓은 양초를 쪼아 먹고 갔다는 글을 남겼다. 이 양초는 밀랍으로 만들어졌다. 밀랍은 아직 어려서 벌집에만 머무는 일벌 중 일부가 쉬면서 섭취한 당분으로 만든 액체 기름이다. 밀랍으로 만든 육각형 방에서 꿀벌은 유충을 기르고 꽃가루와 꽃꿀을 저장한다.

밀랍 양초를 먹었다는 문제의 새는 바로 검은목벌꿀길잡이새(학명: 인디카토르 인디카토르)이다. 이 새는 야생 벌집을 발견하면 큰 소리로 울부짖어 사람이나 동물의 시선을 끌어 벌집이 있는 곳으로 안내한다. 그 후 그들이 벌집을 잘라 꿀을 가져가면, 새는 남은 벌집을 먹는다. 이 새는 밀랍을 먹는 몇 안 되는 동물 중 하나이다.

1000년이 넘는 동안, 사람들은 밀랍을 사용하는 여러 방법을 생각해 냈다.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고 관을 봉하는데 쓰였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벽화에 윤을 내거나 배가 가라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오늘날에도 밀랍은 유용하다. 치과에서 치아의 본을 뜰 때나 틀니를 만들고 금으로 치관을 만들 때 밀랍 성분이 쓰이며, 피부 크림, 가구 광택제, 구두약, 탄약 등에도 밀랍이 들어간다. 꿀벌 덕분에 우리는 달콤한 꿀 뿐만 아니라 밀랍까지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 물질문명에 기여해 온 곤충들

이렇게 인류와 함께하며 물질문명에 기여한 곤충들은 생각보다 많다. 검정파리 중에서 구리금파리와 검정금파리 구더기는 죽은 동물의 사체를 순환시킴으로써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상처 부위에서 죽은 살을 떼어 내는 괴사 조직 제거술에도 유용하게 쓰인다. 외과용 메스로 죽은 조직을 제거할 때는 불가피하게 산 조직도 함께 잘라 내야 하지만 구더기는 건강한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죽은 조직의 세포만을 먹기 때문이다.

옷감의 여왕으로 불리며 최고의 가치 있는 물건으로 뽑히는 비단은 누에나방이 분비하는 가는 실로 만들어진다. 수천 년 전, 비단 짜는 법을 알아낸 중국은 그 재료와 방법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여러 나라에 비단을

수출했다. 6세기 동로마 제국의 명을 받은 페르시아 수사가 지팡이 속에 누에나방 알을 몰래 숨겨와 동방의 비밀은 밖으로 새어 나오게 되었고, 이것이 유럽 양잠의 모태가 되었다.

이외에도 깍지벌레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붉은색 염료를 제공하고, 무당벌레는 진딧물을 먹어 농작물을 보호한다.

| 곤충, 그들의 삶의 이유

곤충은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옆에 가까이 존재하는 생물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찮은 미물로 치부하고 그들이 생존해 온 역사나 인간 삶에 끼친 영향력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인간의 삶에 곤충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며, 작은 곤충 하나도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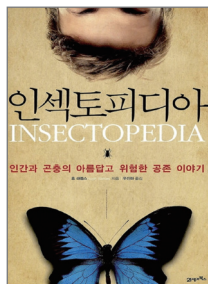
이 책은 곤충들의 생태학적 특징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 뿐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 속 신화 등을 쉽고 흥미롭게 담았다. 곤충은 인류문명의 진보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아마도 이 책을 읽고 난 후에는 친숙하고 소중한 존재로 느껴질 것이다.

• 추천자: 고정주(국립중앙도서관 사서)

길버트 월드바우어(Gilbert Waldbauer)

일리노이 대학교 곤충학과 석좌 교수이다. 주요 저서로 『곤충이 주는 영감, 나쁜 벌레가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Insights from Insects: What Bad Bugs Can Teach Us)』, 『곤충을 알려 드립니다(The Handy Bug Answer Book)』, 『연못가 산책, 물 위와 아래에 사는 곤충들(A Walk around the Pond: Insects in and over the Water)』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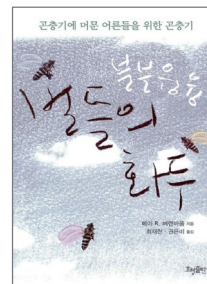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인섹토피디아
휴 래플스 | 2011



곤충의 밥상
정부희 | 2010



벌들의 화두
메이 R. 베렌바움 | 2008

자연에는 이야기가 있다

생명 환경 공존에 대한 생각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자연 속에서 다른 개체 및 사물들과 끊임없이 순환하고 교류한다. 자연과 그 일부인 우리 자신이 지닌 신비와 수수께끼, 그 놀라움과 아름다움을 알기 위해 때론 지식이 필요하다.

이 책은 오랫동안 환경과 과학 분야에서 생명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의 글을 써온 환경전문기자 조홍섭이 들려주는 흥미롭고 감동적인 자연의 이야기이다. 저자는 동물행동, 생태학, 진화론, 자연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 세계에 발표된 과학자들의 최신 연구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연과 인간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

I 진화의 수수께끼

뼈꾸기는 알을 남의 둥지에 넣는 '탁란' 습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새끼 기르는 노력을 면제 받음과 동시에 여기저기 알을 분산시킴으로써, 사고로 새끼를 전부 잃는 위험을 줄이는 이점이 있다. 제비가 인가로 찾아와 실내에 둥지를 틀게 된 것도 뼈꾸기 탁란을 피해서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탁란은 진화가 낳은 행동일 뿐 도덕적으로 비난할 일이 아니다.

물속에 손발을 오래 담그면 주름이 잡히는 이유에도 진화적 의미가 있다. 주름진 손은 젖은 물체를 미끄러트리지 않게 쥐는데 팽팽한 손보다 훨씬 유용하다는 것이다. 쭈글쭈글한 손가락은 습지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던 우리 조상이 남긴 유산인 셈이다.

I 자연을 흉내내다

최근에는 나뭇잎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을 흉내내 햇빛으로 밥을 만들자는 '인공광합성'이 연구되고 있다. 이른바 자연의 형태나 움직임을 모방해 우리 사회에 활용하는 '생물모방학'이라는 학문 분야도 있으며, 전자공학뿐 아니라 로봇, 신소재, 항공 등 첨단 분야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조홍섭 지음 | 김영사 | 2013

대결

생명과 환경의 변화들이 우리 생활과 서로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인구밀도가 높으면서 급격한 산업화를 겪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자연과의 공존을 위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해줍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무지와 편견을 깨뜨리는 지적 쾌감을 넘어, 자연과 우리의 관계를 성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아르테미스(arong***)

우리는 이처럼 아낌없이 주는 무한한 창의력을 가진 자연으로부터 배우며 살아간다. 따라서 책을 읽다 보면 “자연과 인간을 구분하고 그 둘을 대립시키는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사람과 자연은 공존하지 못한다.”는 저자의 주장에 공감하게 된다.

I 자연과 공존의 의미 되새겨

살아있는 생명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생명, 환경, 공존의 의미와 함께 우리 후손과 지구의 미래까지 숙고해 볼 수 있는 흥미롭고 귀중한 경험을 선사한다. 아울러 우리가 무관심했거나 오해했던 생물의 놀라운 진화와 행동들의 사례를 통해 인간중심주의와 종족차별의 문제를 깨닫게 한다. 또한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생명과 환경의 변화들이 우리 삶과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자연계에서 포식자는 어리거나 늙은 개체를 주로 잡아먹는다. 반면 사람은 어획이든 사냥이든 가장 큰 성체부터 잡는다. 자연계 최강의 포식자인 인간의 이런 독특한 취향은 자연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210쪽)

• 추천자: 김희장(국립중앙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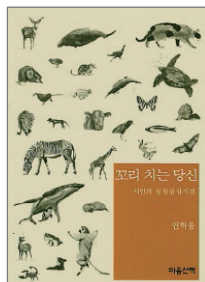
조흥섭

환경과 과학 분야에서 30년 가까이 통찰력과 이슈가 있는 기사와 칼럼을 써온 우리나라 환경전문 기자 1세대이다. 생태보전, 원자력 발전, 4대강 개발 등 1980년대 이후 급부상하는 환경 현안들을 취재하여 환경문화상 언론대상을 받았다. 《한겨레신문》 환경생태 전문 웹진 ‘물바람 숲(ecotopia.hani.co.kr)’을 운영하면서 생태학, 기후변화, 자연사 등 인간과 자연을 성찰하는 글을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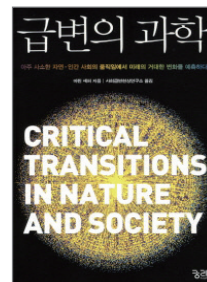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식물은 위대한 화학자
스티븐 해로드 뷔흐너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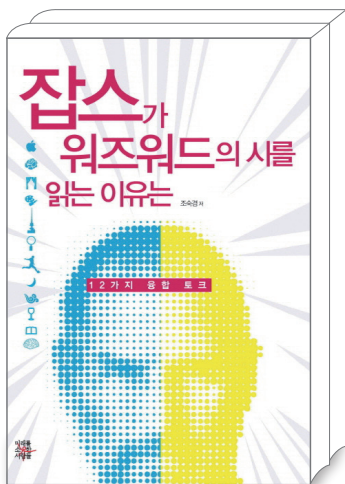


포리 치는 당신
권혁웅 | 2013



급변의 과학
마틴 셰퍼 | 2012

잡스가 워즈워드의 시를 읽는 이유는



조숙경 지음 | 미래를소유한사람들 | 2013

아무렇게나 물감을 뿌려놓은 것 같은 잭슨 폴락의 그림에서 우리는 자연 이론 프랙탈을 발견한다. “과학과 예술은 거칠게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실제로 과학과 예술은 서로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프랑크 작가 폴 발레리의 말처럼 과학과 예술이 인간에게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이처럼 서로 다른 분야나 학문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12가지 사례를 소개하며 융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움베르트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에서는 도서관이 과학과 만나 어떻게 융합되고 변화하는지, 연극 〈산소〉와 〈코페하겐〉에서는 과학과 연극이 어떻게 기존의 연극이 갖는 한계를 뛰어 넘으며 과학의 문화적 실용성을 확인 시켜 주는지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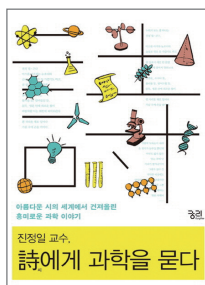
“과학자, 예술가, 문학자, 철학자 등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만나 교류하면서 놀랍고도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을 두고 경영학자 프란스 요한슨은 ‘메디치 효과’라고 불렀다.” (11쪽)

• 추천자: 이정화(국립중앙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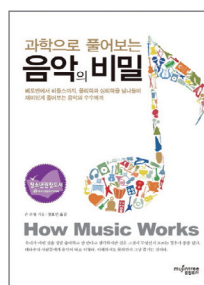
조숙경

전라도 농촌에서 태어나 자연과 더불어 살았다.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 대학교 킹스 칼리지(King's College of London) 과학사·과학철학과에서 석사를,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과학사·과학철학과에서 과학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표 저서로 『과학기술문화: 소통의 역사와 실천』이 있으며, 공저로 『Science Communication in the World』, 『Partager la Science』, 『노벨과학상』, 『과학사』, 『과학의 역사』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진정일 교수,
시에게 과학을 묻다
진정일 | 2012



(과학으로 풀어보는)
음악의 비밀
존 파웰 | 2012



미술, 과학을 탐하다
박우찬 | 2011

꿀떡, 한 입의 과학

인간의 소화기관에 관한 궁금증을 여러 가지 일화를 곁들여 설명한 책이다. 왜 사람들은 바삭한 음식을 좋아할까? 인간에게는 파괴 행위를 통해 스트레스를 방출하려는 습성이 있기에, 바삭한 음식을 와작와작 부식 먹을 때 즐거움을 느낀다. 또한 우리가 아삭한 식감에 열광하는 것은 음식이 신선하다는 증거임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 몸속을 여행하는 기분으로 읽으면, 저자의 바람처럼 “으웁, 역겨워라고 말하는 대신, 역겨울 줄 알았는데 기대보다 재미있게” 소화기관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소화기관에 얽힌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가득한 책이다.

“너무 많이 먹어서 위가 터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전에 최악의 사태를 막으려고 반사 신경이 발동하기 때문이다. (중략) 건강한 위는 진짜 위험해지기 전에 알아서 내용물을 위쪽으로 밀어 올려 부담을 덜어 낸다.” (186쪽)

• 추천자: 김희장(국립중앙도서관 사서)

메리 로치(Mary Roach)

동물원의 홍보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저널리스트로서 《뉴욕 타임스》, 《뉴 사이언티스트》,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에 기고한 글들이 호평을 얻었다. 2012년 하버드 소사이어티이 루시디상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 『인체 재활용(Stiff)』, 『스푸크(Spook)』, 『몽크(Bonk)』, 『우주 다큐(Packing for Mars)』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미각의 지배
존 앨런 | 2013



우주 다큐
메리 로치 | 2012



인체 재활용
메리 로치 | 2010



메리 로치 지음 | 최가영 옮김 |
을유문화사 | 2014

덧글

음식에 대한 심리적인 것을 알게 되면서 궁금한 점이 해결된 책이다. 무엇보다 재미있어서 술술 읽었다. 마치 몸속을 탐험하는 느낌으로 읽으니까 더욱 흥미로웠다. 소화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인체가 얼마나 신기하고 신비로운지 새삼 다시 느껴본다.

놀리리키마틴(rosicruc****)

로봇 다빈치, 꿈을 설계하다



데니스 홍 지음 | 샘터사 | 2013

데니스 홍은 요즘 방송과 각종 강연 등을 통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봇 공학자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시각장애인 자동차 대회에 참석하게 되고 그로 인해 외부의 압력과 위협에 시달리게 된다. 하지만 자신들이 개발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시각장애인의 미소를 보고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 즉 ‘인간을 위한 기술의 힘’을 깨닫게 된다.

책 속에는 그가 만든 로봇들과 그 로봇들을 만들게 된 사연도 소개되어 있다. 또한 교수인 그의 교육철학도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저자가 자신의 꿈을 어떻게 찾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의 열정과 창의력의 근원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이다.

“저항이 있다는 것은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증거지.” (54쪽)

• 추천자: 유미예(국립중앙도서관 사서)

데니스 홍(Dennis Hong, 홍원석)

《파롤러사이언스》가 선정한 젊은 천재 과학자 10인.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를 개발했다. 현재 미국 버지니아텍 교수이자 로봇 공학자로 활약하고 있다. 퍼듀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버지니아텍에서 로봇 연구소 ‘로멜라(RoMeLa)’를 설립, 자연의 원리와 다양한 학문을 융합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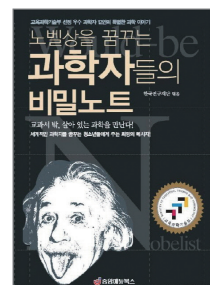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마음의 아이들
한스 모라벡 | 2011



꿈을 이뤄드립니다
이채영 | 2012



과학자들의 비밀노트
한국연구재단 | 2012

(소리 없는 살인자, 혈압·고혈당·고지혈증 잡는) 식사순서혁명

이 책은 '무엇을 먹는가'보다 '어떻게 먹는가'에 주목한다. 실천하기 힘든 식이요법을 극복하기 위해 저자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식사순서요법'을 연구했다. '식사순서요법'은 지금까지 먹던 것을 그대로 먹되 순서만 바꾸는 것으로 먼저 채소를 먹고, 다음으로 단백질 반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이나 탄수화물을 먹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1,0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치료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실제로 실천한 사람들이 건강해진 경험담을 담고 있다.

"식사순서요법은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시작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인 원칙 4단계(1단계 무조건 채소부터 먹기, 2단계 채소 다음은 단백질 반찬 먹기, 3단계 밥은 마지막에, 4단계 5분 이상 꼭꼭 씹으며 먹는다)를 따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76쪽)

• 추천자: 김희장(국립중앙도서관 사서)

가지야마 시즈오(梶山静夫)

교토부립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교토시립병원 당뇨병·대사내과부장 등으로 근무 후 2004년 가지야마 내과 클리닉을 개업했다. 실천하기 어려운 식이요법 대신 식사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혈당치를 개선하는 '식사순서요법'을 고안했다. '식사순서요법'은 NHK방송 《다메시테 갓 텐》,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지자이신문》 등 각종 매체에 소개되며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마이 사에코(今井佐恵子)

도시샤여자대학 가정학부 식물학과를 졸업하고 니시진병원에서 관리 영양사로 근무했다. 현재 오사카부립대학 지역보건학회 종합재활치료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가지야마 내과에서 가지야마 시즈오 원장과 함께 당뇨병 식사법의 지도 연구를 하며 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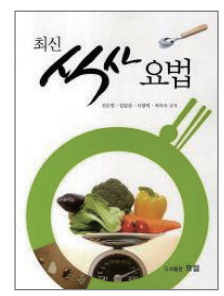


가지야마 시즈오, 이마이 사에코 지음 | 이소영 옮김 | 중앙북스 | 2013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음식중독
케이 셰퍼드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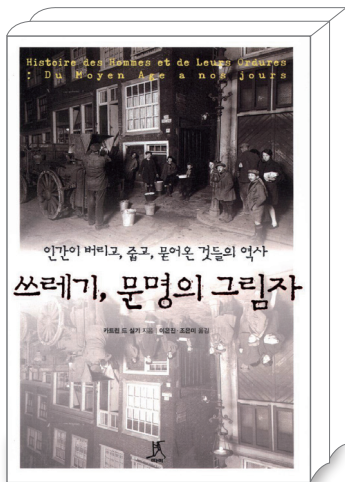


(최신) 식사요법
권순형 등 | 2013



(혈액형 사상 체질별) 백년밥상
정동원 | 2013

쓰레기, 문명의 그림자



카트린 드 실기 지음 | 이은진, 조은미 옮김 | 다비 | 2014

댓글

이 책을 통해서 더럽고 불필요하다고만 생각했던 쓰레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쓰레기와 어떻게 공존하며 살아야할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교훈적인 책이다. 자녀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poohgel(qwertyu****)

프랑스 공공쓰레기처리 전문가인 저자는 수많은 고증을 거친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레기를 조명한다. 쓰레기가 고가의 패션 상품으로 변신하는 현장부터 막대한 이권이 개입하는 거대 산업으로 발전된 상황까지, 다양하고 재미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풍요로움은 더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낸다. “가장 좋은 쓰레기는 존재하지 않는 쓰레기”라는 저자의 말처럼, 책을 통해 인간과 쓰레기가 평화롭게 공존할 방법을 생각해 보길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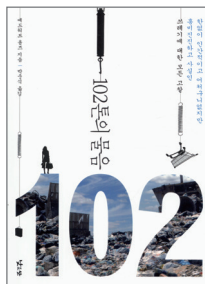
“역설적이게도 생활쓰레기처리 시스템의 발전은 일회용 상품이나 포장용기들에 탈출구를 마련해줌으로써 오히려 쓰레기양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략) 따라서 지금 이루어지는 재활용의 발달 또한 쓰레기 증가의 주범인 성장 지향적 경제체계를 합리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재활용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340쪽)

• 추천자: 김혜린(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카트린 드 실기(Catherine de Silguy)

농학 전문가로 프랑스의 여러 농업 전문 기관과 ‘환경과 에너지 관리원(ADEME)’에서 연구했다. 환경보호와 관련된 영역, 특히 유기농, 바이오매스 에너지(생물 에너지), 공공쓰레기처리 분야의 전문가이다. 지은 책으로 『유기농업』(1991)과 『자연의 지혜와 인간의 광기』(2005)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102톤의 물음
에드워드 훈즈 | 2013



사라진 내일
헤더 로저스 | 2009



(너무 늦기 전에 알아야 할)
물건 이야기
애니 레너드 |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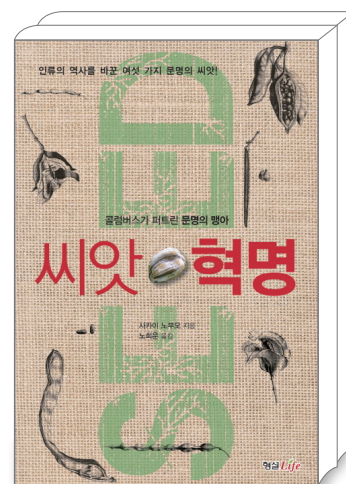
씨앗 혁명

인류의 역사를 바꾼 문명의 씨앗. 표지에 있는 문장이 호기심을 자아낸다. 한 톨의 씨앗이 자라 우람한 나무가 된다. 인류가 이룬 문명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바로 그 문명의 씨앗은 무엇일까. 이 책은 신대륙의 원산지인 식물 중 사회를 지탱하는데 크게 공헌한 감자, 고무, 카카오, 고추, 담배, 옥수수 등 여섯 가지 식물의 역사를 상세하게 풀어내고 있다.

신대륙에서 전래된 이 식물들은 유럽으로 전파되어 유럽 문명과 세계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쳤으며, 나아가 인류 역사를 바꾸었다.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섯 가지 식물들의 이야기와 이 식물들이 역사와 문명의 발전을 이루는 데에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신대륙에서 전래된 식물들이 없었다면 현대의 문명이나 식문화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6쪽)

• 추천자: 김희장(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시카이 노부오 지음 | 노희운 옮김 |
형설라이프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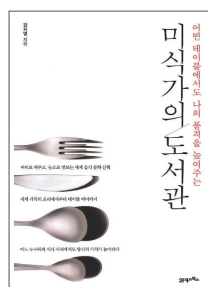
시카이 노부오(酒井伸雄)

1935년 카나가와현 출생. 1958년 도쿄대학 농학부 농예화학과를 졸업했다. 메이지제과 식료 개발 연구소장 등을 거쳐 시코쿠메이지 사장을 역임했다. 식문화사가로 저서에는 『일본인의 점심』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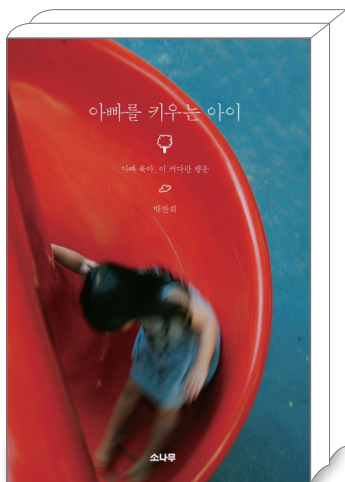
마을로 간 인문학
김영선, 이경란
당대 | 2014



미식가의 도서관
강지영
21세기 북스 | 2013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에게 물어라
랍비 조셉 텔루슈킨
북스닷컴 | 2013



박찬희 지음 | 소나무 | 2013

아빠를 키우는 아이

아빠 육아, 그 소중한 경험

‘프렌디’란 단어를 아십니까? 프렌디는 Friend와 Daddy의 합성어로 ‘친구 같은 아빠’를 뜻한다. 요즘 아빠와 함께 아이들이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이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친구 같은 아빠’를 위한 프로그램과 마케팅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으로 과거에 비해 아빠들의 육아 참여도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주변에 육아에 협조하는 아빠는 있어도 육아를 전담하는 아빠는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11년간 일한 박물관 큐레이터 일을 접고 딸아이의 육아에 전념한 이 책의 저자는 보기 드문 아빠이다.

I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아빠

육아휴직 중이던 아내의 복직으로 딸을 봐줄 사람이 없게 되자 저자는 직장을 그만둔다. 딸이 자라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컸다. 저자는 육아를 하면서 아이가 처음 두 발로 걷는 순간, 처음 변기에 오줌 누는 순간처럼 작지만 소중한 시간을 감격스러워 한다.

그러나 육아가 순탄치만은 않았다. 해도 티 나지 않고 하지 않으면 금방 티 나는 게 집안 살림이다. 저자는 아내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고 자괴감과 사회적 단절감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아내를 이해하게 된다.

생각해 보니, 화의 근원은 자신이 아내에 비해 손해 보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의식 때문이었다. 이처럼 육아를 통해 상대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흥미롭다.

부부의 자녀 교육에 대한 교육관도 인상적이다. 이들은 아이에게 강요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준다. 일례로 똥오줌 가리기에 대한 저자의 단어 인식부터 남다르다. 똥오줌을 가리는 일은 ‘배변 훈련’ 또는 ‘배변 연습’이라고도 한다. 저자는 배변 훈련보다는 연습이라는 말을 선호하는데 이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부모와 아이의 역할을 바라보는 눈에 따라 다르다. ‘훈련’은 누구를 어떻게 하도록 만드는 일로 여기에서 아이는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가 된다. 반면에 ‘연습’의 주체는 아이로 부모는 옆에서 도와주지만 하면 된다.

I 한 아이와 아빠의 성장 보고서

저자는 딸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갖는다. 4대강 사업, 핵발전소 등 환경에 관한 저자의 시선이 책 속에 잘 담겨있다. 권말에는 딸아이와 함께한 일상생활 사진이 실려 있다. 산책하는 모습, 이 닦기 싫다며 우는 아이의 모습, 어린 새처럼 밥 먹는 모습 등 글 속에서 상상하던 모습들을 사진으로 볼 수 있다.

책을 통해 독자는 저자가 육아를 하며 느꼈던 솔직한 감정들을 엿볼 수 있다. 저자에게 육아는 아이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 속에 영긴 실타래를 풀어가는 기회였다. 세상의 모든 아빠들 특히, 아이의 성장 모습을 가까이서 함께 하기를 고민하는 아빠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육아 서적에서 말하는, ‘화내지 않고 말하기’에서 그 대상은 눈 앞에 보이는 내 아이이기도 하지만 내 안의 어린 아이이기도 하다. 내 안의 어린 아이를 격려하고 보듬어줄 때 눈앞의 내 아이에게도 화를 덜 내고 격려하고 보듬어 줄 수 있다.” (218쪽)

• 추천자: 유미예(국립중앙도서관 사서)

박찬희

초등학교 이후 써본 적 없던 일기를 딸 덕분에 《여성신문》에 ‘마흔하나 초보 아빠의 육아 일기’라는 제목으로 네 달 동안 연재했다. 이 일을 계기로 아이와 부대끼며 살아가는 생활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어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와 부모는 함께 큰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부모가 자신을 먼저 되돌아 봐야 한다고 믿게 되었으며, 놀기 위해 세상에 온 아이와 마음을 다해 함께 놀면 가정의 평화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각각 역사와 한국미술사를 공부한 지은이는 오랜 시간의 숨결이 깃든 곳들을 찾아다니며 느꼈던 감동을 글과 사진에 담고 있다. 그리고 딸과 함께 꼭 가고 싶은 몽골의 매력을 소개한 몽골 여행 이야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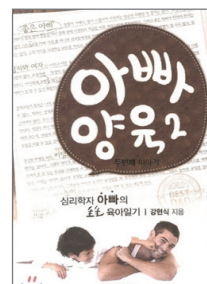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아버지의 성: 아빠가 된 남자를 탐구하다
EBS <아버지의 성> 제작팀 |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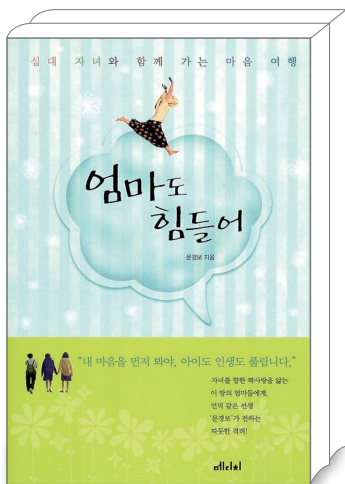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
서천석 | 2013



아빠양육: 심리학자
아빠의 생생 육아일기. 2
강현식 | 2012

엄마도 힘들어



문경보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13

사춘기에 접어들며 아이들은 신체적, 정신적 변화로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된다. 착하고 바르기만 하던 아이들은 조금씩 반항하며 기존과 다른 행동을 보이고 엄마들은 그러한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토로한다. 하지만 저자는 이렇게 힘겨운 상황이 아이들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엄마의 과거 속에 숨어있던 내면의 상처가 현재 자녀와의 관계 속에 나타나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고등학교 국어 교사이자 전문 상담사인 저자가 실제 상담한 19가지 사례를 소개하며 엄마의 마음 속에 있는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엄마들이 자주 묻는 '즉문즉설'을 실어 엄마와 자녀가 함께 읽으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부모와 자녀는 늘 함께 있을 수는 없는 사이입니다. 부모의 품 안에서 잘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가 선택해야 할 길일 것입니다." (179쪽)

• 추천자: 고정주(국립중앙도서관 사서)

문경보

1966년 제주 출생. 동국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하여 시 동인 '태태'의 일원으로 활동. 국어 교사로 근무하면서, 희곡 잡지 《희곡문학》의 창간에 관여했고, 레크리에이션 강사, 청소년 적십자 지도 교사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학생들과 함께 생활했던 이야기를 『흔들리며 피는 꽃』, 『너는 나의 하늘이야』, 『봄을 앓는 아이들』 등 세 권의 교단 수필로 엮어냈다. 지금은 대광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인 동시에 상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사춘기로 성장하는 아이
사춘기로 어긋나는 아이
강금주 | 2013



아이는 사춘기
엄마는 성장기
이윤정 | 2010



(최성애·조벽 교수의)
청소년 감정코칭
최성애, 조벽 | 2012

요리를 욕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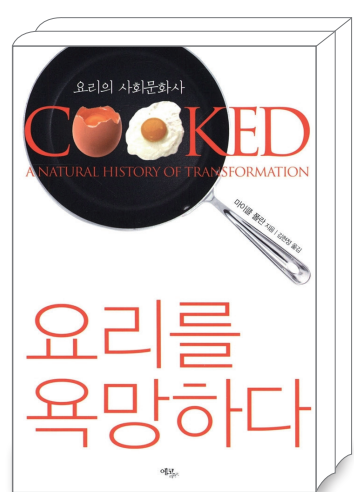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많지만, 식사 준비 시간은 정작 하루 27분에 불과하다고 한다. 저자는 이처럼 요리를 덜 하게 될수록 요리에 관심이 높아지는 현상을 ‘요리의 역설’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자연 상태 물질이 어떻게 요리라는 문화적 형태로 변하는지 불, 물, 공기, 흙의 네 가지 요소로 설명한다. 불의 창조물인 통돼지구이부터 냄비가 발명된 이후 가능하게 된 물의 요리, 공기를 음식으로 끌어들이는 빵, 모든 발효를 일으키는 흙의 미세한 효모 작용까지, 요리 발달사를 흥미롭게 풀어놓는다.

음식 사진 하나 없는 두꺼운 책이 다소 지루할 수 있으나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던 요리에 담긴 의미를 깨닫게 한다.

“요리는 우리에게 끼니뿐만 아니라 적절한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함께 먹는 관습이 만들어진 것이다.” (16쪽)

• 추천자: 김희장(국립중앙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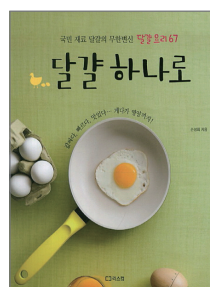


마이클 폴란 지음 | 김현정 옮김 | 에코리브르 | 2014

마이클 폴란 (Michael Pollan)

미국의 작가이자 저널리스트, 환경운동가, 뛰어난 정원사이자.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로 《뉴욕 타임스 매거진》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잡식동물의 딜레마』는 캘리포니아 북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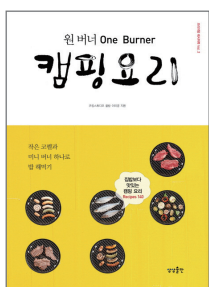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달걀 하나로
손성희 | 2013



소스 스쿨
최수근, 성태종 | 2013



(원 버너) 캠핑요리
이미경 | 2013

덧글

요리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일만은 아니라는 걸 가르쳐준다. 어릴 때 한참 놀이터에서 흙과 함께 텅굴다가 해가 질 무렵 집에 돌아가면 집안 가득 채우던 된장찌개 냄새는 단순한 된장찌개가 아니었다. 배고픔을 채울 수 있다는 단순한 기쁨부터 시작해서 엄마가 집에 있다는 안도감, 이제 모든 식구가 둘러앉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요리를 욕망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때 그 기억처럼 어떤 ‘완벽한 순간을 만든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위한, 그리고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요리다운 요리’를 해보고 싶다.

페라(zzaeraz****)

포크를 생각하다



비 윌슨 지음 | 김영남 옮김 |
까치글방 | 2013

이 책은 인류가 처음 토기를 빚어 사용했던 선사 시대부터 오늘날까지의 다양한 조리 기술과 도구들의 발명에 따른 ‘식탁의 역사’를 조명하고 있다. 음식 전문가인 저자는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면서 수많은 자료를 섭렵하고 인용한다. 식탁을 둘러싼 갖가지 기술과 우리가 먹는 음식 종류와 조리 방식을 결정해 온 냄비·불·칼·계량 도구·식사 도구 등의 발명에 대해 알려준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음식은 누군가의 수고로 다듬고, 찌고, 굽고, 데쳐야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진화, 과학, 문명, 노동, 혁명, 착취 등 여러 이야기의 역사가 함께한 부엌 도구들의 변화가 우리의 몸과 개개인의 식성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음식을 먹는 방식이나 음식에 대한 우리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다.

“사실 서양의 식사 예절은 젓가락이 한 손으로 너끈히 해내는 일을 두 손으로, 그것도 덜 원활하게 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245쪽)

• 추천자: 김희장(국립중앙도서관 사서)

비 윌슨(Bee Wil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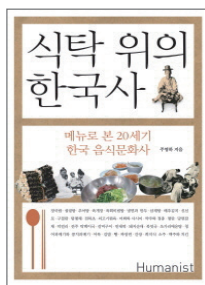
《선데이 텔레그래프》에 매주 ‘부엌의 사색가’라는 음식 칼럼을 쓰고 있다. 그 칼럼으로 영국 음식전문작가협회가 뽑은 “올해의 음식 저널리스트”에 세 차례 선정되었다. 음식 전문 작가가 되기 전에는 케임브리지의 세인트존스 칼리지 역사학과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BBC 방송의 요리 경쟁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마스터 셰프》에 출연하여 준결승까지 진출하기도 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댓글

우리가 늘상 먹고 접하는 음식과 요리에 관한 이야기가 짜임새있게 담겨 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동서양의 식사 문화도 소개하고 있어서 식사 문화에 대해 알고 싶은 분께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양한 식사 문화와 도구의 역사를 즐겁게 만나볼 수 있는 책이다.

달빛여신(crane****)



식탁 위의 한국사
주영하 | 2013



커피, 설탕, 차의 세계사
이운섭 | 2013



아이스크림의 지구사
로라 B. 와이즈 | 2013

하이라인 스토리

뉴욕 화물 유통의 생명선 역할을 하던 화려한 과거를 뒤로하고 철거 위기에 놓인 하이라인. 전문 지식도 가진 것도 없는 두 남자, 조슈아와 로버트는 ‘하이라인 친구들’을 결성해 철거를 막고자 한다. 이들의 열정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결국 10년 만에 하이라인은 허드슨 강과 도심을 조망할 수 있는 하늘 공원이 된다. 30년 동안 버려졌던 맨해튼 중심부의 고가 철도가 매년 200만 명이 찾아오는 관광 명소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역사를 보전하려는 뉴욕 시와 뉴욕 시민들의 이야기는 무차별적인 개발에 익숙한 현대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하이라인이 구시대 산업 유물의 집합체이긴 해도 모두가 하나로 연결된 단일 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중략) 우리와 다른 시대의 산업 유산 위에 올라서서 여기저기 거닐어보는 것은 근사한 일이 아닐까?” (19쪽)

• 추천자: 김혜린(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조슈아 데이비드(Joshua David)

하이라인 프로젝트에 뛰어들기 전 프리랜서 기고가이자 에디터로 활동했다. 《포춘(Fortune)》을 비롯한 여러 잡지에 글을 실었다.

로버트 해먼드(Robert Hammond)

다양한 업종의 창업을 돕는 컨설턴트였다. 또한 독학으로 그림을 공부한 화가로, 2009년 로마 아메리칸 아카데미에서 수여하는 로마 상을 수상한 바 있다.

* 2010년 데이비드와 해먼드는 하이라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도시를 활기차게 만든 시민에게 주는 제인 제이콥스 메달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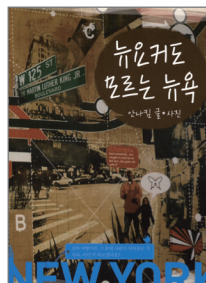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랜드마크: 도시를 경쟁하다
송하엽 | 2014



여기, 뉴욕
E. B. 화이트 | 2014



뉴욕어도 모르는 뉴욕
안나킴 |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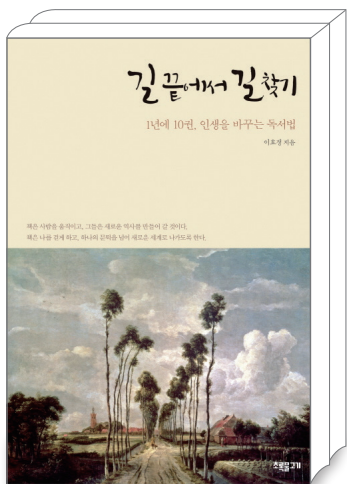
조슈아 데이비드, 로버트 해먼드 지음 |
정지호 옮김 | 푸른숲 | 2014

댓글

매연과 복잡함만이 있는 도시 속에서 한박자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전문 지식도, 대단한 준비도 없이 열정만으로 시작해 관광 명소를 만들었다니 정말 멋지네요. 도시 속에서 조금이나마 숨이 탁 트이는 그런 공간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앙탈쟁이여사(proserpi****)

길 끝에서 길 찾기



이효정 지음 | 초록물고기 | 2014

독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을 바꾸는 것이다. 독서는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깨달음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고 인생의 다른 길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어떻게 읽어야 책으로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저자는 '책 중심의 독서'보다 멘토가 될 만한 저자를 선정해 읽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막연히 책을 읽기보다는 자신에게 가치있는 책,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책을 선택해 읽으라고 조언한다.

이 책은 길이 보이지 않는 벼랑 끝에 서있는 느낌이 들 때, 새로운 길을 찾아줄 수 있는 책을 선택하는 방법부터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직접 뽑은 책을 소개하며 내 삶을 바꾸어줄 책을 선정하는 것을 돕는다.

"절실한 사람만이 변화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절실하고 간절해야 스스로 길을 찾으려 할 것이고 현실과 다투어 바라는 삶을 만들 것이다." (27쪽)

• 추천자: 고정주(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이효정

1998년, 국내 최초의 인터넷 비즈니스 웹진 《Imazine》을 만들어 초창기 인터넷 기업과 사람들의 변화와 혁신에 대해 소개하였고, 이후 조인스닷컴에서 일하였다. 중앙일보 6시그마 사무국에서도 고객 중심의 프로세스로 바꾸는 변화관리 일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체험하였다. 중앙대학교 글로벌 HRD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지금은 혁신 컨설팅 회사의 컨설턴트와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댓글

저자 중심의 독서, 정말 새로운 방법이 있어요. 저는 보통 책을 고를 때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책이나 또 읽고 싶은 분야의 베스트셀러를 찾아서 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베스트셀러를 읽고 나서 꼭 잘 팔리는 책이 좋은 책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무작정 책을 많이 읽으려 하기 보다는 꼭 필요한 책,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골라서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읽어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탈쟁이여사(proser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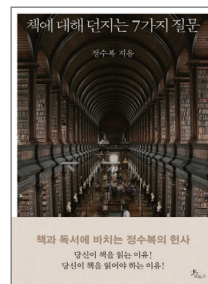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느리게 읽기
데이비드 미키스 | 2014



오직 독서뿐
정민 | 2013



책에 대해 던지는 7가지 질문
정수복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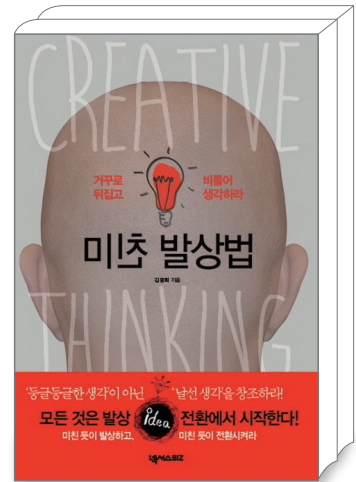
미친 발상법

창의적 발상과 가까워지는 뇌 사용 설명서를 담은 책이다. 일본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영학 교수인 저자가 참신한 스토리와 퀴즈로 발상을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책은 무심코 넘긴 사실에 대해서 거꾸로 뒤집고 비틀어 생각하게 함으로써,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에 대해 아낌없이 풀어놓는다. 따라서 ‘왜’라는 질문을 받기며, 조금만 비틀어 생각하면 생각의 전환은 참 쉬운 일이라고 말한다. 혹시 편안함에 익숙하여 ‘다르게 생각하기’를 회피하거나, ‘고정관념’에 갇혀 있던 것은 아닐까? 이 책은 지금 발상의 전환을 시작하려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일체유심조 一切唯心造, 세상이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이 지어낸 게 아니던가. 마음이라는 프레임िंग을 또 다른 프레임으로 바꾸는 순간(리프레임) 모든 게 달라진다. 아니 달라 보인다.” (87쪽)

• 추천자: 윤영조(국립중앙도서관 사서)



김광희 지음 | 넥서스BIZ | 2013

김광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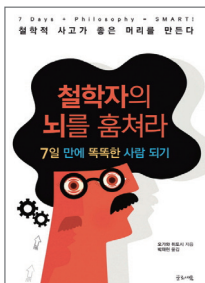
경영학 박사. 일본 도쿄 아시아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현재는 협성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창의력에 미쳐라』, 『창의력은 밥이다』, 『당신은 경쟁을 아는가』, 『유쾌한 이야기 경영학』 등 경영과 마케팅에 관한 20여 권이 있다.

댓글

저는 어릴 때부터 질문이 많아서 가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을 귀찮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들이 난감해하는 반응을 느낀 어느 순간부터 속으로만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다가 점차 생각하기를 멈췄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책을 보는 순간 어릴 때의 호기심과 궁금증이 마구 솟아나는 것 같았어요. 아이부터 나이트 분들까지 모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발상의 전환은 무척 어렵지만, 시도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으니 이 책에서 전해주는 메세지처럼 끊임없이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 보아겠습니다.

FULL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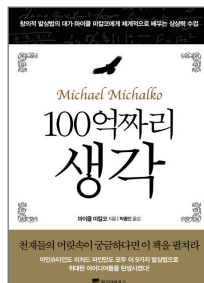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철학자의 뇌를 훑쳐라
오가와 히토시 | 2013



확률을 높이는 확률
니시우치 히로무 | 2013



100억짜리 생각
마이클 미칼코 | 2011

설득을 이기는 설명의 힘



리 레피버 지음 | 정석교 옮김 | 미디어월
| 2013

우리는 매일 사람들에게 일이나 생각에 대해 ‘설명’을 한다. 설명은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이 책은 설명을 달리기에 비유하면서, 잘 달리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듯 설명에도 기술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우선 설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설명의 기본 과정에 맞춰 ‘계획하기, 아이디어 묶기, 프리젠테이션 하기’의 3부로 구분하여 답을 제안하고, 이와 함께 다양한 동영상상을 소개함으로써 설명과 관련된 여러 개념과 기술 및 실전 사례를 다룬다. 저자는 설명의 힘이 향상된다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설명의 달인이 되는 여정을 시작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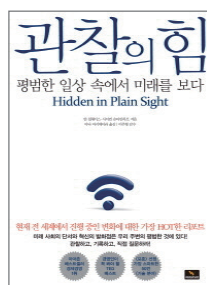
“설명에는 다른 목적이 있다. 바로 설명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것이다.” (50쪽)

• 추천자: 정봉숙(국립중앙도서관 사서)

리 레피버(Lee LeFever)

설명 컨설팅 회사인 커먼크래프트(Common Craft)의 대표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커먼크래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트위터, 인텔, 레고 등 세계적인 기업들의 서비스 및 이슈를 전 세계에 소개해 왔다. ‘온라인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웨비 상(Webby Award Honoree) 수상, 우수 기업 커뮤니케이션 사례에 수여하는 골드퀸 상(Gold Quill)을 받았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관찰의 힘
안 칠파이스, 사이먼 슈타인하트 |
2013



스토리텔링 사용설명서
황신웅 | 2013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감정을 흔들어라
다니엘 사피로, 로저 피셔 | 2013

원씽

75

<<<<<<<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꿈꾸고, 그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자기계발서의 가르침대로 자기 관리를 하고, 밀려드는 업무를 처리하고자 한번에 많은 일들을 한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통념이라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The One Thing)'를 찾아 그것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부터,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 '단 하나'를 찾아 하나씩 이루어 가면, 마침내 위대한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 복잡하고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저자의 질문은 단순하지만 강렬하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는 무엇인가?

"하루하루 자신의 가장 중요한 도미노를 넘어뜨리면 마법이 일어날 것이다." (215쪽)

• 추천자: 유지현(국립중앙도서관 사서)

게리 켈러(Gary Keller)

저명한 사업 코치이자 트레이너. 켈러 윌리엄스 투자개발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대표이사로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투자개발 회사를 일구었고, 총 130만 부 이상이 팔린 세 권의 베스트셀러를 저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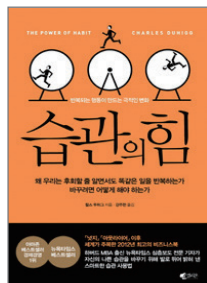
제이 파파산(Jay Papasan)

켈러 윌리엄스 출판부의 부사장이자 렐릭 출판사의 대표이사. 하퍼콜린스 출판사의 편집자로 근무하는 동안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기획하고 편집하였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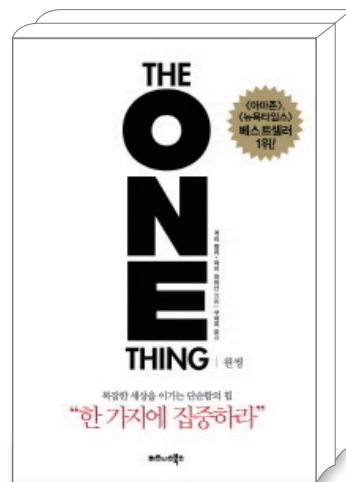
공부하는 힘
황농문 | 2013



습관의 힘
찰스 두히그 | 2012



집중력, 마법을 부리다
샘 혼 | 2012



게리 켈러, 제이 파파산 지음 | 구세희 옮김
비즈니스북스 | 2013

댓글

어느 순간에 한가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려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를 발견하면 더 많은 것들이 뒤따라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서들이 권하는 책만큼 저의 발전을 위해서 꼭 만나보고 싶은 책입니다.

가브리엘(dlsog****)

(김병완의) 초의식 독서법



김병완 지음 | 아톰포 | 2014

댓글

독서의 의미와 선조들의 독서법 등을 통해서 올바른 독서법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저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지금부터 알아두었으면 하는 조언을 해주고 싶다. 책을 매일 보지만 제 방법이 틀린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민경녕(ddarg****)

3년 동안 1만 권의 책을 읽은 저자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선조들의 독서법인 ‘초의식抄意識 독서법’을 소개한 책이다.

저자는 인생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다독’이 아닌 ‘올바른 독서법’이라고 말한다. 속독과 수단으로서의 독서에 빠진 이들에게 생각의 지평을 넓혀줄 독서 지침서가 될 만하다. 책을 통해 옛 선현들의 지혜로운 독서를 경험해보고 아울러 진정한 독서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기를 권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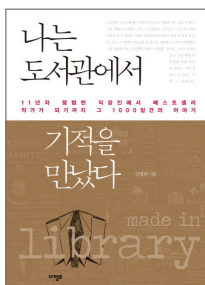
“독서는 새로운 곡을 작곡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책을 감상만 하고서는 독서를 했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다. 이렇게 눈으로만 책을 읽는 사람들, 소극적으로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수만 권의 책을 읽더라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감상만 하는 독서로는 인생은 커녕 단 하루조차 바꿀 수 없다.” (22쪽)

• 추천자: 윤영조(국립중앙도서관 사서)

김병완

現 김병완 미래경영연구소 대표, 삼성전자에서 10년 이상 연구원으로, 6시그마 전문가, IT 전문가로 활동하며 직장 생활을 했다. 그 후 3년 동안 책만 읽으며, 1년에 10권 이상의 책을 출간하는 작가로 변신했다. 주요 저서로는 『나는 도서관에서 기적을 만났다』, 『48분 기적의 독서법』, 『선비들의 평생공부법』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나는 도서관에서 기적을 만났다
김병완 | 2013



느리게 더 느리게
장사오형 | 2014



하버드의 생각수업
후쿠하라 마사히로 |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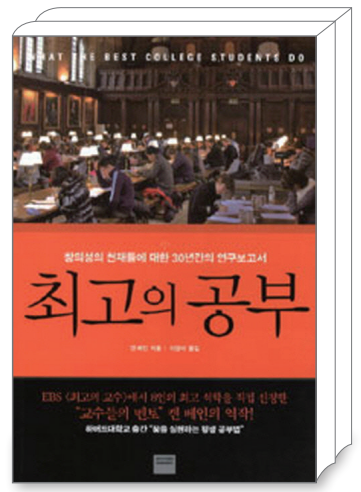
최고의 공부

당신에게 어느 날 갑자기 '맥아더 천재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니 이후 5년 동안 5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전화가 걸려온다면? 그 돈으로 무슨 일이든 해도 좋다는 말에 실제 수상자도 믿지 않고 전화를 끊을 뻔 했다고 한다. 이 책은 맥아더 재단으로부터 수상자로 선발된 도시 농부인 윌 앨런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방법으로 성공에 이르고자 한 인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먼저 그들의 공부에 대한 열정과 창의성이 담긴 지혜를 본받을 수 있도록 수많은 사례들을 제시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깊이 있는 학습과 높은 성적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바로 응용할 수 있는 공부 방식뿐만 아니라, 생각할 거리를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창의력을 발견할 수 있는 이정표를 찾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한 권의 책이다.

"학점은 중요하다. 하지만 A를 받는 데만 집중한다면 깊이 있는 학습자가 될 수 없다." (20쪽)

• 추천자: 오해정(국립중앙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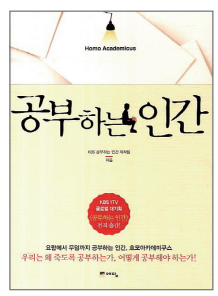


켄 베인 지음 | 이영아 옮김 | 미래엔 | 2013

켄 베인(Ken Bain)

세계 최고의 교수법 전문가로서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세계 최고 석학들의 교수법을 공개해 화제가 된 EBS 다큐멘터리 <최고의 교수>에 출연하여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샌델, 피츠버그 대학교 골드스타인 교수와 같은 최고의 교수 여덟 명을 직접 선정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집필한 미국 최고 교수들의 교수법을 연구한 세계적 베스트셀러 『미국 최고의 교수들은 어떻게 가르치는가』는 교육과 사회를 주제로 한 뛰어난 연구서에 수여하는 버지니아&런스턴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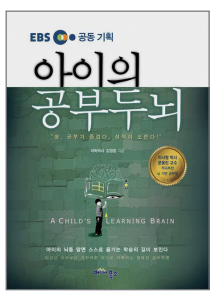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공부하는 인간
KBS 공부하는 인간 제작팀 | 2013



공부와 열정
제임스 마커스 바크 | 2013



아이의 공부두뇌
김영훈 | 2012

(빅스톤갸의) 작은 책방



웬디 웰치 지음 | 허형은 옮김 | 책세상 | 2013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자신만의 책방을 꿈꿔보지 않을까? 규모는 작아도 찾는 이가 끊이지 않고 주인의 취향이 담긴 그런 책방.

이 책은 애서가 부부인 웬디와 잭이 도시에서의 '제 살 깎아먹기 식' 삶을 버리고, 시골 빅스톤갸에 현책방을 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담고 있다. 무모하게 시작된 책방은 개점도 하기 전 여러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우리 중 진정 행복하고, 진짜 즐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웬디와 잭의 책방 이야기는 우리에게 행복을 좇아 산다는 것의 가능성, 그리고 책과 사람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곧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것이다. 내가 아는 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기 위하여 그러기를 필요로 한다. 소규모 책방들은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숍과는 다르다. 우리는 그저 팔기 위해 팔지 않는다. 우리는 이야기하는 사람과 이야기가 된 삶, 이야기를 읽는 독자 사이의 관계를 살아 있도록 유지해주기 위해 판다.”

(271쪽)

• 추천자: 박다래(국립중앙도서관 사서)

댓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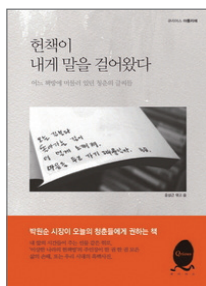
마음 속에 꼭꼭 숨겨둔 작은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책 냄새, 사람 냄새나는 조그마한 책방을 하고 싶다는……. 우연히 만난 이 책을 읽으며 내가 꿈꾸던 그런 공간을 이미 실현한 부부가 너무나 부럽고도 한없이 멋져 보였습니다. 언젠가 먼 훗날 나의, 우리의 책방에 앉아 따스한 사람들과 도란도란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책 읽는 밤(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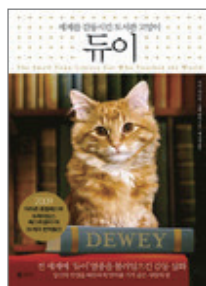
웬디 웰치(Wendy Welch)

민속 문화 전문 칼럼니스트이자 천부적인 이야기 구연가, 현책방 '테일스 오브 론섬 파인'을 꾸리고 있는 서점 주인이다. 남편 잭과 오래전부터 꿈꿔온 '나만의 책방 차리기'를 실현하기 위해 몇 천 권밖에 안 되는 장서로 현책방 '테일스 오브 론섬 파인'을 시작했다. 현재 웬디 웰치는 현책방을 꾸려가는 한편,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가르치고 남편과 함께 틈틈이 노래와 이야기 구연 공연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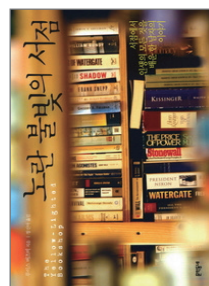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현책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윤성근 | 2013



두이: 세계를 감동시킨
도서관 고양이
비키 마이런, 브렛 워터 | 2009



노란 불빛의 서점
루이스 버즈비 | 2009

명사들의 졸업사

미국 우수 대학에서 발표된 명사 14인의 졸업사를 엮은 책이다. 영어 원문과 함께 수록됐다.

미국 최초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세상과 싸워 다음 세대를 위한 모범을 확립하라.”,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조앤 롤링은 “실패가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주지는 않는다.”, 애플사의 대표 스티브 잡스는 “항상 갈망하고, 미련하게 정진하라.” 등 꿈을 좇는 젊은이들을 격려한다.

명사들이 최고의 자리에 서기까지 체득한 인생의 지혜와 꿈을 현실로 만든 강한 열정과 같이 새로운 출발점에 선 청춘들에게 필요한 값진 조언이 담겨 있다.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기회들을 선사할 것이며,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아 대담하게 밀어붙이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14쪽)

• 추천자: 박설희(국립중앙도서관 사서)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1961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태어났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학부를 마쳤고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였다. 민권 변호사,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 헌법학 교수를 거쳐 일리노이 상원의원으로 일하였다. 2008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되었고 대통령 선거에 최종 당선되었다. 2009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고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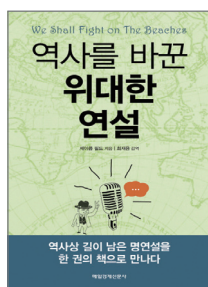
버락 오바마 외 13인 | 안지은 옮김 | 문예춘추사 | 2014

댓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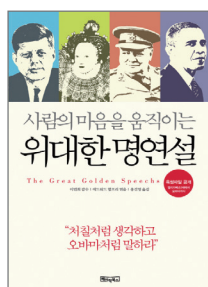
“실패를 통해서 얻을 수 없었던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라는 조앤 롤링의 말은 큰 위로가 된다. 또한, 시련을 통해서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그녀의 말이 간절하게 와닿는다. 우리도 졸업식에서 이런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책이다.

남이(qkqh****)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역사를 바꾼 위대한 연설
제이콥 필드 |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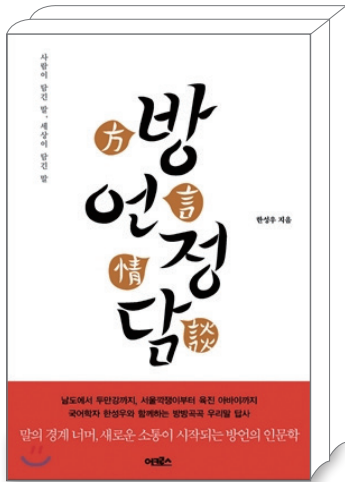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위대한 명연설
에드워드 험프리 | 2011



세상을 뒤흔든 명연설 21
크리스 애보트 | 2011

방언정담



한성우 지음 | 어크로스 | 2013

이 책은 '방언의 인문학'이다. 언어학자 한성우. 그가 20년 넘게 서울에서 두만강, 압록강변까지 방언을 조사 연구했던 경험이 책으로 엮어졌다. 방언의 오해와 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사람이 백이면 사투리도 백이라는 말이 있다. 태어나 자란 곳의 지역적 특색과 사회적 조건에 따라 우리는 조금씩 다른 언어를 구사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방언' 또는 '사투리'라 부른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어렵지 않게 이해하며 즐길 수 있다. 책을 읽는 내내 무심코 사용하는 말속에 얼마나 많은 문화와 역사,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지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구심력과 원심력이 균형을 유지해야 한국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서울말도 사투리고, 인천말도 사투리다. (중략) 문제는 표준말이다. 그러나 표준말은 실체가 있지만 실체가 없는 말이기도 하다. 서울말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말이기도 하다. 필요할 때는 표준말을 써야 하지만 사투리를 버리고 표준말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 (128쪽)

• 추천자: 박다래(국립중앙도서관 사서)

한성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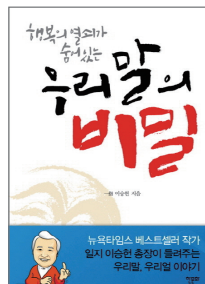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 1988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 2003년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7년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전공 교수로 부임하여 현재까지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다. 전공 분야는 한국어 음운론과 방언학이지만 일찍부터 글쓰기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 많은 경력을 쌓았다. 여러 기업과 기관의 문서 관련 컨설팅을 하였으며, 문화방송의 우리말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서 방송인의 언어에 대한 연구와 교육도 하였다.

댓글

책 이름처럼 참 정감가는 느낌이다. 우리의 소중한 말에는 인생이 녹아있고 또 세월이 녹아있다. 무심코 사용하는 언어 속에 담겨 있는 철학과 지혜를 제대로 알게 해주는 책이다. 소중한 우리 말, 좀 더 아껴가며 사용해야겠다.

블루퍼플(flower****)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행복의 열쇠가 숨어 있는)
우리말의 비밀
이승현 | 2013



B급 언어:
비속어, 세상에 똥지 걸다
권희린 | 2013



말맛으로 보는 한국인의 문화
정경조, 정수현 | 2013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목록

분야	서명	저자명	발행처	발행연	추천자명	구분
문학	건축가, 빵집에서 온 편지를 받다	나카무라 요시후미, 진 도모노리	더숲	2013	박다래	
	겨울 일기	폴 오스터	열린책들	2014	윤영조	
	내일	기욤 뫼소	밝은세상	2013	윤영조	
	당신의 출근길은 행복한가요?	김희정	소담출판사	2013	이수경	
	도서 대출 중	이경신	이매진	2013	조수민	
	도시와 나	정미경, 성석제, 함정임, 백영옥, 서진, 윤고은, 한은형	바람	2013	고정주	
	뒤늦게 발동걸린 인생들의 이야기	김덕영	다큐스토리	2013	박다래	
	배를 엮다	미우라 시온	은행나무	2013	조수민	
	소금	박범신	한겨레출판	2013	조수민	
	아버지와 함께한 마지막 날들	필립 톨레다노	저공비행	2013	이수경	
	어릴 적 그 책	곽아람	아트북스	2013	박다래	
	우리의 직업은 인생 응원단	가무샤라웅원단	위즈덤하우스	2013	조수민	서평 도서
	작가란 무엇인가	파리 리뷰	다른	2014	고정주	서평 도서
	조르바를 춤추게 하는 글쓰기	이윤기	웅진씽크빅	2013	조수민	
	천국보다 낯선	이장욱	민음사	2013	윤영조	
	풀빵이 어때서?	김학찬	창비	2013	조수민	
역사 철학	김유신 말의 목을 베다	황윤	어드북스	2013	최 혁	
	디퓨징	조셉 슈랜드, 리 디바인	더퀘스트	2013	나제용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재키 마슨	Willcompany (윌컴퍼니)	2014	박설희	
	모든 것은 빛난다	휴버트 드레이퍼스, 손 켈리	사월의책	2013	박윤희	
	설탕, 세계를 바꾸다	마크 애론슨, 마리나 부드호스	우리교육	2013	최 혁	
	스캔들 세계사	이주은	파피에	2013	문현주	서평 도서
	심야 라디오	오가와 히토시	중앙북스	2013	박설희	
	역사로 남은 조선의 살인과 재판	이번영	이른아침	2013	최 혁	
	왕과 아들	강문식, 한명기, 신병주	책과함께	2013	윤수정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우리 명승기행	김학범	김영사	2013	박윤희	
	경도전과 그의 시대	이덕일	옥당	2014	최수연	
	조선의 명탐정들	정명섭, 최혁곤	황금가지	2013	최 혁	
	행복의 비밀	조지 베일런트	북이십일 21세기북스	2013	박윤희	

분야	서명	저자명	발행처	발행연	추천자명	구분
예술 문화	1913년 세기의 여름	플로리안 일리스	문학동네	2013	박윤희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	에스더 M. 스텐버그	더퀘스트	2013	박윤희	서평 도서
	나는 클림트를 보면 베토벤이 들린다	권순환	쌤앤파커스	2014	박설희	
	동양화 읽는 법	조용진	집문당	2013	최혁	
	세상의 끝에서 세상을 말하다	이충렬, 박봉남, 이성규, 임완호, 이승준, 박환성, 김영미, 박정남, 서민원	북이십일 21세기북스	2013	장기선	서평 도서
	식탁 위의 한국사	주영하	휴머니스트	2013	정봉숙	
	엄마의 미술관	프랑수아즈 바르브 갈	미디어샘	2013	최혁	
	오래된 디자인	박현택	안그라픽스	2013	최수연	
	학교에서 배웠지만 잘 몰랐던 미술	이명옥	시공사	2013	박설희	
사회 경제	구글을 가장 잘 쓰는 직장인 되기	우병현	휴먼큐브	2013	오해정	서평 도서
	끌리는 사람은 분명 따로 있다	임무경	미래와경영	2013	조생단	
	내일을 위한 경제학	참사회경제교육연구소	다시봄	2013	정봉숙	
	당신이 알던 모든 경계가 사라진다	조용호	미래의창	2013	고정주	
	도시기획자들	천호균, 이채관, 이강오, 오형은, 최정한, 김병수, 유다희, 은유	케이애플북스	2013	정봉숙	
	부품사회	피터 카펠리	동아일보사	2013	윤영조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알렉산더 그린	북하우스	2013	고정주	
	(에릭 슈미트) 새로운 디지털 시대	에릭 슈미트, 제러드 코언	시공사	2013	정봉숙	
	세상물정의 사회학	노명우	사계절출판사	2013	조수민	
	승자의 안목	김봉국	센추리원	2013	조생단	
	에너지의 팡	박동곤	생각의힘	2013	유지현	
	융합하라!	뽀 로드, 레이 벨레즈	베가북스	2014	최수진	
	진심진력	박종평	더퀘스트	2014	장기선	
자연 과학	과학의 민중사	클리퍼드 코너	사이언스북스	2014	김혜린	
	깃털	소어 핸슨	에이도스	2013	고정주	
	꼬리 치는 당신	권혁웅	마음산책	2013	김혜린	서평 도서
	나무가 청춘이다	고주환	글항아리	2013	김혜린	

분야	서명	저자명	발행처	발행연	추천자명	구분
자연 과학	달팽이 더듬이 위에서 티격태격, 와우각상쟁	권오길	지성사	2013	김혜린	
	물총새는 왜 모래밭에 그림을 그릴까	우용태	추수밭	2013	이정화	
	사이언스 소몰리에	강석기	MID(엠아이디)	2013	고정주	
	욕망의 곤충학	길버트 월드바우어	한울림	2013	고정주	서평 도서
	자연에는 이야기가 있다	조홍섭	김영사	2013	김희장	서평 도서
	잡스가 워즈워드의 시를 읽는 이유는	조숙경	미래를소유한 사람들	2013	이정화	
기술 과학	꿀꺽, 한 입의 과학	메리 로치	을유문화사	2014	김희장	
	로봇 다빈치, 꿈을 설계하다	데니스 홍	샘터사	2013	유미예	
	(소리 없는 살인자, 고혈압·고혈당· 고지혈증 잡는) 식사순서혁명	가지야마 시즈오, 이마이 사에코	중앙북스	2013	김희장	
	쓰레기, 문명의 그림자	카트린 드 실기	따비	2014	김혜린	
	씨앗 혁명	시카이 노부오	형설라이프	2013	김희장	
	아빠를 키우는 아이	박찬희	소나무	2013	유미예	서평 도서
	엄마도 힘들어	문경보	메디치미디어	2013	고정주	
	요리를 욕망하다	마이클 폴란	에코리브르	2014	김희장	
	포크를 생각하다	비 월슨	까치글방	2013	김희장	
	하이라인 스토리	조슈아 데이비드, 로버트 해먼드	푸른숲	2014	김혜린	
자기 개발	길 끝에서 길 찾기	이효정	초록물고기	2014	고정주	
	미친 발상법	김광희	넥서스BIZ	2013	윤영조	
	설득을 이기는 설명의 힘	리 레피버	미디어월	2013	정봉숙	
	원씽	게리 켈러, 제이 파파산	비즈니스북스	2013	유지현	
	(김병완의) 초의식 독서법	김병완	아템포	2014	윤영조	
	최고의 공부	켄 베인	미래엔	2013	오해정	
그 외	(빅스톤캡의) 작은 책방	웬디 웰치	책세상	2013	박다래	
	명사들의 졸업사	버락 오바마	문예춘추사	2014	박설희	
	방언정답	한성우	어크로스	2013	박다래	

서명 찾아보기

1	1913년 세기의 여름	<u>41</u>		도시계획자들	<u>57</u>
ㄱ	건축가, 빵집에서 온 편지를 받다	<u>9</u>		도시와 나	<u>14</u>
	겨울 일기	<u>10</u>		동양화 읽는 법	<u>45</u>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	<u>42</u>		뒤늦게 발동걸린 인생들의 이야기	<u>15</u>
	과학의 민중사	<u>66</u>		디퓨징	<u>28</u>
	구글을 가장 잘 쓰는 직장인 되기	<u>52</u>	ㄴ	로봇 다빈치, 꿈을 설계하다	<u>80</u>
	길 끝에서 길 찾기	<u>90</u>	ㄴ	명사들의 졸업사	<u>97</u>
	김유신 말의 목을 베다	<u>27</u>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u>29</u>
	깃털	<u>67</u>		모든 것은 빛난다	<u>30</u>
	꼬리 치는 당신	<u>68</u>		물총새는 왜 모래밭에 그림을 그릴까	<u>72</u>
	꿀꺽, 한 입의 과학	<u>79</u>		미친 발상법	<u>91</u>
	끌리는 사람은 분명 따로 있다	<u>54</u>	ㅅ	방언정담	<u>98</u>
ㄴ	나는 클림트를 보면 베토벤이 들린다	<u>44</u>		배를 엮다	<u>16</u>
	나무가 청춘이다	<u>70</u>		부품사회	<u>58</u>
	내일	<u>11</u>	ㅇ	사이언스 소물리에	<u>73</u>
	내일을 위한 경제학	<u>55</u>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u>59</u>
ㄷ	달팽이 더듬이 위에서 티격태격, 와우각상쟁	<u>71</u>		(에릭 슈미트) 새로운 디지털 시대	<u>60</u>
	당신의 출근길은 행복한가요?	<u>12</u>		설득을 이기는 설명의 힘	<u>92</u>
	당신이 알던 모든 경계가 사라진다	<u>56</u>		설탕, 세계를 바꾸다	<u>31</u>
	도서 대출 중	<u>13</u>		세상물정의 사회학	<u>61</u>



ㄱ	세상의 끝에서 세상을 말하다	46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우리 명승기행	37
	소금	17	우리의 직업은 인생 응원단	20
	스캔들 세계사	32	원씽	93
	승자의 안목	62	융합하라!	64
	(소리 없는 살인자, 고혈압·고혈당· 고지혈증 잡는) 식사순서혁명	81	ㅋ 자연에는 이야기가 있다	76
	식탁 위의 한국사	48	작가란 무엇인가	22
	심야 라디오	34	(빅스톤갭의) 작은 책방	96
	쓰레기, 문명의 그림자	82	잡스가 워즈워드의 시를 읽는 이유는	78
	씨앗 혁명	83	정도전과 그의 시대	38
ㅇ	아버지와 함께한 마지막 날들	18	조르바를 춤추게 하는 글쓰기	24
	아빠를 키우는 아이	84	조선의 명탐정들	39
	어릴 적 그 책	19	진심진력	65
	엄마도 힘들어	86	ㆁ 천국보다 낯선	25
	엄마의 미술관	49	(김병완의) 초의식 독서법	94
	에네르기 팡	63	최고의 공부	95
	역사로 남은 조선의 살인과 재판	35	ㅍ 포크를 생각하다	88
	오래된 디자인	50	풀빵이 어때서?	26
	왕과 아들	36	ㅎ 하이라인 스토리	89
	요리를 욕망하다	87	학교에서 배웠지만 잘 몰랐던 미술	51
	욕망의 곤충학	74	행복의 비밀	40

저자 찾아보기

ㄱ 가무사라응원단 20	김학찬 26	박종평 65
가지야마 시즈오 81	김희정 12	박찬희 84
강문식 36	ㄴ 나카무라 요시후미 09	박현택 50
강석기 73	노명우 61	박환성 46
게리 켈러 93	ㄷ 데니스 홍 80	백영옥 14
고주환 70	레이 벨레즈 64	버락 오바마 97
곽아람 19	ㄹ 로버트 해먼드 89	봄 로드 64
권순현 44	리 디바인 28	비 윌슨 88
권오길 71	리 레피버 92	ㅅ 서민원 46
권혁웅 68	ㅁ 마리나 부드호스 31	서진 14
기욤 뮈소 11	마이클 폴란 87	성석제 14
길버트 월드바우어 74	마크 애론슨 31	쇼어 핸슨 67
김광희 91	메리 로치 79	손 켈리 30
김덕영 15	문경보 86	시카이 노부오 83
김병수 57	미우라 시온 16	신병주 36
김병완 94	ㅂ 박동곤 63	ㅇ 알렉산더 그린 59
김봉국 62	박범신 17	에릭 슈미트 60
김영미 46	박봉남 46	에스더 M. 스텐버그 42
김학범 37	박정남 46	오가와 히토시 34



ㅇ 오형은	57	이충렬	46	천호균	57
우병현	52	이효정	90	최정한	57
우용태	72	임무경	54	최혁곤	39
웬디 웰치	96	임완호	46	ㅋ 카트린 드 실기	82
유다희	57	즈 재키 마슨	29	켄 베인	95
윤고은	14	정명섭	39	클리퍼드 코너	66
은유	57	정미경	14	ㅍ 파리 리뷰	22
이강오	57	제러드 코언	60	폴 오스터	10
이경신	13	제이 파파산	93	프랑수아즈 바르브 갈	49
이덕일	38	조셉 슈랜드	28	플로리안 일리스	41
이마이 사에코	81	조숙경	78	피터 카펠리	58
이명옥	51	조슈아 데이비드	89	필립 톨레다노	18
이번영	35	조용진	45	ㅎ 한명기	36
이성규	46	조용호	56	한성우	98
이승준	46	조지 베일런트	40	한은형	14
이윤기	24	조홍섭	76	함정임	14
이장욱	25	주영하	48	황윤	27
이주은	32	진 도모노리	09	휴버트 드레이퍼스	30
이채관	57	츠 참사회경제교육연구소	55		

2014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가 추천하는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펴낸 날 2014년 7월 1일

펴낸 이 임원선

펴낸 곳 국립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우) 137-702
전화 (02)3483-8830
팩시밀리 (02)590-0607
홈페이지 <http://www.nl.go.kr>

디자인 원화디앤피 (02)2266-4410

© 국립중앙도서관, 2014

ISBN 979-11-5687-033-3

ISBN 978-89-7383-654-3 (세트)

2014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가 추천하는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비매품

04020



9 791156 870333

ISBN 979-11-5687-033-3

ISBN 978-89-7383-654-3 (세트)